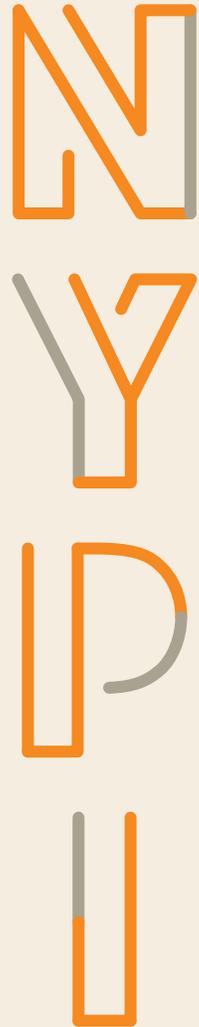


연구보고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최용환 성유리 박윤수 김보경



연구보고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저 자 최용환, 성유리, 박윤수, 김보경

연구진 연구책임자_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성유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박윤수(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_김보경(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직과 조교수)
연구보조원_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내면화하고 체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실제로 청소년활동의 경험들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쉽게도 문헌연구 결과,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관련 연구의 결과 및 현재 추진 중인 공공정책의 시사점을 고찰하고 새롭게 조작적 정의하였다. 최근 국가적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국정실체가 이슈화되는 만큼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연구’를 기준으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exam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① 인권, ② 안전, ③ 노동인권, ④ 사회통합, ⑤ 상생과 협력, ⑥ 공동체의식, ⑦ 지역경제의 균형, ⑧ 윤리와 평등, ⑨ 환경, ⑩ 의사결정참여 총 10가지로 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현장에서 사업단위로 뿌리를 내려온 만큼 청소년참여활동은 자유학기제 활동, 청소년자원봉사(DOVOL),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정책참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 9개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실증분석단계에서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경험여부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변화에 미치

는 순효과만을 추정하였다. 특히 이중차분모형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준 실험설계에서 시간적 성숙효과와 집단 간 차이효과를 제거하므로 순수하게 청소년활동의 경험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변화의 효과만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조사의 표집은 짝짓기 설계(matched pairs design)에 따라 구성된 전국 1,354명이 표집대상이며 정책의 실험효과를 위한 2회차까지 모두 응답한 청소년들은 606명이었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인권, 사회통합, 윤리평등, 의사결정참여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상 IPA(중요도-실행정도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에 따라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 공동체 의식 수준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활동 중에서 사회적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자유학기제와 같은 학교관련 활동이었다.

한편, 청소년에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해 사회적 가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널리 활용되는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이용하여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대한 추가분석도 실시하였다. 행동실험에 대한 패널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분석결과, 역시 청소년활동의 경험은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배려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소년활동의 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변화가 인권, 사회통합, 윤리평등, 의사결정참여 인식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내 중심의 활동 및 교과적 수준의 인지도 제고의 성과로 제한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내적 가치를 체득을 돕는 정책수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①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② 유관 법령의 제·개정, ③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④ 평가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특히 앞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담을 비전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와 청소년기의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토대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차별되는 (가칭)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와 모순되어 있는 중앙부처의 조직문제 개선안과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기 위한 관련 평가체계 강화 등도 같이 제언하였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내면화하고 체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실제로 청소년활동의 경험들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
- 나아가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청소년참여활동은 현장에서 사업단위로 뿌리를 내려온 만큼 실무적인 개념에서 청소년활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함. 또한 청소년 활동에 따른 청소년들이 체득하고 내면화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 개념을 조작적 정의함.
-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활동 경험에 따라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분석대상의 시간적 성숙효과를 통제한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활용함. 청소년조사의 표집은 짝짓기 설계(matched pairs design)에 따라 이루어짐.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경험의 여부가 있는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두 집단이 서로 동질적인 구성이 되도록 하였음. 본 청소년조사의 목적은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청소년

년활동 경험의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임. 따라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본설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질성을 통제는 중요함. 2시점의 조사 동안 결측도 많이 예상되어 두 집단의 이질적 균형은 더욱 중요함. 이에 본 연구는 17개 시도에 각 1명의 담당 청소년지도사를 지정하고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현장에서 짝을 지었으며 최대한 인적특성 등 유사한 특성이 매칭하여 표집함(전국 총 1,354명). 1차 조사에서 총 86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606명이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도 응답함. 조사는 웹조사로 실시함. 두 집단의 청소년은 실험설계상 동일한 질문지에 6월과 11월 총 2회 응답하였으며, 각 시점에서 지난 6개월간의 청소년활동 경험에 대해 응답함. 청소년에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해 사회적 가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널리 활용되는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이용하여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전문가 설문조사: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교화 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별로 인식조사 및 중요도-실행정도 분석(IPA)을 실시함. 조사의 응답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학계,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활동 분야), 청소년시설(보호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됨. 전체 사례수는 519명이며 2020년 9월에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및 청소년 심층면접: 실증연구에서 나타나지 못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형성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계획이나 평가 과정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교육 등 청소년활동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4인, 청소년현장 전문가 2인, 행정계 전문가 2인 총 8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또한 2년 이상 청소년활동을 경험했고 현재도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4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3. 주요결과

1) 문헌연구 결과

- 문헌연구 결과, 아쉽게도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었음.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관련 연구의 결과 및 현재 추진 중인 공공정책의 시사점을 고찰하고 새롭게 조작적 정의함. 최근 국가적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국정설계가 이슈화되는 만큼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연구’를 기준으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음미함.
- 그 결과, 청소년활동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① 인권, ② 안전, ③ 노동인권, ④ 사회통합, ⑤ 상생과 협력, ⑥ 공동체의식, ⑦ 지역경제의 균형, ⑧ 윤리와 평등, ⑨ 환경, ⑩ 의사결정참여 총 10가지로 규정함.
- 청소년활동은 현장에서 사업단위로 뿌리를 내려온 만큼 청소년참여활동을 자유학기제 활동, 청소년자원봉사(DOVOL),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정책참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 9개로 조작적 정의함.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변화에 대한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 추정결과

- 청소년의 참여활동 중에서 사회적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자유학기제와 같은 학교관련 활동이었음. 준실험의 집단차이 효과와 기간효과를 제거한 각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적 가치 인식 향상에 미친 순효과는 자유학기제($\beta=0.087$, $p<0.05$)와 방과후아카데미($\beta=0.066$, $p<0.05$)에서만 나타났음.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8.7% 상승하였고, 방과후아카데미를 수강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6.6% 상승함.
- 준실험의 집단 차이 효과와 기간효과를 제거한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적 가치 인식 향상에 미친 순효과는 인권($\beta=0.092$, $p<0.1$), 안전($\beta=0.093$, $p<0.1$), 사회통합($\beta=0.087$, $p<0.1$), 윤리와 평등($\beta=0.112$, $p<0.05$), 의사결정참여($\beta=0.106$, $p<0.05$)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음. 즉,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청소년활동 비경험 청소년에 비해 인권 9.2%, 안전 9.3%, 사회통합 8.7%, 윤리와 평등 11.2%, 의사결정참여 10.6% 향상함.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핵심요소로 꼽을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청소년활동경험의 순효과($\beta=0.042$, $p=ns$)뿐 아니라, 기간효과($\beta=0.050$, $p=ns$)와 준실험의 집단 차이 효과($\beta=0.026$, $p=ns$)도 나타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성장과정과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체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시사함.

3)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널리 활용되는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통한 청소년활동에 따른 공동체의식 변화분석

- 앞선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변화에 대한 이중차분모형

(difference in differences) 추정결과 공동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청소년에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해 사회적 가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대한 패널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분석결과, 역시 청소년활동의 경험은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오히려 배려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청소년활동의 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변화가 인권, 사회통합, 윤리평등, 의사결정참여 인식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내 중심의 활동 및 교과적 수준의 인지도 제고의 성과로 제한됨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청소년활동의 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긍정적 변화는 청소년활동의 성과보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아직 더 높았음.

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IPA 분석

- 전체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의 10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청소년활동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고 IPA 매트릭스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유지 및 강화되어야 할 I사분면에는 안전, 인권, 의사결정참여, 사회통합이 포함되었고,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II사분면에는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III사분면에는 환경, 공동체, 노동인권, 지역경제의 균형이 포함됨.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IV사분면에 위치한 사회적 가치는 없었음.
- 유지강화 영역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는 각 요소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교과과정을 포함해 많은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Wee클래스(Wee센터, Wee스쿨 등)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환경적인 영향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음. 이와 같이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시설 및 정책은 비교적 안정됨.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는 의사결정참여 요소를 실행시키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존재 등은 사회통합 요소를 지지함. 즉, 실행정도는 활동 프로그램의 존재 이전에 정책적인 기반(유관 법령, 교과교육, 전담 기관)의 유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중점개선 영역과 점진개선 영역에 위치한 사회적 가치를 유지강화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함.

- 앞선 청소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인권, 사회통합, 윤리평등, 의사결정참여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음. 이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상 IPA(중요도-실행정도 분석)결과와도 일치함.

5) 전문가 및 청소년 심층면접 분석결과

- 학계, 현장, 행정계 공무원들은 모든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각될 필요가 있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음. 첫째, 우선해야할 사회적 가치는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환경,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의 가치는 모든 분야의 청소년 전문가가 동의하는 주요 가치로 나타났음. 둘째, 노동인권과 지역경제의 균형 가치는 교육활동이 선행되거나 병행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지역사회와 교육과정이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동력으로써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즉, 새로운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규제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위해서는 법령이 필요하며, 그 안에 운영이나 조직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 법령은 많지 않다는 것임.
-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효과적 제고를 위해 체계적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부서가 행정 편의상 분리되어있는 경우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점과 한계가 많다는 것임. 또한 현존하는 사회적 가치 담당 부서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즉, 평가 지표의 포함은 활동을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추진동력으로써 기능을 하며, 그밖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담당자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임.

4. 정책제언

-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탁현우와 윤건(2020)이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에서 제시한 4가지 정책수단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언함. 4가지 정책수단인 ①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② 유관 법령의 제·개정, ③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④ 평가 강화를 기준으로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도출한 정책은 5가지 정책방향과 12개의 세부 정책제언으로 구성됨.
- 정책수단 1.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윤리와 평등, 차별 없는 상생과 협력, 환경’가치를 새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지 않는 노동인권 및 건강한 경제인식 제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언함.
- 정책수단 2. 유관 법령의 제·개정
 -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령 등을 개정하고, 지역별 청소년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과협력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언함.
- 정책수단 3.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가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 개편을 제언함.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 개편하는 방안으로 타과와의 중복 업무를 제거하고,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정책수단 4. 평가강화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할 것을 제언함.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지표 개선이 필요함.

정책수단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새로운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	1-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윤리 평등, 차별 없는 상생 협력, 환경'의 가치를 새 비전으로 제시 1-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지 않는 노동인권 및 건강한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내용 포함	● ● ● ● ● ●
유관 법령의 제·개정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률 등의 개정	2-1.(1안) 청소년기본법 개정 2-2.(2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2-3.(3안)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 ● ● ● ● ●
	3. 지역별 청소년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과협력위원회' 운영	3-1.(1안)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구성	● ●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4.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가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개편	4-1.(1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가치과로 개편 4-2.(2안) 사회적 가치과 개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 4-3.(3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개편	● ● ● ● ●
평가 강화	5.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5-1. '지방자치단체 활동 평가'의 지표 개선 5-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 평가'의 지표 개선 5-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지표 개선	● ● ● ● ●

그림 1. 본 연구의 정책 제언에 대한 요약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R04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추진체계 4
- 3. 연구내용 5
- 4. 연구방법 6

II. 국가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 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한계 .. 13
- 2. 교육과 청소년정책 수준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6

I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 청소년활동과 신체적 성장 29
- 2. 청소년활동과 심리적 안정 32
- 3. 청소년활동과 인지적 발달 36
- 4.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발달 38

IV.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1. 청소년활동의 개념 51
2. 청소년활동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접근 64

V.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1. 사회적 가치의 개념 69
2.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접근
..... 88

VI.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수준

1. 청소년 응답자의 인적 특성 94
2.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과 참여도 101
3. 청소년 참여활동의 인식 수준, 역량 및 삶의 질 수준
..... 106
4.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117
5. 청소년활동의 경험 및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 119

VII. 청소년활동의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변화에 대한 이중차분모형 분석

1.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130
2.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별 인식 수준
..... 132
3. 청소년활동별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 135

VIII. 청소년활동에 따른 공동체의식 변화에 대한 행동실험 분석

1. 행동실험을 위한 측정 도구 142
2. 행동실험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 144
3. 추정 결과 146
4. 소결론 150

IX.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IPA 분석	
1. 조사개요 및 IPA 분석 방법	153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중요도 인식	158
3.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실행정도 인식	163
4.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별 전문가 의견	169
5. IPA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174
6. 소결론	179
X.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183
2.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187
3.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분석결과	204
XI. 정책 제언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비전 제시 ..	214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률 등의 개정	219
3. (가칭)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운영	228
4.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개편	235
5.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재표 개선	242
참고문헌	251
부 록	275
Abstract	303

표 목차

표 I-1. 연구진 역할분담	5
표 I-2. 설문조사 개요	8
표 I-3. IPA 개요	9
표 I-4. FGI 개요	9
표 II-1.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전 세계국가, 1990년-2017년)	20
표 II-2.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비OECD국가, 1990년-2017년)	21
표 II-3.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OECD국가, 1990년-2017년)	22
표 II-4. 교육체계가 국가혁신(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995년-2017년)	24
표 II-5. 청소년정책 수준을 포함한 교육체계가 국가혁신(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2010년, 2016년)	25
표 IV-1. 지역별 청소년시설의 주요 비대면 청소년활동	58
표 IV-2. 청소년활동의 조작적 개념정의	65
표 V-1. 사회책임과 유사개념 간 관계	76
표 V-2.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78
표 V-3.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 분석 대상 17개	81
표 V-4. 사회적 가치 구현 공공기관 세부평가 내용	82
표 V-5. 사회적 가치의 범주와 100대 국정과제(일부)	82
표 V-6.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	90
표 VI-1. 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94
표 VI-2. 청소년 응답자의 학교급 및 학년	95
표 VI-3. 청소년 응답자의 거주 지역	96
표 VI-4. 청소년 응답자의 학급 형태	97
표 VI-5. 청소년 응답자의 학급 학생 수	98

표 VI-6. 청소년 응답자의 학교 성적	99
표 VI-7. 청소년 응답자의 학교생활 만족도	100
표 VI-8. 청소년 응답자의 수업참여 형태	101
표 VI-9.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경험 여부	102
표 VI-10.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별 참여경험 여부	103
표 VI-11.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도	104
표 VI-12.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별 참여도	105
표 VI-13. 청소년 응답자의 정책참여활동 인식수준	107
표 VI-14. 청소년 응답자의 경제참여활동 인식수준	108
표 VI-15. 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참여활동 인식수준	109
표 VI-16. 청소년 응답자의 문화참여활동 인식수준	110
표 VI-17. 청소년 응답자의 교육현장참여활동 인식수준	111
표 VI-18. 각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112
표 VI-19.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수준	113
표 VI-20. 청소년 역량 6C에 대한 평균 수준	114
표 VI-21. 청소년 삶의 질 10개 세부영역의 주요 개념	115
표 VI-22. 청소년 응답자의 삶의 질 수준	116
표 VI-23. 청소년 응답자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	117
표 VI-24. 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별 인식수준	118
표 VI-25. 청소년활동의 경험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120
표 VI-26. 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별 인식수준	121
표 VI-27.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1차 조사 응답자)	123
표 VI-28.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125
표 VII-1.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131
표 VII-2.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별 인식 수준	133
표 VII-3. 각 청소년활동별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137
표 VIII-1. 행동실험 응답결과	144
표 VIII-2. 추정 결과	148
표 IX-1. 응답자 특성	154
표 IX-2. 전문분야별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	160
표 IX-3. 중요도 ANOVA 분석결과	162
표 IX-4. 전문분야별 사회적 가치의 실행정도	165

표 IX-5. 실행정도 ANOVA 분석결과	168
표 IX-6.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적합성	169
표 IX-7.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유관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	170
표 IX-8.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	171
표 IX-9.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평가 강화의 필요성	172
표 X-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적 특성	185
표 X-2. 심층면접 질문지 내용	186
표 XI-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비전을 제시	214
표 XI-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률 등의 개정	219
표 XI-3. 청소년기본법 개정 예시	220
표 XI-4.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예시	223
표 XI-5.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설치	228
표 XI-6.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 개편	235
표 XI-7. 평가지표 개선	242
표 XI-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 개선안	245
표 XI-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의 지표 개선안	246
표 XI-1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지표 개선안	248

그림 목차

그림 II-1. 2004~2013 국제학업성취도(PISA) 수준과 교육의 질(IMD)	14
그림 IV-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53
그림 V-1.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발전 및 포용국가와의 관계	79
그림 IX-1. IPA 매트릭스	156
그림 IX-2.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네 정책 수단의 필요성	173
그림 IX-3.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학계)	174
그림 IX-4.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175
그림 IX-5.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초·중·고등학교 교원)	176
그림 IX-6.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활동분야 청소년시설)	177
그림 IX-7.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보호복지분야 청소년시설)	178
그림 IX-8. 사회적 가치 10요소의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전체)	180
그림 XI-1. 본 연구의 정책 제언에 대한 요약	213
그림 XI-2. 8학년 학생이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비율	215
그림 XI-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 수정안	217
그림 XI-4.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세부과제 수정안	218
그림 XI-5.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체계	229
그림 XI-6. 청년청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30
그림 XI-7.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조직도	232
그림 XI-8.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운영체계도	233
그림 XI-9. '4-1. (1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 (전)	237
그림 XI-10. '4-1. (1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 (후)	238
그림 XI-11. '4-2. (2안) 사회적 가치과 개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 (전)	239
그림 XI-12.	'4-2. (2안) 사회적 가치과 개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 (후)	239
그림 XI-13.	'4-3. (3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 개편' (전)	240
그림 XI-14.	'4-3. (3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 개편' (후)	241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의 교육은 크게 학교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규교과활동과 학교현장 이외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발전과 국가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학교 밖 체험과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학교 이외의 체험과 학습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유사한 비중으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8). 뿐만 아니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국가청소년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및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영향으로 청소년활동은 교육정책과 활발히 연계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또한 최근의 청소년 활동정책은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과 함께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17).

현재 정부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안하였다(탁현우, 윤건, 이다솜 외, 2019). 정부는 정책 추진 전 과정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a). 청소년은 교과목을 통해 안전, 윤리, 평등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학습하지만 가치

는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유기적으로 체득되는 개념에 가까우므로 청소년의 가치체득에 가장 적합한 장은 정규교과보다는 교과 외 활동(청소년활동) 일 수 있다. 이에 청소년활동진흥원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확립 및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2020~2024년 경영목표로 세우고(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사회적 가치 실현부서를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청소년활동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청소년활동과 체험이 점차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청소년활동에 따라 체득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조사를 통해서 청소년활동이 지향해할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고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진은 내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외부공동연구원 2인, 내부 연구사업 운영원으로 구성되어있다¹⁾. 이들은 ①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고 ② 관련된 개념정의를 토대로 전국 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 조사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③ 앞선 실험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제고 방안의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으며 ④ 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중요도-실행정도 분석(IPA)과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정책제언을 정교화 하였다.

1) 본 보고서의 Ⅲ장은 공동연구원인 박윤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가 집필하였으며, X장은 김보경 교수(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직과)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표 1-1. 연구진 역할분담

연구인력	담당업무	비고
연구책임자	연구전반에 걸친 기획 및 분석 등 전체 총괄	
공동연구원	선행연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등	
공동연구원(외부)1	유관 통계 및 자료 분석과 시사점 등	
공동연구원(외부)2	설문조사와 시사점	
연구사업운영원	자료 정리 및 일정 관리	

3. 연구내용

1) 청소년활동의 개념조사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청소년활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접근하는 청소년활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법적 개념, 정책적 개념, 실무적 개념을 살펴보고,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타당한 개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2) 사회적 가치의 개념화

현재 청소년활동 분야에 사회적 가치 제고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청소년기의 교육 혹은 체험, 경험에 따른 사회적 가치는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공통된 정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이 주관적으로 정의한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 이론이나 현재 법적 혹은 정책적으로 실현 중인 사회적 가치와 맥락상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청소년활동과 경험에 따른 사회적 가치 유사연구와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정부가 제안하는 ‘포용사회구현을 위

한 사회적 가치(13개 요인)를 기준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규정한 사회적 가치(12개 요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을 조화하여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3)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변화분석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가치의 조작적 개념을 도출한 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조사하였다.

4)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도출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변화 효과와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도출한 이후에, 청소년과 청소년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청소년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별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헌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였다.

2) 설문조사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경험에 따라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분석대상의 시간적 성숙효과를 통제할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청소년조사의 표집은 짝짓기 설계(matched pairs design)에 따라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경험의 여부가 있는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두 집단이 서로 동질적인 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본 청소년조사의 목적은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청소년활동 경험의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은 표본설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질성을 통제는 중요하다. 또한 2시점의 조사 동안 결측도 많이 예상되어 두 집단의 이질적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조사를 승인받아, 17개 시도에 각 1명의 담당 청소년지도사를 지정하고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현장에서 짝을 지었으며 최대한 인적특성 등 유사한 특성이 매칭하여 표집하였으며 이는 전국 총 1,354명이다. 이에 1차 조사에서 총 86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606명이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도 응답하였다.

두 집단의 청소년은 실험설계상 동일한 질문지에 6월과 11월 총 2회 응답하였다. 각 시점에서 지난 6개월 간의 청소년활동의 경험을 질문하였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CJ인재원 등 여러 기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종료 직후나 1~3개월 후에 사후평가를 실시한다(농촌진흥청, 2012). 따라서 본 조사가 최근 1년 내외의 청소년활동 경험을 기준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별하지만 전술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는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표본수	- 전국 청소년 1,354명 표집(1차에 응답한 청소년 862명, 1차와 2차를 모두 응답한 청소년 606명)
표집방법	- 인적 특성을 고려한 짝짓기 설계(matched pairs design)표집 (대상 중1~고2 재학 청소년)
조사설계	- 준수실험설계에 기초한 이중차분모형 - 각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5개월 시차를 두고 2회 조사 - 따라서 조사기간 동안 '청소년활동 경험이 없는 1차 조사 응답집단(A)',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1차 조사 응답집단(B)', '청소년활동 경험이 없는 2차 조사 응답집단(C)',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2차 조사 응답집단(D)'으로 구분됨 - 이들 집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순수한 청소년활동의 경험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순변화만 추정가능
조사내용	- 청소년의 인적 특성 -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인식 등 -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또는 이타심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
조사시기	- 2020년 6월, 11월(동일한 설문에 대한 2회 조사 실시)
조사방법	- Web 설문조사(조사전문기관 위탁)

3)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IPA(중요도-실행정도) 및 FGI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교화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별로 인식조사 및 중요도-실행정도 분석(IPA)을 실시하고, 세부적 가치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나아가 IPA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IPA를 수행하기 위해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전문가 대상 웹조사를 승인받았으며, 심층적인 면담이 필요한 FGI 수행은 대면조사를 승인받았다.

표 1-3. IPA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조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전문가 패널단 소속 청소년 전문가 519명	
표집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전문가 패널단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내용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및 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실행정도	
조사시기	2020년 9월	
조사방법	Web 설문조사(조사전문기관 위탁)	

표 1-4. FG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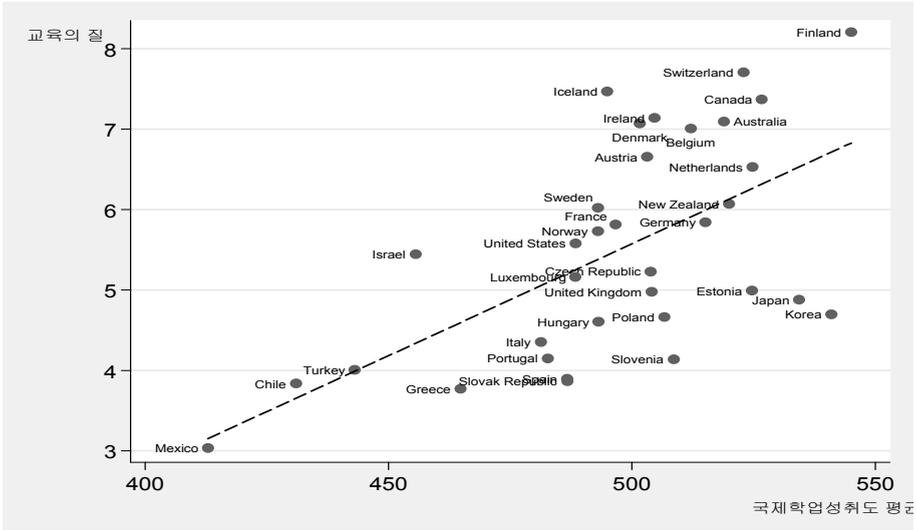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면담대상	청소년정책관련 학계, 행정계, 현장 전문가 8인, 청소년 4인	
표집방법	청소년활동 운영 및 정책추진 경험자를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	
면담내용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면담시기	2020년 10~11월	
면담방법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한 심층면담	

○ — 제2장 국가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 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한계
- 2. 교육과 청소년정책 수준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한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급속한 국가발전 원동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이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하는 IMD 국가경쟁력보고서(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블룸버그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 등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UNDP(2019)의 인간개발보고서 2019(Human Development Report 2019)에서 발표한 각국의 평균교육년수(Mean years of schooling)에 따르면, 약 182개국의 평균교육년수가 7.48년이지만 한국의 평균교육년수는 10.96년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 출처: 최용환(2015). 서울형 혁신학교 성과평가 연구: 고교유형별 학교효과를 중심으로. p.1.

그림 II-1. 2004~2013 국제학업성취도(PISA) 수준과 교육의 질(IMD)

반면 한국이 높게 평가받는 우수한 인적자원역량과 높은 수준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운수(2018)의 ‘인지역량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적 인재 양성의 질은 높은 반면 혁신을 견인하는 고숙련 인력은 유사한 수준의 타 국가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더욱이 미국·일본과 달리 최상위 수준의 인재들이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림 II-1>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OECD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PISA)’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에서 발표한 ‘교육의 질적 수준’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 수준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은 일본,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와 함께 매우 낮은 수준이다(최용환, 2015).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높은 평균교육년수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적자

원의 개발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인지역량 개발 중심의 주입식 교육체계에 의해 청소년기에 다양한 역량개발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한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교육은 크게 학교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규교과활동과 학교현장 이외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발전과 국가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학교 밖 체험과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학교 이외의 체험과 학습이 유사한 비중인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8).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청소년활동의 주요한 특징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로 ‘청소년의 역량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며, 2009년 개정교육과정 및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영향으로 청소년활동은 교육정책과 활발히 연계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또한 최근의 청소년활동정책은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과 함께 더 나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목표를 갖는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17).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청소년활동과 체험이 점차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교육 성과분석 연구는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다.

2. 교육과 청소년정책수준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 자료와 국가별 패널자료 실증분석 방법

(1) 실증분석 모형과 방법

본 실증모형은 패널자료에 대하여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른 오차항의 가정에 따른 오차구성모형(error component model)의 고정효과(fixed effect)분석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을 활용하였다(Baltagi, 2008).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xed Effects Model〉 $Cov(X_{it}, \lambda_i) \neq 0$

$$Y(\text{1인당 GDP})_{it} = \beta_0 + \beta_1 \log(\text{총인구})_{it-1} + \beta_2 \log(\text{총자본})_{it-1} + \beta_3 \log(\text{정부총지출})_{it-1} \\ + \beta_4(\text{무역개방성})_{it-1} + \beta_4(\text{평균교육년수})_{it-1} + \lambda_i + \epsilon_{it}$$

〈Random Effects Model〉 $E(X_i | \lambda_i) = 0$ $Cov(X_{it}, \lambda_i) = 0$

$$Y(\text{1인당 GDP})_{it} = \beta_0 + \beta_1 \log(\text{총인구})_{it-1} + \beta_2 \log(\text{총자본})_{it-1} + \beta_3 \log(\text{정부총지출})_{it-1} \\ + \beta_4(\text{무역개방성})_{it-1} + \beta_4(\text{평균교육년수})_{it-1} + \lambda_i + \epsilon_{it}$$

* $\mu_{it} = \lambda_i + \epsilon_{it}$, μ_{it} =오차항, λ_i =관찰되지 못한 국가의 개별적 특성,
 ϵ_{it} =순수한 오차항(확률적 교란항)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가들의 고유한 특성을 λ_i 라고 하고, 이들의 속성이 국가마다 동질적이어서 오차구성모형의 $E(\mu) = 0$ 이라고 한다면 이는 통합회귀분석(Pooled OLS)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E(\mu) \neq 0$ 이면서, 각 국가마다 고유한 특성(heterogeneity)이 존재하면 $Cov(X_{it}, \lambda_i) \neq 0$ 이 되어 추정의 편의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λ_i 을 모형 안에 포함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다. 반면에 λ_i 을 정규분포를 따르는 일종의 확률변수로 가정하여, $Cov(X_{it}, \lambda_i) = 0$ 이면 고정효

과모형처럼 λ_i 을 분석모형 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확률효과 모형이라고 하며, 고정효과보다 더 효과적인 추정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형을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한다.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선택은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의 결과를 활용한다. 하우스만 테스트가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선별하는 목적의 테스트는 아니지만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계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확률효과 모형이 가정에 의해 고정효과 모형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역인과성의 문제로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차변수를 활용하여 도구변수추정법을 활용하지 않고도 내생 변수에 대한 추정편의를 피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교육적 성과는 국가발전의 양적 측면인 경제성장 이외에 국가의 혁신수준을 대표하는 총요소생산성으로 확장하여 분석한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은 GDP 대비 R&D 투자, 교육체제의 경쟁력, PISA 수학점수, PISA 과학점수, Commonwealth Youth Development Index(YDI)의 청소년개발지수로 분석한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활용하는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활용하는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모형의 대상국가는 65개국의 개발국가이지만 경제성장 모형의 경우 전 세계 국가가 대상이므로, 편의상 개발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OECD국가와 비OECD국가로 구분하여 세부 결과를 분석하였다.

〈Fixed Effects Model〉 $Cov(X_{it}, \lambda_i) \neq 0$

$$Y(TFP)_{it} = \beta_0 + \beta_1 \log(GDP\text{대비 } RD)_{it-1} + \beta_2(\text{교육체제 경쟁력})_{it-1} \\ + \beta_3(II\text{SA수학점수})_{it-1} + \beta_4(II\text{SA과학점수})_{it-1} + \beta_5(\text{평균교육년수})_{it-1} \\ + \beta_6(\text{청소년개발지수})_{it-1} + \lambda_i + \epsilon_{it}$$

〈Random Effects Model〉 $E(X_i|\lambda_i) = 0$ $Cov(X_{it}, \lambda_i) = 0$

$$Y(TFP)_{it} = \beta_0 + \beta_1 \log(GDP\text{대비 } RD)_{it-1} + \beta_2(\text{교육체제 경쟁력})_{it-1} \\ + \beta_3(II\text{SA수학점수})_{it-1} + \beta_4(II\text{SA과학점수})_{it-1} + \beta_5(\text{평균교육년수})_{it-1} \\ + \beta_6(\text{청소년개발지수})_{it-1} + \lambda_i + \epsilon_{it}$$

* $\mu_{it} = \lambda_i + \epsilon_{it}$, μ_{it} =오차항, λ_i =관찰되지 못한 국가의 개별적 특성,
 ϵ_{it} =순수한 오차항(확률적 교란항)

(2) 실증분석 자료

본 실증분석에서는 청소년기의 교육과 청소년정책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대표적인 국가발전의 객관적 지표는 경제성장이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교육의 국가적 성과로 평균교육년수와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Acemoglu & Autor, 2010; Barro & Lee, 2001; Hanushek & Woessmann, 2011; Katz & Murphy, 1992).

한편, 대표적인 경제성장의 영향요인은 노동력과 자본, 인적자원(Aghion & Howitt, 1997; Lucas, 1988; Romer, 1990; Solow, 1956), 정부지출(Afonso & Furceri, 2008; Bergh & Karlsson, 2009; Wacziarg & Welch, 2008), 무역개방성(Gyimah-Brempong, 2002; Knight, Loayza, & Villanueva, 1993; Yimer, 2011) 등이 고려된다. 이에 본 실증자료는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공표하는 거시경제 관련 자료인 PWT(Penn World Tables) 9.1 자료와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평균교육년수는 UNDP(2019)

에서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 2019(Human Development Report 2019)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무역개방성의 측정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국가의 총 수입액과 총 수출액을 1인당 GDP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자료는 PWT(Penn World Tables) 9.1에서 수집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제성장은 구매력 환산 1인당 GDP이다.

한편 청소년기의 교육적 성과를 국가발전의 양적 측면인 경제성장 이외에 국가의 혁신수준을 대표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확장하여 분석한 모형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국가적 성과는 표면적인 성장 이외에 국가의 혁신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국가발전의 혁신역량 수준을 총요소생산성(TFP)으로 정의한다. 총요소생산성(TFP)은 생산과정의 효율성, 경제시스템의 창의성과 혁신의 결과물로 국가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 생산성을 단일요소생산성이라고 하며, 단일요소생산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진보 등을 고려한 것을 총요소생산성(TFP)이라고 한다. 즉, 총요소생산성(TFP)은 동일한 생산요소의 투입에 대하여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술진보, 인적자본, 제도 등이 고려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본 실증분석은 청소년기의 청소년정책 수준과 교육성과가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비, IMD 경쟁력지수 산출에 조사된 국가별 교육체제 경쟁력 수준, 인지역량을 설명하기 위한 PISA 수학점수와 PISA 과학점수를 1차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질문인 청소년정책 수준과 국가적 정책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과 2016년에 조사된 Commonwealth Youth Development Index(YDI)의 청소년개발지수를 고려한 최종모형을 구성하였다.

2)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전 세계국가를 대상으로

표 II-1.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전 세계국가, 1990년-2017년)

	FE(고정효과)		RE(확률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ogged 총 인구($t-1$)	-0.528***	0.021	-0.500***	0.019
logged 총 자본($t-1$)	0.329***	0.006	0.309***	0.006
logged GDP 대비 정부소비지출($t-1$)	-0.058***	0.011	-0.052***	0.011
무역개방성($t-1$)	0.000***	0.000	0.000***	0.000
평균교육년수($t-1$)	0.101***	0.003	0.107***	0.003
상수	5.725***	0.059	5.794***	0.086
표본	3,714		3,714	
대상국가	156		156	
hausman test	0.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II-1〉은 평균교육년수로 대리되는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1990년부터 2017년간 156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 결과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여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국가별 평균교육년수가 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교육년수는 생산의 핵심요소인 자본 및 무역개방성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높이는 핵심변수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청소년기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가별 발전수준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다음에서는 비OECD국가와 OECD국가를 구분하여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3) 비OECD국가와 OECD국가별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표 II-2.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비OECD국가, 1990년-2017년)

	FE(고정효과)		RE(확률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ogged 총 인구($t-1$)	-0.597***	0.024	-0.573***	0.022
logged 총 자본($t-1$)	0.335***	0.007	0.318***	0.007
logged GDP 대비 정부소비지출($t-1$)	-0.041***	0.012	-0.037***	0.012
무역개방성($t-1$)	0.000***	0.000	0.000***	0.000
평균교육년수($t-1$)	0.110***	0.004	0.115***	0.004
상수	5.342***	0.064	5.423***	0.099
표본	2,878		2,878	
대상국가	120		120	
hausman test	0.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II-2〉는 비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개발(평균교육년수)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이다. 1990년부터 2017년간 120 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 결과 앞선 모형과 마찬가지로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 세계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같이 평균교육년수가 높아 지면 국가의 경제성장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표 II-3. 인적자원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OECD국가, 1990년-2017년)

	FE(고정효과)		RE(확률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ogged 총 인구($t-1$)	-0.375***	0.039	-0.375***	0.033
logged 총 자본($t-1$)	0.451***	0.010	0.416***	0.010
logged GDP 대비 정부소비지출($t-1$)	-0.172***	0.029	-0.179***	0.031
무역개방성($t-1$)	0.000***	0.000	0.000***	0.000
평균교육년수($t-1$)	0.063***	0.003	0.069***	0.003
상수	5.533***	0.129	5.912***	0.156
표본	987		987	
대상국가	36		36	
hausman test	0.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II-3〉은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개발(평균교육년수)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결과이다. 역시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OECD국가의 경우도 평균교육년수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가 교육체계가 국가혁신(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종합적으로 국가별 패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교육수준에 대한 양적 확대는 경제성장으로 대리되는 국가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독립변인이다.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의 지적과 같이 한국은 이미 높은 평균교육년수를 보이고 있어 교육의 양적수준은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간 높은 수준의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양적인 성장으로 표현되는 경제성장 이외에 질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의 혁신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Acemoglu & Autor, 2010; Aghion & Howitt, 1997; Hanushek & Woessmann, 2011; Lucas, 1988; Romer, 1990). 또한 최근 저성장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보다 인적자원을 통한 새로운 혁신과 국가의 성장 동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높은 평균교육년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제의 변화와 청소년기의 다양한 역량개발의 강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청소년기의 어떠한 교육방향이 국가의 혁신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표 II-4〉에서는 개발된 국가 52개를 대상으로 교육체제가 국가혁신(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교육체제는 평균교육년수, IMD 보고서에서 조사된 국가별 교육체제의 경쟁력, 인지역량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PISA 수학점수와 PISA 과학점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체제의 경쟁력, PISA 수학점수, PISA 과학점수, 평균교육년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해 이들의 증가가 바로 국가혁신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교육체계가 국가혁신(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1995년-2017년)

	FE(고정효과)		RE(확률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ogged GDP 대비 R&D 투자($t-1$)	-0.007	0.023	-0.007	0.009
교육체계의 경쟁력($t-1$)	0.007	0.005	0.002	0.004
PISA 수학점수($t-1$)	-0.000	0.000	-0.000	0.000
PISA 과학점수($t-1$)	-0.000	0.000	-0.000	0.000
평균교육년수($t-1$)	0.008	0.006	0.005	0.003
상수	1.144***	0.170	1.072***	0.076
표본	254		254	
대상국가	52		52	
hausman test	0.319			

* $p < .05$ ** $p < .01$ *** $p < .001$

5) 국가 청소년정책수준이 국가혁신(총요소생산성) 미치는 효과

〈표 II-5〉에서는 단순한 평균교육년수와 인지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증진하는 청소년기의 청소년정책수준이 국가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의 청소년정책수준은 Commonwealth Youth Development Index(YDI)의 청소년개발지수를 활용하였다.

표 II-5. 청소년정책 수준을 포함한 교육체계가 국가혁신(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2010년, 2016년)

	FE(고정효과)		RE(확률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ogged GDP 대비 R&D 투자($t-1$)	0.032	0.031	-0.015	0.010
교육체계의 경쟁력($t-1$)	0.006	0.010	-0.001	0.005
PISA 수학점수($t-1$)	0.003**	0.001	0.001**	0.000
PISA 과학점수($t-1$)	-0.002*	0.001	-0.001**	0.001
평균교육년수($t-1$)	0.006	0.018	0.006	0.004
청소년개발지수	0.532*	0.322	0.112	0.097
상수	0.159	0.344	0.923***	0.101
표본	59		59	
대상국가	52		52	
hausman test	0.034			

* $p < .05$ ** $p < .01$ *** $p < .001$

국가 청소년정책수준이 국가혁신(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모형은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가 보다 적절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앞선 <표 II-4>와 달리 국가의 청소년개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국가의 혁신역량(총요소생산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국가의 청소년정책수준이 포함될 경우 인지역량의 대표적 변수인 PISA 수학점수의 향상도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Commonwealth Youth Development Index(YDI) 조사에 따른 적은 표본과 유의수준 10%의 결과라는 한계도 있지만, 최소한 청소년활동 확대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확대는 그 국가의 질적 성장인 혁신역량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이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높은 평균교육년수와 청소년의 높은 인지역량을 보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이다.

○ — 제3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 청소년활동과 신체적 성장
- 2. 청소년활동과 심리적 안정
- 3. 청소년활동과 인지적 발달
- 4.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발달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은 이론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발달 및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 발달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김경원, 송우엽, 1998; 이성태, 2007).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청소년활동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을 확인하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예측 및 점검하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과 신체적 성장

먼저 청소년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연관이 있으며, 걷기 위주의 가벼운 신체활동도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칙적(주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하게 낮고, 리보플라빈(riboflavin)과 칼슘(Ca) 등의 영양소가 유의하게 양호하였다(조강욱, 김연수, 2010). 걷기운동은 체지방 감량, 골근력 증진,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orris & Hardman, 1997), 자원봉사자와 함께 걸어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WS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의 신체변화를 2년 동안 조사한 종단 연구에서는 걸어서 등하교한 학생의 체지방이 감소하고 BMI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Heelan, Abbey, Donnelly, Mayo, & Welk, 2009). 반면, 신

체활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은 불균형한 식습관이 있는 등 부정적인 보건행동을 보였다(Pate, Heath, Dowda, & Trost, 1996).

신체활동에 참여한 비만청소년은 활동 강도와 관계없이 유의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Gutin et al., 2002). 소아비만의 치료방법을 조사한 120건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저항도 장기운동이 체지방 감소, 제지방체중(fat-free mass) 감소, 체질량 감소, BMI, 감소, 최대산소섭취량(VO2max)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LeMURA & Maziekas, 2002). 활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만율이 낮으며(Berkey et al., 2000; Ekelund et al., 2002), 비만인 청소년도 주 3회, 40분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인슐린 수준과 트리글리세리드 수준 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Ferguson et al., 1999).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이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최소 30분 이상, 주 3회 유산소 신체활동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Strong et al., 2005), 12~32주 기간 동안 실시한 유산소 체육(에어로빅)활동은 고혈압이 있는 청소년의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Ewart, Young & Hagberg, 1998). 반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은 습관적인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inhas-Hamiel et al., 1999). 이처럼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국내외 지자체 및 지방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한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My Pyramid for Kids(뉴욕주)’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흡연과 같은 비행행동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Schmidt, 2003; 김희화, 2004). 고등학교 3년 동안 신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흡연율이 44% 감소하였고(Audrain-McGovern, Rodriguez, & Moss, 2003), 3개 이상의 신체활동을 참여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게 될 기회는 3%에 불과하지만 2개 이하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흡연 기회는 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Abrams, Skolnik, & Diamond, 1999). 여가시간에 신체활동을

하는 여자 중학생은 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aron et al., 1995). 미국의 경우, 낮은 신체활동이 흡연 및 대마초 투약(marijuana use)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te, Heath, Dowda, & Trost, 1996).

신체활동은 TV 시청, 컴퓨터 중독 예방 등과 같은 행동교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청소년활동 시간이 적은 청소년일수록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였다(Eisenmann, Bartee, & Wang, 2002; Pate, Heath, Dowda, & Trost, 1996). 반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고 참여시간과 참여기간이 길수록 인터넷게임 중독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호, 장재철, 2010). 이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과 사이버일탈행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등이 제안되고 있다(문익수, 김기형, 박중길, 2008; 고태규, 2008; 이호열, 김준희, 2008).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 분비로 인해 성기 발달, 월경 등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신체변화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인 자아개념(또는 자기개념, self-concept)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송인섭, 1998) 2차 성징의 발현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 학업성취, 정신병리, 충동억제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Petersen & Crockett, 1985). 실제로 본인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존감이 높고(박지현, 최태산, 2008), 학교적응을 잘하는 등(송선미, 2013; 강양희, 박성희, 2014) 신체에 대한 인식이 심리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제2절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에 청소년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청소년활동과 심리적 안정

청소년기의 활동은 전반적인 자아개념, 신체적 자기개념, 정서발달 등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은 부정적인 심리를 상쇄하고,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를 고취시키므로(Hinkle, 1992; Glenister, 1996) 신체적 활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포츠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bic, Morgan, Plotnikoff, Lonsdale, White, & Lubans, 2014; Dunton, Schneider, Graham, & Cooper, 2006; 현정혁, 홍준희, 이현영, 2010; 최유라, 오성민, 최희순, 2014; 김경원, 2003; 김성욱, 이서기, 황진, 2008; 표내숙, 정상훈, 박철용, 2009). 구체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스스로 판단하는 외모나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신체적 자기개념을 높게 지각하였다(현정혁, 홍준희, 이현영, 2010).

청소년기는 신체변화와 함께 정서적인 성장이 이뤄진다. 청소년활동은 신체변화와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 외에도 스트레스 해소나 자기효능감 상승과 같은 정서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특별활동 참여는 자기효능감(허철수, 강옥련, 2010; 염상석, 2012; 김미현, 이현우, 정영근, 2011), 자아존중감(Marsh & Kleitman, 2002; 김순규, 최혜정, 박신애, 2012; 도종수, 성준모, 2013), 스트레스 감소(염상석, 2012)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 수련활동은 자기효능감 상승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며 시간관리, 변화대처와 같은 인지적 능력과 리더십 향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희, 권일남, 2008).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2015~2017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78.9%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체활동을 참여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Oh, Lee, Kwon, & Park, 2019). 초등

학생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이완훈련(relaxation training), 사회 문제 해결(social problem solving), 사회적응 및 감정통제(social adjustment and emotional self-control) 프로그램 모두에서 참여 아동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Kraag, Zeegers, Kok, Hosman, & Abu-Saad, 2006). 사회·정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요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결과(Frank, Bose, & Schrobenauser-Clonan, 2014)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앓고 있는 청소년이 명상과 같은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6주(주 1회, 3시간) 체험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결과(Gordon, Staples, Blyta, & Bytyqi, 2004)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은 활동 종류나 내용과 관계없이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은 스트레스 감소 외에 다양한 심리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등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 이성은(2009)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ing)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허성호와 정태연(2010)은 자원봉사가 진로성숙도나 직업성숙도, 특히 자아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문성호와 문호영(2009)의 연구와 허정철(2005)의 연구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자신감이 있으며 난이도가 있는 과제를 선호하는 등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냈다(허철수, 강옥련, 2010).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울 감소에 효과적인 활동은 크게 정서활동과 신체활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서활동 중 하나인 마음챙

김(mindfulness)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수행한 아동과 청소년은 수행 전에 비해 우울과 불안 정도가 감소했고(Bennett & Dorjee, 2016), 정신건강 프로그램(프로그램명 Strong Minds)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고 불안증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Burckhardt, Manicavasagar, Batterham, & Hadzi-Pavlovic, 2016). 아일랜드의 연구진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 및 정서 학습 프로그램으로 'MindOut'을 설계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우울,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와 같은 감정억제보다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등 사회 및 심리적 기술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Dowling, Simpkin, & Barry, 2019).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유지애, 김옥진, 2018)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유발하는 만큼(김월경, 2014; 김교현, 2004) 청소년의 우울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원구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음건강평가가 있다. 노원구는 청소년의 우울정도, 자살시도 등을 기준으로 위험군 청소년을 선별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후 노원구의 자살자 수가 감소하고, 자살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노원구 노원정신보건센터, 2012).

신체활동도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Daley, Copeland, Wright, Roalfe, & Wales, 2006; Norris, Carroll, & Cochrane, 1992; Hilyer et al., 1982; MacMahon, & Gross, 1988). 10주 동안 주 2회(25~30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조사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불안과 우울 증상도 상당히 약화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Norris, Carroll, & Cochrane, 1992). Hilyer와 동료들(1982)은 비행청소년의 갱생을 위한 직업훈련학교(industrial school)의 학생을 대상으로 비행행동 및 심리치료를 위한 신체 훈련

프로그램을 1회 1.5시간씩 주 3회, 20주 동안 실시하고 신체적 변화와 함께 우울증(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등을 검사했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청소년의 우울증이 호전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Hilyer et al., 1982).

청소년활동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행복감(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 1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5년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으며(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2018),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경험이 개인과 가족, 학교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활동 후 청소년이 보고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가족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청소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규, 최혜정, 박신애, 2012). 즉, 청소년활동 경험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상승에 도움을 주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청소년활동과 인지적 발달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발달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각 차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Susman et al., 1985). 예를 들어, 긍정적인 자기평가(자기효능감)와 신체적 자기개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며(박준희, 2005; 조영제, 2005),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적응이나 또래관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경옥, 2017; 장인실, 장석진, 2012).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교우관계, 가족관계, 학교적응, 성적, 학업성취도, 진로 및 직업 성숙도와 같은 인지적 발달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적이 높거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2’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활동과 학교생활 학습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청소년은 건강·보건, 과학·정보, 봉사, 직업체험 등과 같은 9유형의 청소년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졌으며, 학습습관이나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순, 김태균, 2014). 조직 활동에 주 20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의 성취도 점수(the achievement test scores)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비참여학생에 비해 표준편차가 약 1/4수준으로 나타났다(Cooper, Valentine, Nye, & Lindsay, 1999). 이 결과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비참여학생의 점수는 매우 낮거나 높은 등 다양하게 분포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마음챙김(mindfulness)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나은 성적을 얻었으며(Bennett, & Dorjee, 2016), 청소년수련활동은 자아존중감, 직업 성숙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윤나, 박옥식, 2009). 특별활동 참여는 고등학생의 자존감, GPA, 부모의 참여 및 포부(aspirations), 대학진학, 직업포

부와 같은 사회·학문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Marsh & Kleitman, 2002),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은숙, 이화숙, 2015).

청소년의 진로 결정과 학교생활 적응에도 청소년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재철, 황매향과 김아영(201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긍정적 자아관 형성과 내적 직업가치관 추구를 통해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관우와 남진열(2011)의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하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과 학교 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을 9개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성격에 맞는 체험활동 제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신체적·심리적 발달과 함께 진로탐색이나 리더십 발달 등에 복합적으로 성장경험을 제공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효과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 중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 개발과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며(김정주, 김용대, 성기원, 2003), 남자 중학생에 한하여 동아리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생의 학년이 낮고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 경험이 많았고, 동아리경험이 있는 학생은 학교생활 적응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춘식, 2005). 또한 동아리활동경험은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성취감과 또래와의 활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배워나간다는 점에서 사회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이는 체험활동이 학교생활 적응이나 원만한 교우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이기도 하며, 청소년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데에 체험활동이 유의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4.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발달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도 다른 발달과 연결되어 있으므로(Bryant, 2018; Staiano, & Calvert, 2011), 청소년활동은 사회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 청소년활동은 학문적, 교육적, 사회적, 시민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Mahoney, Eccles, & Larson, 2004; Mahoney, Lord, & Carryl, 2005; Mahoney, Harris, & Eccles, 2006; Dubois, Holloway, Valentine, & Cooper, 2002; Eccles, Barber, Stone, & Hunt, 2003; Eccles & Templeton, 2002;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2; Riggs & Greenberg, 2004; Vandell, Pierce, & Dadisman, 2005). 실제로 청소년의 학교 밖 활동은 소속 기회,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 가족, 학교, 지역사회 경험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ccles & Templeton, 2002; Mahoney, Eccles, & Larson, 2004;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Medicine of Institute, 2002). 청소년활동을 통한 신체적·심리적·인지적 발달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은 사회참여 등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생성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1) 사회적 가치관 발달

사회적 가치관이란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의 사회에 대한 관점이나 의식성향을 총칭하는 의미를 지닌다(백형진, 1998). 청소년이 갖는 사회적 가치관은 연구마다 그 정의가 다르다. 김태경, 채진미와 오경화(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갖는 사회적 가치관의 하위요인을 공동체의식, 물질주의 학교생활 만족, 소외의식

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였다. McMillan과 Chavis(198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일부인 공동체의식을 ‘구성원의 소속감, 구성원이 인지하는 상호간 중요성, 구성원의 요구가 구성원 상호 충족될 수 있다는 공유된 신뢰’로 정의하였다. 백형진(1998)은 이와 유사하게 공동체 가치관을 애국심, 협동심, 책임감으로 구분하고, 사회규점준수관을 처벌, 질서유지, 사회적 함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중학생의 사회적 가치관을 시민의식,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갈등의식, 현실사회인식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김동철(1996)은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을 전통예절, 학교생활, 일의 측면, 행복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소외의식, 학교생활만족, 물질주의 공동체의식, 전통예절에 관한 내용 등이 주요하게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 소속 기회,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 효능과 문제에 대한 지원(support for efficacy and mattering), 기술구축 기회, 가족, 학교, 지역사회 경험을 통합하는 등 사회적 가치관 형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Eccles & Templeton, 2002; Mahoney, Lord, & Carryl, 2005; Mahoney, Eccles, & Larson, 2004;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Medicine of Institute, 20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다양한 자아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은 활동에 참여한 영역의 수와 시간이 많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또래와의 의사소통 능력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앓’과 같은 지역사회 인식,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과 같은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관계 발달도 높게 나타났다(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앞서 언급했던 진로성숙도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이나 이타성과 같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성 함양과도 긍정적인 연관이 있었다(문성호,

문호영, 2009). Gomez와 Gunderson(2003)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이후의 교우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인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교우관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사회적 능력이나 개인적 역량에서 우위에 있으며, 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주도적으로 맺음으로써 우수한 사회화를 성취한다는 특징이 있었다(Sundeen & Raskoff, 2000). 이와 유사한 맥락인 Cohn(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가 공감과 같은 정신적 활동을 이끌어내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자원의 기반을 다지는 사회적 지능(social brain)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봉사 이외의 활동에서도 사회적인 발달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 중학생 스포츠 클럽에 참여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감소, 친구관계 형성 강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구원, 2020), 청소년의 수련활동경험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신의 통제능력 등을 향상시켜 사회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는 Albanesi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탈리아의 청소년들을 표본으로 한 분석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활동이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활동의 경험여부에 따른 사회적 발달가치를 ① 주의산만, ② 공격성, ③ 사회적 위축, ④ 우울의 사회정서발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는 인성·사회성 등 발달적 가치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은모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습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게 하며, 사회성이나 인성 발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

지만 다양한 청소년활동은 이들의 교우관계 등 대인관계와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화를 이끄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사회적 가치 발달

적지만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내용은 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김영옥과 송혜린, 이현미(2007)는 협동심, 정직, 책임감, 존경, 관용, 인내심, 리더십, 정의감, 용기, 공정, 인정, 절제, 성실, 충실, 협상, 유머 등 32개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제시하였으며, Tillman과 Hsu(2000)는 협동, 정직, 책임, 존중, 관용, 검소, 평화, 사랑, 겸손, 조화, 행복 등 11개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협동, 정직, 책임, 존중, 관용이 공통적인 사회적 가치로 나타났다.

각 연구자가 정의한 사회적 가치로 청소년활동과 연관되는 해당 가치의 특징이나 성과에 대해 조사한 연구도 있다. 강정아와 노영희(2018)는 청소년기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성과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1명의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기의 문화프로그램이 도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사회적 성과 구성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²⁾과 국외의 사회적 성과 구성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³⁾을 통해 사회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개념화하고 성과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기의 문화프로그램 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및 커뮤니티 생성과 강화 등 사회적자본의 증가에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환(2017)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적 대안임을

2) 국내 연구자들의 사회적 성과 구성 요인

연구자	구성 요인
김경욱, 양현미, 이영범 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환경의 개선을 통한 정주성 증대, 정주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기여,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 형성을 통한 도시 전체 이미지 형성,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삶과 생활태도 형성에 노력 - 행동의 바람직한 방향유도, 쾌적한 삶의 환경 제공, 인구유입 및 교육향상, 건강향상, 범죄 감소, 반사회방향 유도적 행동 감소, 지속적인 가치에 대한 커뮤니티 네트워크형성, 사회적·지역적 관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증가, 인간적 권리나 사회정의에 대한 행동강화, 레저와 여가선택의 다양화,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증가, 개인과 그룹의 사회적 유대감 강화, 지역정체성의 개발, 지역예술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한 이해 확산
백령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자아개념, 자기규제, 성취감, 음악가로서의 자존감), 사회성(타인과의 상호작용, 존중과 협업, 책임감과 협업) - 청소년의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 획득, 음악을 통한 지역환경 및 이미지 개선
양혜원, 이성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여기만족도, 삶의 만족도, 자존감, 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인식), 자살충동, 대인적 의사소통 능력개선, 신뢰·사회적 자본, 창의성,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임영식, 정경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자존감, 즐거움 - 가족 응집력과 우정 같은 소통 -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 일상화, 여가문화향유

3) 국외 연구자들의 사회적 성과 구성 요인

연구자	구성 요인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결속력 강화, 공동체 브랜드 개발 및 타공동체와의 차별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유성, 과거와의 대화를 통한 공동체 기억보존 - 공격 대화 강화, 창의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 육성, 건강한 공동체 행위 개발, 공동체의 동기화 및 활동을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 공동체의 능력과 리더십 조력 - 삶의 질을 강화시키는 공동체의 형성과 문화적 결속 강화, 문화·예술에 바탕을 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외부활동 건인,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술소비 기회제공, 시민유대와 접근성 강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양한 페스티벌과 다문화 간 교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청소년을 포용하는 효과적인 복지수단 제공, 일반적 학문영역의 학습역량제고, 청소년의 회복력과 자기존중감 형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청소년을 위한 공동체 창출, 성인으로서의 성공적 전환에 대한 기여 및 직업능력 개발, 청소년들의 리더십 개발 및 공동체 내에서의 긍정적 변화
Health Developme nt Agency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개인, 단체 지원, 건강(보건)교육, 즐거움, 삶의 질 - 이웃 안전진진, 범죄자의 재활(사회복귀), 세대 간의 접촉, 우정의 증대, 다문화의 접촉 증대 - 조직능력, 역량구축, 양도할 수 있는 조직능력, 삶의 제어(통제), 재생(갱생), 주민과 공공기관 간 협력, 지역민주주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대, 미래에 대한 참여 - 지역정체성, 소속감 개발, 긍정적 자존감, 소외그룹의 이미지, 지역사회 환경 개발활동에의 참여,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인식변화, 거주지에 대한 긍정적

제시하였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사회적 가치는 청소년기의 자기주도성, 인문적 시민교육, 사회적 역할, 기초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김지영(2012)은 청소년기의 시사주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아동 및 청소년기 48명을 중심으로 검사 도구를 통한 사전사후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서 협동, 정직, 책임, 존중, 관용을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기의 시사주제 활동이 협동, 정직, 책임, 존중 및 관용의 인식향상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외(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체험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문화체험활동 중 애니메이션 시청의 장르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고, 여기서 측정한 사회적 가치는 크게 공동체의식, 물질주의, 학교생활만족, 소외의식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 청소년기의 문화

연구자	구성 요인
Matarasso & Chell (1998)	인식,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를 도움 - 자신감, 교육과정, 새로운 기술 습득 - 새로운 친구 사귀, 타문화에 대한 습득,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증가 - 새로운 프로젝트에의 참여관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대한 긍정성,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를 돕고 싶은 의지 -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 사고의 변화, 창의성 - 더 건강해졌다는 생각, 행복감
McCarthy et al. (2004)	- 학업성취도 향상 -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생활기술의 향상, 학교생활의 개선, 위험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사이의 친사회적 태도와 행동의 변화 -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특히 노인들의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의 증상의 개선, 특정 질환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수술, 출산,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불안 감소 -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 지역사회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적 자본 형성에의 기여
Tony et al. (2001)	- 새로운 친구관계, 행복감, 창의성과 자기확신, 소외감소, 예술활동의 참여 확대 - 타문화 이해, 지역성에 대한 인식 변화, 조직능력 향상 - 학업성취도 향상

출처: 임영식, 남기성, 박지영 외(2014). 2013 토요문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 <표 II-11> 연구자별 사회적 효과의 구성요인. pp.39-41의 내용을 재인용함.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 특히 공동체의식과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우(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그는 교육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⁴⁾. 교육의 교환가치는 양적 관계로서 교육내용의 특성보다는 양화되어 나타나는 자격증의 취득, 사회적 명성, 계층상승 등의 부수적 효과에 더 관심을 갖는 가치이며 이러한 교육은 학생의 만족과는 상관이 없는 반면, 사용가치로서의 교육은 학생의 삶에 유용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게끔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이강우, 2005).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학문성, 사회재건, 학습과정, 자아실현, 존재가치 등으로 정의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근호(2018)의 연구 또한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이 사회적 가치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 중학생 885명, 중국 중학생 9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정한 사회적 가치로는 예의범절 준수, 사회적 규준 준수, 타인 배려 준수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한 경우 사회적 규준과 타인배려 준수의 가치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

4) 이강우(2005)의 연구에서 적용한 교육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교육의 교환가치	교육의 사용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삶을 위한 교육 - 교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① 교육의 목적이 직업의 선택과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데 있음 ② 교육의 목적이 명예의 획득, 타자로부터의 인정 및 승진,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있음 ③ 교육의 목적이 보다 좋은 조건의 배우자 선택에 있음 -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학생이 고통을 받음 -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가치, 도덕 등이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게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 - 학생 개개인의 주관적 의미로서 개성과 흥미, 자발성을 존중하며, 교육 내용은 학생의 관심과 요구, 발달정도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음 -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학생들은 즐거움을 얻음 - 수업목표의 설정, 교과목의 선택, 평가 등 제반 교육 활동이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임

출처: 이강우(2005). 학교체육 커리큘럼 구성과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 p.918.

가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특히 스트레스 조절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체육활동이 건전한 사회 가치관과 정신건강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영득(2015)의 연구에서는 체육활동 중에서도 태권도 수련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근호(2018)의 연구와 동일한 사회적 가치 항목을 적용하였으며, 태권도 수련경험이 없는 학생과 있는 학생을 거의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여 중·고등학생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태권도 수련경험이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및 자아개념, 스트레스조절능력 등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사회적 가치 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wett(1989)는 학교체육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학문성의 습득, 사회재건, 학습과정, 자아실현, 존재가치의 인식 등 5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청소년 활동도 실시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8.9.). 현재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책 활동(예를 들어, 국제지구 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제관련 교육을 받는 경제활동(경제금융교실, 경제창업교실 등),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교육받고 참여하는 인권활동(인권동아리, 청소년권리개선봉사단, 환경인권축제 등) 등의 사회적 활동이 존재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해왔다. ‘제2차 청소년육성5년계획(1998~2002)’ 이후 청소년 회의, ‘청소년창안제’,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인권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참여권을 위한 권리신장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김영지, 이용교, 안재희, 2001),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규정한 12가지 사회적 가치 중 첫 번째 ‘인권’, 열한 번째 ‘윤리&책임’, 열두 번째 ‘의사결정·참여’ 등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신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모상현과 함세정(2019)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규정한 열두 번째 사회적 가치인 '의사결정·참여'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연구주제를 찾고 연구 방법을 모색하며,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 종료 후 참여청소년은 열두 번째 가치인 '의사결정·참여'와 함께 첫 번째 가치인 '인권' 역량도 증진되는 결과를 보였다.

윤철경과 박선영, 송민경, 김명성(2010)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관계부처 합동, 2019.2.) 중 '공동체 복원'에 해당하는 시티즌십 강화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실천능력인 글로벌 시티즌십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성화를 분석하였는데, 당시 시티즌십 함양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단 9개뿐이었다. 저조한 운영 수와 달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시티즌십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 시티즌십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청소년활동은 해당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용환(2017)은 청소년의 '삶의 질'이 사회적 활동으로 개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책참여', '경제참여', '사회참여', '교육현장참여'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참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여섯 종류의 사회적 참여활동은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삶의 질의 하위요인 중 특별히 사회관계와 교육, 공공참여와 상호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용환, 2017). 청소년운영위원회, 집회활동이나 학생회 자치활동, 학교 운영과정 등과 같은 정책 및 교육현장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과가 있으므로 단순 체험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넘어 사회적인 참여활동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얻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스포츠 특별활동, 집회활동 등 특정 활동에 따른 효과를 확인했으며,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는 일치되지 않거나 그 개념이 모호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영역인 ‘사회적 가치’ 역시 정형화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개념들을 점검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 제4장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 1. 청소년활동의 개념
- 2. 청소년활동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접근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한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시설에서 추진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사업단위로 발전되어온 특성이 있어 그 의미가 모호하다. 이에 본 장에서 청소년활동이 무엇인지를 보다 조작적으로 정의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의 개념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과 ‘활동’의 합성어로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과 작용으로 정의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법, 정책, 실무 등 적용기관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정의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다. 이에 각 분야에서 정의하는 청소년활동을 확인하고 세부적 범주화의 근거들을 탐색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의 법적 개념

한국의 청소년활동은 1999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육성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현재 청소년활동의 법적 개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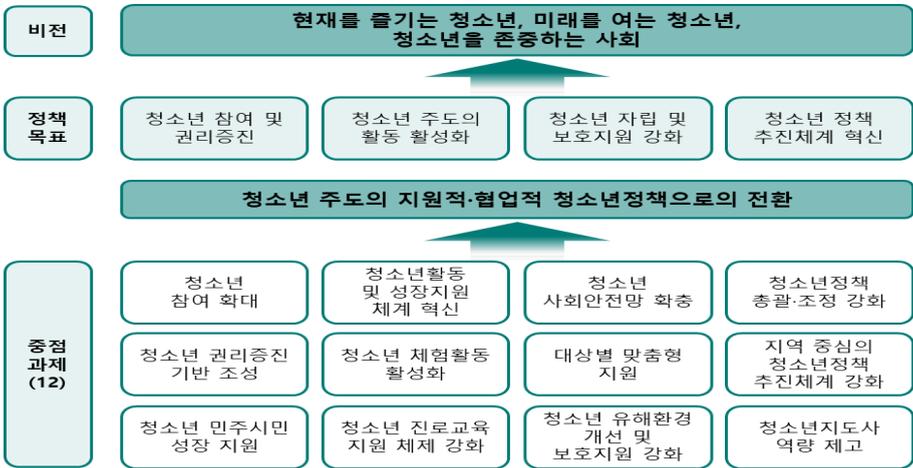
활동진흥법」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에 따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설과 활동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며,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으로 규정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여기서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수련활동은 숙박형과 비숙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며,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2)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개념

앞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의 법적 개념 이외에 국가정책으로서 추진되는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수립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4대 영역의 12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IV-1]).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 ‘청소년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p.19.

그림 IV-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현재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중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것은 ① 청소년 체험활동, ② 청소년 국제교류, ③ 청소년 참여활동, ④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⑤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운영, ⑥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지원이다⁵⁾.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청소년프로그램공모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며⁶⁾, ‘청소년 국제교류’는 ① 국가 간 청소년교류: 상대국 청소년 기관 방문, 문화체험, 홈스테이, 한국 문화공연, 청소년교류 등(만 16~24세), ②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자원봉사(노력 봉사 및 재능기부) 문화체험 등(만 15~20세), ③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국제회의에서 발언·발제 초청 인사 특강, 주제별 토론, 각국 청소년 대표들과 교류 등(만 16~24세)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⁷⁾.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 평가,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토론회 등 행사를 직접 기획 및 진행하는 활동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한 참여활동 지원이 대표적이다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하며,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9% 미만),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⁹⁾.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통해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¹⁰⁾,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지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 수련활동 신

5) 출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1.do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6) 출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1.do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7) 출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2.do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8) 출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3.do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9) 출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4.do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10) 출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5.do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교·인증 운영을 통한 안전한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한다¹¹⁾.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대상으로 한 종합서비스로 청소년의 활동 본질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지원’은 인프라 지원사업이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할 청소년활동 개념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3) 청소년활동의 실무적 개념

다음으로는 청소년활동의 현장을 담당하는 실무적 개념이다¹²⁾. 먼저, 2005년 3월31일 오픈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은 일선 청소년 현장에서 추진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보면 현장 청소년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은 ‘자유학기제 활동’, ‘청소년자원봉사(DOVOL)’,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정책참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성격으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가 있다¹³⁾.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은 공공기관 및 수련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이며¹⁴⁾, ‘청소년자원봉사(DOVOL)’은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이다¹⁵⁾.

11) 출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6.do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12) 청소년활동의 실무적 개념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차원에서 실행하는 자유학기제 활동 등이 포함되는 점에서 법적, 정책적 개념과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2020년에는 많은 지역의 청소년시설이 활동 내용을 비대면으로 수정하고 기존에 계획한 활동 범주와 별개로 코로나19 대응 생활수칙과 감염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렇게 시대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13)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kywa.or.kr/about/about09_01.jsp 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14)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lbrtysemstr/lbrtySemstrIntroForm.yt?curMenuSn=undefined>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국제교류활동’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 세계시민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¹⁶⁾, ‘청소년정책참여’는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청소년 친화정책을 구현하는 활동으로¹⁷⁾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등이 이 활동에 해당한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¹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은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과 결합한 ‘청소년어울림마당’¹⁹⁾, 또래 청소년들이 함께 마주보며 날개를 펴 꿈을 향해 날 수 있게 응원하고,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다²⁰⁾. 대표적인 현장의 문화예술지원사업

-
- 15)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srvcActIntroForm.yt?curMenuSn=297>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 16)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intriExchgActIntroForm.yt?curMenuSn=369>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 17)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yngbgsSpecIltg.yt?curMenuSn=373>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 18)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afterSchulAcademyIntroForm.yt?curMenuSn=371> 에서 2020년 3월 96일 인출.
- 19)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togetherYardIntroForm.yt?curMenuSn=377>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 20)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munhwalIntro.yt?curMenuSn=1294>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인 ‘상상(相翔)학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재능 및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만14세~24세의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²¹⁾.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9세~13세(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4가지 활동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²²⁾.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로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²³⁾.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²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확산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개학이

-
- 21)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intrlSccesRwardIntroForm.yt?curMenuSn=342>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 22)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selfChngRwardIntroForm.yt?curMenuSn=362>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 23)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trngActCrtfcIntroForm.yt?curMenuSn=348>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 24)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trngActSttemntIntroForm.yt?curMenuSn=1280>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연기되고 집단생활이 차단되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은 문을 닫았고 청소년들의 외출 또한 줄어들어 따라 청소년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기관 및 단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콘텐츠로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한 지역별 청소년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 의회와 같은 자치활동, 체육/문화/여가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공교육 공백에 따른 학습결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5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활동 범주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IV-1>과 같다. 활동 범주와는 별개로 모든 청소년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 생활수칙과 감염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1. 지역별 청소년시설의 주요 비대면 청소년활동

시·도	활동범주	활동내용
서울	자치활동	청소년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치단, 유권자교육퀴즈 등 약 20여 개
	체육/문화/여가	만들기 키트발송, 유튜브 요리실습, 일상생활 사진 공유, 온라인 특성화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 등), 홈 트레이닝 및 스트레칭 영상 제공, 보드게임/디자인체험 대여, 지도사와 함께하는 온라인게임 등 약 50여 개
	동아리활동	연간 활동계획 회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구성원 대상 코로나19 안전교육 실시, 신입회원 화상면접 등 약 20여 개
	상담지원	학교폭력/생활안전 예방교육, 개인상담 요청 시 전화/온라인 1:1 상담, 인터넷 중독 온라인 상담 및 예방교육, 부모교육 콘텐츠 제공 등 30여 개
	학습지원	수학 이해향상 자료 제공, 독서록 첨삭, 영어동화 번역 봉사, 환경문제 관련 온라인교육, 온라인 방과후 아카데미, 팟캐스트 형식의 과학프로그램, 직업체험 라이브방송, 검정고시 온라인강의 등 약 40여 개
부산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온라인 회의 등 약 10여 개
	체육/문화/여가	온라인게임, 공예 키트발송 및 체험수업, 가족뉴스제작, 다양한 소통 콘텐츠 제작, 웹툰 그리기, 봄꽃 만들기, 요리대회 등 20여 개
	동아리활동	마스크제작 자원봉사활동, 손소독제 제작, 어르신 돌보기 및 마스크 대리구매, 영화 감상문 제출 등 약 20여 개

시·도	활동범주	활동내용
	상담지원	비대면 면담, 아동 생활 및 안전점검, 긴급돌봄, 가정방문 및 상담 등 10여 개
	학습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선거 및 투표 교육, 진로교육 및 직업소개 등 20여 개
대구	체육/문화/여가	장애인 개선 및 차별 철폐 온라인 캠페인, 농구 유튜브 강의, 집콕챌린지, 공예 유튜브 강의 영상 등 5개
인천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등 1개
	체육/문화/여가	댄스배틀, 가족놀이/사진 대회, 집콕 노하우 공유, 1인 콘테스트, 콩나물 키트 제공 등 10여 개
	동아리활동	손소독제 제작 및 기부, 독거 어르신 카네이션 기부, 댄스연습 및 창작안무 공유 등 5개
광주	상담지원	심리상담 등 5개
	학습지원	제2외국어로 동화책 번역, 과학놀이키트 제공 등 3개
	체육/문화/여가	요리 콘테스트, 지구의 날 기념 씨앗심기 프로젝트, 마스크 만들기, 인문학 책 추천 등 10여 개
대전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5개
	체육/문화/여가	비누만들기 키트 제공, 케이크만들기 영상제작, 사진전, 요리대회 등 20여 개
	동아리활동	동아리 온라인 발대식 등 1개
	상담지원	학습 및 생활 지원 멘토링, 전화상담 등 약 5개
	학습지원	안전교육 및 학습지원 물품 발송, 방과후아카데미, 독서골든벨 등 10여 개
울산	자치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4개
	체육/문화/여가	체험키트 및 간식거리 제공, 손소독제 지원, 선거 참여토록 캠페인 등 10여 개
세종	체육/문화/여가	카네이션 만들기, 씨앗심기 키트제공,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 위생교육 등 5개
경기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치기구 화상회의, 청소년문화공간운영단, 청소년축제기획단 온라인 회의 등 10여 개
	체육/문화/여가	비누만들기, 희망트리만들기, 샌드위치만들기 유튜브 참여
	동아리활동	동아리연합회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지원사업 화상면접 등 5여 개
	학습지원	방과후아카데미 등 10여 개
강원	자치활동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3개
	체육/문화/여가	마스크만들기, 동영상문화강좌, 케이크베이킹, 만들기키트 배포, 보드게임 등 10여 개

시·도	활동범주	활동내용
	동아리활동	동아리 영상 프로그램 제작, 비대면자원봉사 등 5개
	상담지원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등 2개
	학습지원	방과후아카데미,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좌 등 3개
충북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원봉사 1개
	체육/문화/여가	간식만들기, 손소독제만들기 키트 제공, 영상콘텐츠 등 5개
	학습지원	홈쿨링 키트제공 등 2개
충남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원봉사단 회의 등 3개
	체육/문화/여가	그리기/DIY키트 제공, 공예키트, 온라인토크콘서트, 식물키우기 등 10여 개
	상담지원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진로교육 멘토링 등 2개
	학습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온라인수업, 온라인 전문직업교육(바리스타 등), 진로교육 등 10여 개
전북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건강캠페인 등 3개
	체육/문화/여가	요리/메이크업/근황토크, 활동꾸러미 비대면 전달, 마스크 만들기, 취미 찾기 프로그램 등 10여 개
	동아리활동	댄스동아리 정기회의 및 댄스커버곡 안무영상 제공, 제빵동아리 정기회의 및 레시피 공유, 피부동아리 온라인활동 등 3개
	학습지원	영어회화 재능나눔 봉사활동, 진로프로그램 비대면 활동 등 3개
전남	자치활동	청소년모의투표 등 1개
	체육/문화/여가	공기청정기만들기 키트제공, 콩나물/열대어키우기 등 3개
	동아리활동	세월호 참사 추모진행 등 1개
경북	상담지원	찾아가는 긴급돌봄 등 1개
	자치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실행위원회, 유권자교육 등 3개
	동아리활동	동아리연합회 화상회의 등 1개
경남	학습지원	온라인교육 원격수업, 온라인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자치활동	청소년모의투표이벤트 등 1개
	체육/문화/여가	요리만들기, 레시피 공유, 의료진응원메세지제작, 영상공모전 등 5개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2020). 내부조사 자료.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및 응원 메시지를 상호 공유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치활동으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의 정기회의 및 연간활동계획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유권자, 특히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지역이 다수 있었다. 체육/문화/여가생활과 관련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다수의 지역에서 요리, 게임, 만들기 키트 제공, 체육활동 영상제작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학습지원 역시 학교생활이 멈춘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결손을 메우기 위해 온라인수업, 멘토링, 재능기부를 통한 홈스쿨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서울은 기초지역구 단위로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이 온라인회의를 통해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여 가지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체육/문화/여가활동은 만들기 키트제공, 요리실습영상제작, 보드게임 대여, 온라인게임 등 50여 가지, 동아리활동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연간활동계획 회의, 신입회원 화상면접 등 약 20여 가지, 상담지원활동은 개인상담 요청에 한해 1:1 온라인/전화상담 등 약 30여 가지, 학습지원은 학습자료 제공, 독서록 첨삭, 영어동화번역, 온라인 방과후아카데미 등 약 40여 가지가 진행되었다.

부산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온라인 회의 등 약 10여 가지 자치활동, 온라인게임, 공예키트배포, 소통콘텐츠제작, 꽃 만들기, 요리대회 등 약 20여 가지 체육/문화/여가활동, 동아리차원의 마스크제작, 손 소독제 제작과 같은 봉사활동 20여 가지, 아동 생활점검, 긴급 돌봄, 가정방문 등 10여 가지 상담지원활동, 방과후아카데미, 진로교육 및 직업소개 등 학습 지원활동 20여 가지가 진행되었다.

대구는 코로나19가 전방위로 전파되어 2~3월 간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마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대면 일지라도 청소년활동 자체가 많은 제한이 있었다. 체육/문화/여가활동으로 장애인 인식 온라인캠페인, 농구 유튜브 강의, 공예 유튜브 강의 등 5가지 정도의 활동만이 진행되었다.

인천은 자치활동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간계획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체육/문화/여가활동으로 가족놀이, 사진대회, 1인 콘테스트, 댄스 배틀 등 10여 가지, 동아리차원에서는 손 소독제 제작 및 기부, 독거어르신 카네이션 기부, 댄스연습 및 창작안무 공유 등의 5가지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2외국어로 동화책 번역, 과학놀이키트 제공 등의 학습지원 활동이 있었다.

광주는 요리 콘테스트, 마스크 만들기, 인문학 책 추천 등 10여 가지 체육/문화/여가활동이 진행되었다.

대전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5가지 자치활동이 있었으며, 비누/케이크/요리 만들기 등의 콘텐츠 제작활동 등의 20여 가지 체육/문화/여가활동이 있었으며, 동아리활동은 동아리온라인발대식이 진행되었다. 방과후아카데미, 독서대회, 학습지원 물품발송 등 10여 가지 활동으로 청소년의 학습활동을 지원하였다.

울산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등 4가지의 자치활동, 체험키트 및 간식거리 제공, 손 소독제 지원 등 10여 가지의 체육/문화/여가활동이 진행되었다.

세종은 카네이션 만들기, 씨앗심기 키트 제공,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 등 5가지 체육/문화/여가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 문화 공간 운영단, 청소년축제기획단 등의 온라인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동아리활동으로는 동아리연합회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지원사업 화상면접 등 5가지 정도의 활동이 있었다. 방과후아카데미를 온라인형태로 운영하여 학습지원활동을 진행하였다.

강원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자치활동, 마스크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보드

게임 등 체육/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동아리활동영상 프로그램 제작, 동아리차원의 비대면자원봉사도 진행하였다. 방과후아카데미로 학습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청소년 긴급 돌봄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전반을 지도하였다.

충북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간식 만들기, 손 소독제 만들기 키트 제공하는 등의 활동, 그리고 홈스쿨링 키트를 제공하여 가정 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였다.

충남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원봉사단회의 등 3가지의 자치활동이 진행되었고, 방과후아카데미의 활동을 중심으로 긴급 돌봄, 진로교육, 멘토링 등의 상담지원과 온라인수업,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10여 가지의 학습활동이 지원되었다.

전북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건강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체육/문화/여가 활동으로는 요리, 메이크업, 근황 관련 토크콘서트, 활동꾸러미 배포, 취미 찾기 프로그램 등이 제작되었다. 동아리활동도 온라인을 통해 활동내용이 제공되거나 정기회의가 진행되는 등 각자도생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학습지원 차원에서는 영어회화, 진로프로그램 등이 비대면으로 지원되었다.

전남에서는 청소년모의투표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고, 만들기 및 키우기 키트 제공, 긴급 돌봄 제공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경북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에서 유권자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동아리연합회 화상회의 등으로 동아리활동이 대체되었다. 또한 온라인교육 원격수업, 온라인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학습지원 활동이 구성되었다.

경남에서는 청소년모의투표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요리 만들기 및 레시피 공유, 의료진 응원메시지 제작, 영상공모전 등의 체육/문화/여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2. 청소년활동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접근

청소년활동은 법적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제3조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정하고 있으며(청소년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그러나 법적 근거는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과 함께 각 활동의 범주를 명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164-190).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개념으로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 ‘청소년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로 청소년활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청소년정책의 취지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청소년활동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과 정책적으로 개념화한 청소년활동이 아닌, 청소년시설에서 수행되는 실무적인 개념으로 청소년활동을 조작적 정의한다. 활동의 기본적 범주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의 분류를 근거로 한다. 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시설에 의한 분류도 한 가지 주요한 이론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자유학기제 활동’은 광의의 청소년활동으로 조작적 정의하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일선 시설의 운영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이는 개념정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V-2>와 같으며 청소년참여활동은 자유학기제 활동, 청소년자원봉사

(DOVOL),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정책참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의 9개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표 IV-2. 청소년활동의 조작적 개념정의

청소년활동의 실무적 개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의 분류)	광의의 청소년활동	협의의 청소년활동
자유학기제 활동	○	×
청소년자원봉사(DOVOL)	○	○
국제교류활동	○	○
청소년정책참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청소년어울림마당	○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부적절	부적절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부적절	부적절

○ — 제5장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 1. 사회적 가치의 개념
- 2.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접근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특히 청소년활동을 통해 체득하거나 내면화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직접연구가 없는 만큼 유사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조작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가치의 개념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을 구별해주는 개념이며, 행동의 양식, 수단, 목표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바람직한 것에 대해 판단하는 개념이다(Kluckhohn, 1962). 반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추구되어 왔으며, 경제, 문화,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통된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장우진, 오승석, 배철효, 2012). 임의영(2009)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등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왔다. Porter와 Kramer(2011)는 2008년 금융위기가 경제적 가치만을 좇으면서 나타난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여 기업과 지역공동체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가치사회적가치의 논의는 1960년대 이후 '삶의 질' 논의를 시작으로 1987년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논의를 거쳐, 1997년 유럽 지식인 일천여명이 발표한 '사회의 질 선언'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재열, 2017). 임의영(2009)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협의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관점은 1970년대의 신행정학과 일치하지만,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적 가치 논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포용적 가치가 강조되었다(김정인, 2018). 윤태범, 양동수, 윤기찬, 최현선과 김보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관점이 당시의 사회적 가치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적 반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 개념

임의영(2009)은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차원에서 정의된 사회적 가치가 분배의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이며, 사람들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가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²⁵⁾.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의 다양성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며, 사람들이 가치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가치의 분배 방식, 분배의 주체, 분배의 근거 등을 함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균형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에서 적절하게 가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치적 역학관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헌법)이 중요

25) 미국의 정치학자인 Walzer Michael이 주장한 사회적가치론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 가치(social primary goods)’란 사회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권리와 자유, 권한, 기회,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Walzer, 1999; 임의영, 2009, p.5에서 재인용). 즉 사회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공유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로 볼 수 있다.

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박철(2020)은 사회적 가치가 필요한 이유를 경제적, 양적 발전의 보완과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란 개인 사회 공동체 미래 세대의 행동규범이며, 사회적 가치의 연관개념은 기회균등, 형평성, 공정성, 신뢰, 협동, 연대, 공유성, 공익성, 평등성, 공개성, 공민성, 동질성, 응집적 통합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가치는 노동, 일자리의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과 협력, 지역경제, 책임윤리, 공동체복원, 인권, 안전, 건강복지, 환경, 참여로 규정된다²⁶⁾.

성석함과 윤지웅(2019)은 조직차원 사회적 가치와 구성원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가치의 특징을 공공성, 유동성, 다양성, 상대성, 대응성, 적실성으로 파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성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질적인 가치가 공존하며, 공통의 관심사이지만 서로 간 차이를 인정하고, 복수의 집단이나 조직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의한다. 유동성은 일정 시점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회적 가치가 폐기되고 새로운 가치가 수립될 수 있음을 말한다. 다양성은 공동체의 다양성이 인정된 사회적 합의체를 뜻하며, 상대성은 개인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에서 형성된 사회적 가치가 갈등을 유발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성은 갈등 상황에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핵심적인

26) 사회적 가치의 연관개념 요소를 통한 사회적 가치 개념 도출

	'사회적'인 것과 대비요소에 의한 개념	연관개념요소	문재인정부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이윤, 효율성 등 경제 성장에 요구되는 가치와 대비되는 가치	기회균등, 형평성, 공정성	노동,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 협력, 지역경제, 책임 윤리
	시장논리에 의해 침해되는 공동체의 원리	신뢰, 협동, 연대	공동체복원
사회적	공공성: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및 사회 전체의 이익	물적·경제적 공유성, 공익성, 평등성, 공개성, 공민성	인권, 안전, 건강복지, 환경, 참여
	문화적 공유성	사회 동질성, 응집성 사회 통합	공동체 복원

출처: 박상욱 외(20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 p.9.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는 특성을 뜻하고, 적실성은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권청재(201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네 가지 특성으로 공공성(공개적이고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 유동성(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 다양성(사회적 합의체로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 발현), 협의성(사회적 가치들이 서로 상충될 때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 수행)을 제시하였다.

Schwartz(1992)는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도출된 표본을 통해 총 57개의 가치항목을 분류하여 10개의 가치유형을 도출하였는데, 안전, 동조, 전통, 자비심, 보편주의, 자기주도성, 자극, 쾌락주의, 성취, 권력이 그것이다. 안전은 사회와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안전과 안정, 동조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성향의 자제, 전통은 전통문화의 관습과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자비심은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헌신, 보편주의는 인류와 자연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헌신, 자기주도성은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 자극은 흥분과 새로움에 대한 도전, 쾌락주의는 개인의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 성취는 사회적인 기준에 맞는 성공, 권력은 다른 사람 및 자원을 통제하는 지배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가치들은 양립가능성 및 대립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 간의 관계가 한국사회에서도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는 사실이 김연신과 최한나(2009)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²⁷⁾.

윤태범 외(2017)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혹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라고 정의하였다(윤태범 외, 2017: 32).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사적 편익에 대한 관심 요구를 넘어 타인과 공동체의 관심과 지향점을 중요시하고, 문화와 규범, 경험,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교육, 종교, 지역, 결사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

27) Schwartz(1992)의 가치유형 분류

를 본질적으로 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특성으로 공공성, 유동성, 다양성, 협의성을 제시하였는데, 공공성은 공개적이고 공통적인 관심사의 형성을, 유동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특성을, 다양성은 공동체가 사회적 합의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게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협의성은 사회적 가치들이 서로 상충될 때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뜻한다.

최현선(2018)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였는데, 정부와 공공기관 혁신의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형평성)이 공존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공공성은 부처와 공공기관의 본래 임무를, 공익성은 부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을, 공동체성(형평성)은 배려와 책임이 함께 하는 사회를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가치는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이고, 사회적 가치 중 분배되어야 할 가치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경험에

가치유형	가치 항목	정의
안전	소속감, 사회적 질서, 국가의 안전, 호의에 보답 /은혜갚음, 가족의 안전, 건강함, 청결함	사회와 자신,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안전과 안정
동조	공손(정중함), 자기수양, 부모님과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순종하는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성향의 자제
전통	전통에 대한 공격, 중도(립)적인, 겸손한, 인생에서 나의 몫을 받아들이는, 헌신적인	전통문화(혹은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과 관점을 수용/존중
자비심	영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성숙한 사랑, 진실한 우정, 충성스러운, 정직한, 도움이 되는, 책임감 있는, 용서하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헌신
보편주의	평등, 내적 조화, 세계평화, 자연과의 조화, 지혜, 아름다운 세계, 사회정의, 관대한/아랑이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인류와 자연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보호와 헌신
자기 주도성	자유, 자존감, 창의성, 프라이버시, 독립적인,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는, 호기심 있는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
자극	재미있는 삶, 다채로운 삶, 대법함	흥분과 새로움(변화), 도전
쾌락주의	즐거움, 즐기는 인생, 방종한/제멋대로인	개인적인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
성취	야심적인, 영향력 있는, 유능한, 지적인, 성공적인	사회적인 기준에 맞는 성공
권력	사회적 힘, 부유함, 사회적 인정, 권위, 체면을 유지하는	다른 사람 및 사회적 자원을 통제하는 지배력

출처: 김연신, 최한나(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p.3 인용.

공유된 구성원에 의해 창출되며 분배의 기준은 가치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박상욱 외(2018)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공공가치(public value)가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시민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되 정부와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가 집합적으로 이에 대해 합의하고 결정하며 사회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활동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 '공공가치'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가치' 영역의 연구 주제들을 분석한 결과, 환경과 삶의 질을 함께 영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삼자가 협업이라는 공공가치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가치를 통해 구성원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특히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이 과정에서 공공가치가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직 단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차원으로 책무성(Responsibility)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맥락의 대표적 개념으로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 GSR)'이 있다. 라영재(2010)는 SR의 개념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더 나아가서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NGO)까지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기업이라는 접두어를 뺀 용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나아가 김태영, 송성수와 김기룡(2017)은 사회적 책임의 주체를 정부(Government)로 규정하여 SR의 접두어 위치에 정부를 배치한 '정부의 사회적 책임(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 GSR’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GSR은 정부,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의 모든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직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별개의 사안이 아닌 헌법적 가치(constitutional values)로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서 헌법적 가치는 공직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GSR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앞서 책무성(Responsibility)의 개념이 가장 먼저 도입된 CSR은 H.R.Bowen이 1953년에 발표한 ‘기업가의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백유성과 김종길(2013)은 초반의 CSR 개념이 기업의 윤리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쳐 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차원의 전략으로서 현재의 CSR의 개념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직적 책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여하는 것인데, KOICA의 지속가능발전포털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이란 UN 회원 국가들의 국제적 약속으로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전’을 추구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서 나아가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발전 형태를 의미한다²⁸⁾. SDG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목표를 확대하여 빈곤, 불평등, 환경, 사회발전, 경제발전 등을 골고루 포함하는 범위로 발전한 결과물이다.

앞서 살펴 본 사회적 가치의 정의나 개념이 범용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원칙 및 규범으로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사회적 책임 경영 운영지침인 ‘ISO26000’, 사회책임경영 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Standards(G4 가이드라인)’이 있다(〈표 V-1〉).

28)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definition> 에서 2020년 3월 8일 인출.

표 V-1. 사회책임과 유사개념 간 관계

사회적 가치	UN 글로벌컴팩트	GRI(G4 가이드라인)	ISO26000
인권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조약 포함된 주요투자건수 및 비율 • 공급업체의 인권심사비율 • 업무관련 인권정책 및 절차 직원교육 • 차별건수 및 조치 • 결사교섭단체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주의의무 • 인권 위험상황 • 공모의 지양 • 고충처리 • 차별 및 약자집단
안전	노동관행	-	•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건강 및 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직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프로그램 • 노조와의 협약상 보건 및 안전사항 	-
노동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근절 • 강제노동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의 기본권 • 차별 미 약자집단
	노동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형 • 직원이직건수 및 비율 • 비정규직에 제외된 혜택 • 단체교섭 대상직원 비율 •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재해건수 • 최저임금 대비 신입직원 임금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및 고용관계 •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취약계층 지원	노동	-	• 아동노동
상생협력	공정운영의 관행	-	-
일자리	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의 기본권 • 시민권과 정치권
	노동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대화 • 인적개발 및 직장 내 훈련
공동체 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장의 현지 구매정책 및 비율 • 주요사업장의 현지인 우선채용 	-
지역경제	-	• 공익 우선 인프라투자	-

사회적 가치	UN 글로벌컴팩트	GRI(G4 가이드라인)	ISO26000
환경 지속성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원료 사용비율 • 절감한 에너지 총취수량 • 환경보호지출 및 투자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방지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

* 출처: 윤태범 외(201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p.17. <표 II-3>을 인용함.

<표 V-1>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지침 중 인권, 안전, 노동, 건강 및 복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협력, 지역경제, 일자리, 공동체 복원, 환경지속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태범 외, 2017).

탁현우 외(2019)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행전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7가지 분야로 정의하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중요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으로서 사회책임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탁현우와 윤진(2020)의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투명성, 법규준수, 책임성 순으로 정책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핵심주제 중에는 공정운영, 거버넌스, 인권 순으로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높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사회적 가치 정책의 방향 설정에 유의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면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13개의 핵심 사회적 가치 요소를 구성하였다(<표 V-2>, 행정안전부, 2018b: 9).

표 V-2.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요소	의미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보건복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중소 기업상생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일자리 창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공헌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공성 강화	그 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의 강화

* 출처: 행정안전부(2018b). 사회적 가치의 이해.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7790PKu9ex2&fileSn=0 에서
 2020년 11월 11일 인출.

[그림 V-1]은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책임 분야가 사회적 가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여준다. 조직 거버넌스 분야는 사회통합과 민주적 참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인권과 노동 분야는 사회적 가치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사회 책임으로서의 환경 분야에서는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녀야 하고, 공정운영에 대한 사회 책임은 대중소 기업 상생이라는 가치와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소비자로서의 사회 책임은 보건복지 및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의 참여 및 발전에 대한 사회 책임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경제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렇듯 사회적 가치가 구체화 된 사회 책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 출처: 탁현우 외(2019). 포용국가와 책임정부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 정책의제와 실행전략 연구. p.27. [그림 2-6]을 인용함.

그림 V-1.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발전 및 포용국가와의 관계

2) 사회적 가치에 대한 법적개념과 추진방향

사회적 가치는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공익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변화를 낳는 가치’를 의미한다(관계부처합동, 2019.2.; 고동현, 이재열, 문명선 외, 2016). 사회적 가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의미를 가지며, 헌법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 중 인권, 노동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의 실현 등 사회 전체의 편익을 제공하는 포괄적 상위 가치로서 기능한다(관계부처합동, 2019.2.).

윤태범 외(2017)는 2014년 6월 발의 및 2016년과 2017년에 재발의 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근거로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성요소로 인권, 안전, 노동, 일자리, 건강·복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협력, 지역경제, 공동체 복원, 책임 및 윤리경영, 환경, 참여 등 12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2017년 10월에 발의되어 현재 임기만료폐기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3조도 윤태범 외(2017)의 연구와 동일하게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면서(윤태범 외, 2017: 31)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⑥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⑦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⑧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⑨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⑩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⑪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⑫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⑬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13개 범주로 세부적인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10.26.). 한편 탁현우와 윤건(2020)은 사회적 가치의 정책 수단을 크게 계획, 법제도, 추진체계, 평가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표 V-3>과 같다.

표 V-3.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 분석 대상 17개

구분	내용
계획	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행정안전부)
법·제도	3. 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4. 중소기업기본법(중소벤처기업부)
	5. 협동조합 기본법(기획재정부)
	6.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거래위원회)
	8. 지속가능발전법(환경부)
추진체계	9.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10.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시민사회발전위원회
	11.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12.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평가	13.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4.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15.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1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안전부)
	17. K-SDGs

* 출처: 탁현우, 윤건(2020). 사회적 책임 개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의 탐색적 평가. p.40. <표 7>을 인용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도 ‘사회적 가치 구현’이 경영관리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의 5가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표 V-4>).

표 V-4. 사회적 가치 구현 공공기관 세부평가 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 내용
일자리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노력과 성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안전 및 환경	-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

* 출처: 기획재정부(2018.9.).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pp.17-21의 내용을 정리함.

한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체계에서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며, 앞서 살펴본 사회적가치의 12가지 범주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를 분류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특히 역점으로 두는 정책들을 사회적 가치에 따라 분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V-5>와 같다.

표 V-5. 사회적 가치의 범주와 100대 국정과제(일부)

사회적 가치	100대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12.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16.좋은 일자리 창출, 17.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18.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20.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30.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38.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사회 활성화	48.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72.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73.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79.도시재생 뉴딜 추진, 81.복지 농산어촌 조성, 82.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공동체복원	1.적폐청산, 3.과거사 문제 해결, 5.해외체류 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11.국가를 위한 헌신의 보답

사회적 가치	100대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	74.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75.강력한 재정분권, 76.교육자치 강화, 77.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 78.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83.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84.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환경보호	37.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58.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9.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60.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61.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
참여와 투명성	2.반부패 개혁, 5.소통하는 대통령, 6.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7.국민참여 정치 개혁, 8.열린 혁신정부, 9.신뢰받는 공직사회
기타	22.금융산업구조 선진화, 33.소프트웨어 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34.고부가가치 창출형 신산업 발굴·육성, 35.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80.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87.국방문화추진, 88.방산비리 척결과 방위산업 육성, 90.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91.남북 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92.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93.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94.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95.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96.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97.주변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98.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99.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100.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출처: 남궁근(2019).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거버넌스. p.45. <표 2>를 일부 인용함.

남궁근(2019)은 사회적 가치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국방, 외교, 통일 정책과제를 제외할 경우 거의 모든 국정과제가 사회적 가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가치의 범주를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구분하였다. 또한 위의 <표 V-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정과제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되는 등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가 고르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개념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러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²⁹⁾.

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1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인권’은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과 활동과 인권교육의 체계적 실행과 구성원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 ② ‘안전’은 청소년 생활 속의 활동안전사고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기관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 ③ ‘보건복지’는 청소년 체험·돌봄·학습 중심의 방과후 활동 종합 지원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 ④ ‘노동’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⑤ ‘사회적 약자지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노력과 활동, ⑥ ‘환경’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활문화 운동 노력과 활동, ⑦ ‘상생협력’은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⑧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양적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 ⑨ ‘공동체 복원’은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운영 노력과 활동, ⑩ ‘지역경제 공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 ⑪ ‘윤리&책임’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 ⑫ ‘의사결정·참여’는 청소년 사회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이다³⁰⁾. 이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12가지 사회적 가치의 분류(관계부처합동,

29)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kywa.or.kr/about/about09_01.jsp 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30)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kywa.or.kr/about/about09_01.jsp 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2019.2.)를 토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12가지 사회적 가치를 일관적으로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이질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기초로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청소년활동에 맞게 재구조화 하여 조작적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4)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2019)에서도 교육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시 하였는데, 크게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초·중등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의 균형적인 사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교육 당국(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준하여 생태, 역사, 노동인권 등 ‘논쟁적 사회현안’³¹⁾을 주제로 다룬다. UN에서 작성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은 난민 분야, 유네스코에서 작성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은 평화 분야, UN에서 작성한 ‘Youth 2030 UN의 청소년 전략(2018)’은 청소년 분야, UN에서 작성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UN보고서(2013)’는 역사 분야, IPCC에서 작성한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2018)’은 생태 분야, UN에서 작성한 ‘여성차별철폐협약(1979)’은 성평등 분야, ILO에서 작성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은 노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의미가 있는 문서로 해당 분야의 교육에

31) 논쟁적 사회현안(Controversial Issues):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으로 공동체와 사회에 강력한 감정과 이견을 불러 오는 사안(Teaching Controversial Issues, 2015)

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Youth 2030 UN의 청소년 전략(2018)'의 경우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가치의 접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UN 청소년전략의 5대 우선과제로 ① 청소년의 참여 증진, ② 양질의 교육 및 보건 접근성 강화, ③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④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 ⑤ 평화의 촉매제로 청소년의 역할 지원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청소년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위해 UN차원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전략은 UN의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5대 우선과제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참여 및 옹호(청소년의 참여 증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청소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여권에 대한 의제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청소년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와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둘째, '교육 및 보건 기반(양질의 교육 및 보건 접근성 강화)'은 학습자 중심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양질의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의제이다. 한국의 청소년은 교육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인 청소년 개개인 삶의 성공보다 그들의 학업성적에 맞춰져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2030 전략은 학습자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과 사회·경

제환경적 요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의료서비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나,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보다는 실제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신건강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자원이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의제는 청소년의 경제교육, 경제활동, 노동인권교육 등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7년 기준 30%가 넘으며 이 중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형태이다.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과반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많으며, 이에 대한 대응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인권교육을 받아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과 인권(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은 청소년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여 청소년의 시민/정치적 참여를 지원한다는 의제이다. 2019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외부의 주입으로부터가 아닌 청소년이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인권의 가치에 대해 이해해야 하므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중요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학습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 및 탄력성 구축(평화의 촉매제로서 청소년의 역할)’은 평화와 안

보 및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촉매제로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의제이다. 한국은 분단 상황과 더불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만큼 평화의 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정성이 과도한 대중문화, 학교 폭력 등 폭력적 문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최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이 도입한 ‘회복적 생활교육’은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을 통해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유도하는 교육이며, 새로운 평화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와 성장의 상징인 청소년은 미완의 상태임과 동시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은 주체이다. UN 청소년전략의 5대 우선과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핵심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교육이 지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이 곧 사회적 가치와 동일한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접근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는 없다. 직접적인 이론적 논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관련 연구의 결과 및 현재 추진 중인 공공정책의 시사점을 고찰하고 새롭게 조작적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연구(탁현우 외, 2019)는 ① 인권, ② 안전, ③ 보건복지, ④ 노동, ⑤ 사회통합, ⑥ 대중소 기업상생, ⑦ 일자리 창출, ⑧ 지역사회 활성화, ⑨ 지역경제 공헌, ⑩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⑪ 환경, ⑫ 민주적 참여, ⑬ 공공성 강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육부 정책 및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견주어 조작적 정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정책의 전문기관으로서 ① 인권, ② 안전, ③ 보건복지, ④ 노동, ⑤ 사회적 약자지원, ⑥ 상생협력, ⑦ 일자리 창출, ⑧ 공동체 복원, ⑨ 지역경제공헌, ⑩ 윤리와 책임, ⑪ 환경, ⑫ 의사결정참여의 사회가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탁현우 외(2019)의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위는 기관이나 정책적 입장에서의 사회적 가치이므로 그 핵심 개념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최근 교육부의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정리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2019)의 연구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규정한 서울시교육청(2020)의 연구는 보다 이들의 개념을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① 인권, ② 안전, ③ 사회통합, ④ 상생, ⑤ 공동체, ⑥ 사회경제적 인재양성이며, 서울시교육청(2020)이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는 ① 인권, ② 노동인권, ③ 사회적 약자의 인권, ④ 평화와 평등, ⑤ 생태, ⑥ 미래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다.

이들의 개념을 종합하여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① 인권, ② 안전, ③ 노동인권, ④ 사회통합, ⑤ 상생과 협력, ⑥ 공동체의식, ⑦ 지역경제의 균형, ⑧ 윤리와 평등, ⑨ 환경, ⑩ 의사결정참여 총 10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V-6>과 같다.

표 V-6.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

포용사회 구현 (2019)	사회적 가치의 유사개념			본 연구의 사회적 가치
	청소년관련 공공기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가치 (2020)	교육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2019)	
①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② 안전	안전		안전	안전
③ 보건복지	보건복지			
④ 노동	노동	노동인권		노동인권
⑤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사회통합	사회통합
⑥ 대중소 기업상생	상생협력		상생	상생과 협력
⑦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⑧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공동체	공동체
⑨ 지역경제 공헌	지역경제공헌		사회경제적 인재양성	지역경제의 균형
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와 책임	평화와 평등		윤리와 평등
⑪ 환경	환경	생태		환경
⑫ 민주적 참여	의사결정참여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의사결정참여
⑬ 공공성 강화				

○———— 제6장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수준

- 1. 청소년 응답자의 인적 특성
- 2.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과 참여도
- 3. 청소년 참여활동의 인식 수준, 역량 및 삶의 질 수준
- 4.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 5. 청소년활동의 경험 및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지금까지 앞 장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범위로 청소년활동에 따라 청소년들이 체득하고 교육적 가치측면에서 내면화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본 조사는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변화에 대한 순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며 이에 총 2시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대상 1차 조사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차 조사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청소년들의 인적특성, 청소년활동의 경험여부와 참여도, 청소년 참여활동의 인식수준과 그들의 삶의 질 수준,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지도이다.

청소년조사의 표집은 짝짓기 설계(matched pairs design)에 따라 청소년활동 경험의 여부가 있는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두 집단이 서로 동질적인 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본 청소년조사의 목적은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청소년활동경험의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소 적은 표본설계 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질성을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2시점의 조사 동안 결측도 많기 때문에 두 집단의 이질적 균형을 더욱 맞추는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본원

기관생명유니얼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조사를 승인받아³²⁾, 17개 시도의 거점에 담당 청소년지도사를 지정하고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현장에서 짝을 지었으며 최대한 인적특성 등 유사한 특성이 매칭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표집된 표본은 전국 총 1,354명이다.

1. 청소년 응답자의 인적 특성

1)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성별

본 연구 대상의 1차 조사 표본 크기는 총 862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자 청소년은 330명(38.3%), 여자 청소년은 532명(61.7%)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구성되었다. 2차 조사 표본 크기는 총 606명이며, 남자청소년은 234명(38.6%), 여자 청소년은 372명(61.4%)으로 1차 조사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구성되었다.

표 VI-1. 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명, %)

집단	성별	남	여	표본수
1차 조사 응답자		330 (38.3%)	532 (61.7%)	862 (10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234 (38.6%)	372 (61.4%)	606 (100%)

2)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학년

1차 조사 대상 862명의 학교급 구성은 중학생이 325명(37.7%), 고등학생이

32) 본 조사는 20년 7월 17일 본원 기관생명유니얼위원회로부터 승인(202002-HR-고유-001) 통보를 받음.

538명(6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 학년 구성을 보면 중학생은 1학년이 59명(6.8%), 2학년이 106명(12.3%), 3학년이 160명(18.6%)이며, 고등학생은 1학년이 99명(11.5%), 2학년이 239명(27.7%), 3학년이 199명(23.1%)으로 구성되었다.

2차 조사 대상 601명의 학교급 구성은 중학생이 208명(34.6%), 고등학생이 393명(6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 학년 구성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1학년이 40명(19.2%), 2학년이 68명(32.7%), 3학년이 100명(48.1%)이며, 고등학생은 1학년이 67명(17.0%), 2학년이 179명(45.5%), 3학년이 152명(38.7%)으로 구성되었다.

표 VI-2. 청소년 응답자의 학교급 및 학년 (명, %)

집단	학년	중학교			전체	표본수
		1학년	2학년	3학년		
1차 조사 응답자		59 (6.8%)	106 (12.3%)	160 (18.6%)	325 (37.7%)	862 (10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40 (19.2%)	68 (32.7%)	100 (48.1%)	208 (34.6%)	601 (100%)
집단	학년	고등학교			전체	표본수
		1학년	2학년	3학년		
1차 조사 응답자		99 (11.5%)	239 (27.7%)	199 (23.1%)	538 (62.3%)	862 (10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67 (17.0%)	179 (45.5%)	152 (38.7%)	398 (65.4%)	601 (100%)

3)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거주지역

1차 조사 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전체 862명 중 서울이 67명(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가 24명(2.8%)으로 조사 대상이 가장 적었다. 제주를 제외한 다수

의 시·도가 5~6%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고른 분포로 구성되었다.

2차 조사 대상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06명 중 서울이 56명(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지역이 49명(8.1%)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가 19명(3.1%)로 조사 대상이 가장 적었다. 이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5~6%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VI-3. 청소년 응답자의 거주 지역 (명, %)

집단	거주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차 조사 응답자		67 (7.8%)	55 (6.4%)	55 (6.4%)	43 (5.0%)	52 (6.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56 (9.2%)	33 (5.4%)	40 (6.6%)	33 (5.4%)	30 (5.0%)	32 (5.3%)
집단	거주지역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차 조사 응답자	39 (4.5%)	56 (6.5%)	42 (4.9%)	74 (8.6%)	37 (4.3%)	60 (7.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26 (4.3%)	26 (4.3%)	27 (4.5%)	54 (8.9%)	27 (4.5%)	44 (7.3%)
집단	거주지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수
	1차 조사 응답자	59 (6.8%)	65 (7.5%)	52 (6.0%)	44 (5.1%)	24 (2.8%)	862 (10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49 (8.1%)	38 (6.3%)	42 (6.9%)	30 (5.0%)	19 (3.1%)	606 (100%)

4)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학급 형태

조사 대상이 소속된 학교의 학급 형태를 살펴보면, 1차 조사 대상 중 남녀공학(혼성학급) 재학생이 417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공학(단성학급) 재학생

이 69명(8.0%)으로 가장 적었다. 여학교 재학생은 233명(27.0%)이며 남학교 재학생은 143명(16.6%)으로 구성되었다.

2차 조사 대상의 소속 학교의 학급 형태를 설문한 결과, 남녀공학(혼성학급) 재학생은 280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학교 재학생이 167명(27.6%), 남학교 재학생이 100명(16.5%)이며 남녀공학(단성학급) 재학생이 59명(9.7%)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 청소년 응답자의 학급 형태 (명, %)

집단 \ 학급 형태	남녀공학 (혼성학급)	남녀공학 (단성학급)	남학교	여학교	표본수
1차 조사 응답자	417 (48.4%)	69 (8.0%)	143 (16.6%)	233 (27.0%)	862 (10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280 (46.2%)	59 (9.7%)	100 (16.5%)	167 (27.6%)	606 (100%)

5)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학급 학생 수

본 연구 대상의 학급 학생 수 분포를 살펴보면, 1차 조사 대상의 응답에서는 20~29명 규모의 학급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22명(72.2%)이며 30~39명 규모의 학급이라는 응답이 127명(14.7%), 10~19명 규모의 학급이라는 응답이 93명(10.8%), 40명 이상 규모의 학급이라는 응답이 15명(1.7%)이며 9명 이하 규모의 학급이라는 응답이 5명(0.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대상의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20~29명 규모의 학급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44명(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명 규모의 학급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89명(14.7%), 10~19명 규모의 학급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5명(10.7%)이며 40명 이상이라는 응답과 9명 이하라는 응답은 각각 4명(0.7%)씩 나타나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5. 청소년 응답자의 학급 학생 수 (명, %)

집단	학급 학생 수					표본수
	9명 이하	10~19명	20~29명	30~39명	40명 이상	
1차 조사 응답자	5 (0.6%)	93 (10.8%)	622 (72.2%)	127 (14.7%)	15 (1.7%)	862 (10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4 (0.7%)	65 (10.7%)	444 (73.3%)	89 (14.7%)	4 (0.7%)	606 (100%)

6)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학교 성적

본 연구 대상의 학교 성적은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을 조사한 항목으로, 1차 조사 응답자의 경우 보통(중위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60명(41.8%)으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잘 하는 편(중상위권)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238명(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못 하는 편(중하위권)이라는 응답자는 138명(16.0%)이며 매우 잘 함(상위권)이라는 응답은 94명(10.9%), 매우 못 함(하위권) 응답은 32명(3.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의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통(중위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53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잘 하는 편(중상위권)이라는 응답이 180명(29.7%), 못하는 편(중하위권)이라는 응답이 85명(14.0%)이고 매우 잘 함(상위권)이라는 응답도 유사한 수치인 74명(12.2%)이며 매우 못 함(하위권)이라는 응답이 14명(2.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VI-6. 청소년 응답자의 학교 성적 (명, %)

학교 성적 집단	매우못함 (하위권)	못하는편 (중하위권)	보통 (중위권)	잘하는편 (중상위권)	매우잘함 (상위권)	표본수
1차 조사 응답자	32 (3.7%)	138 (16.0%)	360 (41.8%)	238 (27.6%)	94 (10.9%)	862 (10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14 (2.3%)	85 (14.0%)	253 (41.7%)	180 (29.7%)	74 (12.2%)	606 (100%)

7)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학교생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 전체 862명 중 334명(38.7%)이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25명(26.1%)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의 수준이라는 응답은 222명(25.8%)이고,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59명(6.8%)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은 22명(2.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차 조사 응답자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246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149명(24.6%), 보통이라는 응답이 145명(23.9%),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0명(8.3%),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6명(2.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청소년 응답자의 학교생활 만족도 (명, %)

집단	학교생활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표본수
1차 조사 응답자	22 (2.6%)	59 (6.8%)	222 (25.8%)	334 (38.7%)	225 (26.1%)	862 (100%)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16 (2.6%)	50 (8.3%)	145 (23.9%)	246 (40.6%)	149 (24.6%)	606 (100%)

8)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수업참여 형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현 교육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수업참여 형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하였으며, 각 수업 형태 별 일주일에 며칠 참여하는지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 대상의 응답을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은 전혀 없다는 응답이 421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는 주 3일이라는 응답이 139명(1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1일이라는 응답이 25명(2.9%)으로 가장 적었다.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주 5일이라는 응답이 421명(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4일이라는 응답이 25명(2.9%)으로 가장 적었다.

2차 조사 대상의 응답을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응답이 264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는 주5일이라는 응답이 110명(18.2%)로 가장 많았으며, 주4일이라는 응답이 22명(3.6%)으로 가장 적었다.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주5일이라는 응답이 264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1일이라는 응답이 22명(3.6%)으로 가장 적었다.

표 VI-8. 청소년 응답자의 수업참여 형태 (명, %)

수업참여형태		온라인					표본수
		없음	1일	2일	3일	4일	
집단							
1차 조사	421	25	122	139	33	122	862
응답자	(48.8%)	(2.9%)	(14.2%)	(16.1%)	(3.8%)	(14.2%)	(100%)
1~2차 조사	264	29	84	97	22	110	6060
모두 응답자	(43.6%)	(4.8%)	(13.9%)	(16.0%)	(3.6%)	(18.2%)	(100%)
수업참여형태		오프라인					표본수
		없음	1일	2일	3일	4일	
집단							
1차 조사	122	33	139	122	25	421	862
응답자	(14.2%)	(3.8%)	(16.1%)	(14.2%)	(2.9%)	(48.8%)	(100%)
1~2차 조사	110	22	97	84	29	264	606
모두 응답자	(18.2%)	(3.6%)	(16.0%)	(13.9%)	(4.8%)	(43.6%)	(100%)

2. 청소년 활동의 참여경험과 참여도

1)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여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표 IV-2와 같이 9개로 정의하였으며, 각 참여활동에 대한 경험 여부를 설문하고 유경험자의 경우 참여활동별 참여도를 9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앞선 조작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청소년참여활동은 자유학기제 활동, 청소년자원봉사(DOVOL), 국제교류활동, 청소년정책참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이다.

먼저, 1차 조사 대상의 청소년활동 경험여부를 설문한 결과 전체 862명 중 청소년활동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과반인 585명(67.9%)이며 청소년활동의 경

험이 없다는 응답은 277명(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대상의 청소년활동 경험여부를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06명 중 청소년활동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5명(68.5%)인 반면 청소년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9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경험 여부 (명, %)

청소년활동 경험여부	집단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빈도	표본	빈도
있음		862	585 (67.9%)	606	415 (68.5%)
없음		(100%)	277 (32.1%)	(100%)	191 (31.5%)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585명의 각 청소년활동별 경험 여부를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험자가 가장 많은 활동은 청소년자원봉사(DOVOL) 활동으로 유경험자가 384명(44.5%)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자가 가장 적은 활동은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활동으로 유경험자가 34명(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415명의 각 청소년활동별 경험 여부를 설문한 결과, 경험자가 가장 많은 활동은 청소년자원봉사(DOVOL) 활동으로 282명(46.5%)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험자가 가장 적은 활동은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활동으로 유경험자가 27명(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별 참여경험 여부 (명, %)

청소년활동별 참여경험 여부	참여활동 경험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빈도	표본	빈도
자유학기제 활동	있음	585	312 (36.2%)	415	186 (30.7%)
	없음	(67.9%)	273 (31.7%)	(68.5%)	229 (37.8%)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있음	585	384 (44.5%)	415	282 (46.5%)
	없음	(67.9%)	201 (23.3%)	(68.5%)	133 (21.9%)
국제교류활동	있음	585	59 (6.8%)	415	42 (6.9%)
	없음	(67.9%)	526 (61.0%)	(68.5%)	373 (61.6%)
청소년정책참여	있음	585	367 (42.6%)	415	280 (46.2%)
	없음	(67.9%)	218 (25.3%)	(68.5%)	135 (22.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있음	585	135 (15.7%)	415	79 (13.0%)
	없음	(67.9%)	450 (52.2%)	(68.5%)	336 (55.4%)
청소년 어울림마당	있음	585	193 (22.4%)	415	145 (23.9%)
	없음	(67.9%)	392 (45.5%)	(68.5%)	270 (44.6%)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있음	585	82 (9.5%)	415	50 (8.3%)
	없음	(67.9%)	503 (58.4%)	(68.5%)	365 (60.2%)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있음	585	34 (3.9%)	415	28 (4.6%)
	없음	(67.9%)	551 (63.9%)	(68.5%)	387 (63.9%)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있음	585	40 (4.6%)	415	27 (4.5%)
	없음	(67.9%)	545 (63.2%)	(68.5%)	388 (64.0%)

2)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별 참여도

1차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중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도를 9점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청소년 564명(65.4%)의 청소년활동 전체 참여도는 평균 6.98, 표준편차 1.731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도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402명(66.3%)의 청소년활동 전체 참여도

평균은 7.00, 표준편차는 1.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도 (명(%), 9점 척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청소년활동 참여도	564 (65.4%)	6.98 (1.731)	402 (66.3%)	7.00 (1.626)

청소년활동의 참여도 1차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564명의 각 청소년활동 별 참여도를 설문한 결과, 국제교류활동이 평균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어울림마당 활동(7.46), 청소년정책참여활동(7.43) 순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반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활동은 평균 6.7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자원봉사(DOVOL) 활동(6.93), 자유학기제 활동(6.98) 순으로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자원봉사는 유경험자가 가장 많은 활동이었으나 참여도는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402명의 각 청소년활동별 참여도를 설문한 결과,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활동이 평균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교류활동(7.38),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7.24), 청소년 어울림마당(7.08), 청소년정책참여(7.02), 청소년자원봉사(DOVOL) 활동(6.99), 자유학기제 활동(6.9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6.71) 순으로 참여도 수준이 높았다. 가장 낮은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로 평균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별 참여도 (명(%), 9점 척도)

청소년활동별 참여경험 여부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자유학기제 활동	312 (36.2%)	6.98 (1.864)	186 (30.7%)	6.97 (1.896)
청소년자원봉사 (DOVOL)	384 (44.5%)	6.93 (1.908)	282 (46.5%)	6.99 (1.810)
국제교류활동	59 (6.8%)	7.47 (2.246)	42 (6.9%)	7.38 (2.163)
청소년정책참여	367 (42.6%)	7.43 (1.803)	280 (46.2%)	7.02 (1.866)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35 (15.7%)	7.08 (2.073)	79 (13.0%)	6.71 (2.260)
청소년 어울림마당	193 (22.4%)	7.46 (1.708)	145 (23.9%)	7.08 (1.949)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2 (9.5%)	7.07 (1.864)	50 (8.3%)	7.24 (1.791)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34 (3.9%)	6.74 (1.896)	28 (4.6%)	7.54 (1.598)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40 (4.6%)	7.10 (1.932)	27 (4.5%)	6.67 (2.094)

3. 청소년 참여활동의 인식 수준, 역량 및 삶의 질 수준

1)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인식 수준

본 연구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은 최용환(2017)이 활동의 영역에 따라 제시한 ‘정책참여활동’, ‘경제참여활동’, ‘사회참여활동’, ‘문화참여활동’, ‘교육현장참여활동’의 5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각 참여활동에 대한 척도는 5점 척도로 최용환(2017)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2019)가 개발한 청소년 참여활동의 문항별 항목으로 조사하였다.³³⁾ 구체적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의 인식은 ‘참여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참여활동에 관한 지역사회 홍보’, ‘참여 활동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참여 활동에 관한 지역사회의 활성화 노력’, ‘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단체나 기관’,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활동 적극성’의 6가지를 주로 묻고 있다.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1인 시위, 집회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국제기구 위원회 활동 등을 의미한다. 1차 조사에 응답한 862명의 정책 참여활동 인식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지원’이 평균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내 관련 제도’가 평균 3.34로 다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내 홍보’는 평균 2.97로 세부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세부항목 중 유일하게 2점대인 항목이다.

2차 조사 응답에 참여한 606명의 청소년의 정책참여활동 인식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인지도’ 문항이 평균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33)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에 제시된 청소년정책의 청소년정책활성화의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참여활동별 인식 수준으로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으며,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지원'이 평균 3.43으로 다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내 홍보'가 평균 3.09로 6개의 세부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비교해보면, '인지도'와 '지역 내 관련 제도',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지원' 항목의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지역 내 홍보'는 1~2차 조사에서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청소년 응답자의 정책참여활동 인식수준(명(%), 5점 척도)

구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62 (100%)	3.30 (1.207)	606 (100%)	3.46 (1.149)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7 (1.072)		3.09 (1.047)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3.34 (1.019)		3.36 (1.023)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21 (1.091)		3.28 (1.073)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3.35 (1.039)		3.43 (1.043)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3.29 (1.189)		3.24 (1.17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경제 참여활동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 경제교육 참여, 직업현장 체험,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관련 청소년의 노동권 및 인권교육 등으로 정의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의 경제 참여활동 인식 수준을 설문한 결과, '인지도' 문항이 평균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경제 참여활동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 내 홍보' 문항은 평균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며, ‘참여도’ 또한 평균 2.94로 낮게 나타났다.

2차 조사 응답자 606명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6개 문항 중 ‘인지도’ 문항이 평균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 평균 3.1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내 홍보’는 평균 2.98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인지도’는 높은 반면, ‘지역 내 홍보’는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4. 청소년 응답자의 경제참여활동 인식수준 (명(%), 5점 척도)

구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나는 청소년의 경제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862 (100%)	3.15 (1.133)	606 (100%)	3.28 (1.091)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2 (1.046)		2.98 (1.02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3.03 (1.031)		3.09 (1.028)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경제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02 (1.035)		3.11 (1.056)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3.09 (1.017)		3.14 (1.022)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94 (1.123)		3.01 (1.11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회 참여활동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 지역사회 내 지원봉사, 공동체 활동, NGO 활동, 자치기구 활동, 캠페인, 지역 간 교류활동 등으로 정의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의 사회 참여활동 인식수준을 세부항목별로 설문한

결과, '인지도'가 평균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내 홍보'가 평균 3.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응답자 606명의 청소년 사회 참여활동의 활동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도' 문항이 평균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지원' 항목이 평균 3.32로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참여도' 문항은 평균 3.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참여도'와 '지역 내 홍보'가 낮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지도' 항목은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15. 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참여활동 인식수준 (명(%), 5점 척도)

구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나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62 (100%)	3.33 (1.089)	606 (100%)	3.48 (1.096)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3.18 (1.009)		3.23 (1.01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3.25 (.0986)		3.31 (1.028)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20 (1.016)		3.23 (1.056)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3.25 (1.006)		3.32 (1.020)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3.20 (1.100)		3.19 (1.165)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 참여활동을 문화행사, 공연 등 기획 및 참여, 각종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문화 축제 모니터링 활동, 지역축제 기획·참여 등으

로 정의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의 문화 참여활동 인식수준에 대한 세부문항을 설문한 결과, '인지도' 항목이 평균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도'가 평균 3.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차 조사 응답자 606명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도' 항목이 평균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내 관련 제도'에 대한 문항도 평균 3.46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 반면, '참여도' 항목은 평균 3.34로 가장 낮았다. 1차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16. 청소년 응답자의 문화참여활동 인식수준 (명(%), 5점 척도)

구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나는 청소년의 문화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862 (100%)	3.49 (1.082)	606 (100%)	3.56 (1.028)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3.36 (1.058)		3.39 (1.01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3.41 (1.039)		3.46 (0.980)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문화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34 (1.032)		3.40 (1.007)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3.40 (1.031)		3.44 (0.984)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3.29 (1.096)		3.34 (1.127)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교육현장 참여활동을 학교 동아리 활동, 학생회 자치활동, 학교 운영과정 등에 대한 참여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의 교육현장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을 세부 문항으로 설문한 결과, ‘인지도’ 문항이 평균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홍보’ 문항이 평균 3.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차 조사 응답자의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인지도’ 문항이 평균 3.50으로 가장 높으며, ‘지역 내 홍보’가 평균 3.2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1차 조사와 동일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7. 청소년 응답자의 교육현장참여활동 인식수준 (명(%), 5점 척도)

구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나는 청소년의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862 (100%)	3.42 (1.122)	606 (100%)	3.50 (1.106)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3.26 (1.030)		3.28 (1.056)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3.32 (1.022)		3.36 (1.066)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교육현장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31 (1.037)		3.34 (1.103)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3.32 (1.018)		3.34 (1.045)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3.28 (1.106)		3.31 (1.155)

청소년의 각 참여활동의 세부문항은 인지도, 홍보, 지역 내 관련 제도, 교내 활성화,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지원, 참여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래의 표는 각 참여활동의 6개 항목의 평균값이다. 전체 청소년의 1차 조사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참여활동이 평균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 참여활동이 평균 3.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차 조사 설문에서도 문화 참여활동이 평균 3.43으로 가장 높으며, 경제 참여활동이 평균 3.1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18. 각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명(%), 5점 척도)

구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862 (100%)	3.24 (0.895)	606 (100%)	3.31 (0.890)
경제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3.03 (0.922)		3.10 (0.901)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3.23 (0.904)		3.29 (0.919)
문화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3.38 (0.938)		3.43 (0.886)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3.32 (0.939)		3.36 (0.962)

2)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역량 수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18년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년활동 6대 핵심역량’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21세기 핵심역량(6C)의 개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우리나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개발한 ‘청소년 6대 핵심역량(6C)’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의 핵심역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가이드’를 제작하고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6대 핵심역량 수준을

9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청소년 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 결과, ‘의사소통’ 역량이 평균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정서’ 역량이 평균 7.06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은 6점대의 평균값이 나타났으며, 이중 ‘창의력’ 역량이 평균 6.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역량과 ‘사회정서’역량이 평균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력’ 역량이 평균 6.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창의력’ 역량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 역량도 평균 6.92로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9.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수준 (명(%), 9점 척도)

청소년 핵심역량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1) 비판적 사고 새롭거나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	862 (100%)	6.94 (1.618)	606 (100%)	6.92 (1.614)
2) 창의력 발명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능력	862 (100%)	6.49 (1.795)	606 (100%)	6.47 (1.810)
3) 의사소통 생각, 질문, 해결방법 등을 공유하는 소통능력	862 (100%)	7.07 (1.611)	606 (100%)	7.12 (1.591)
4) 협업 공동목표를 위해 여러 명의 재능이나 지식 등을 합치는 능력	862 (100%)	6.95 (1.600)	606 (100%)	7.04 (1.610)
5) 사회정서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862 (100%)	7.06 (1.609)	606 (100%)	7.12 (1.536)
6) 진로개발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실행하는 능력	862 (100%)	6.50 (1.848)	606 (100%)	6.60 (1.837)

위의 청소년 6대 핵심역량의 수준을 전체 평균값으로 도출한 결과 1차 조사 응답자 862명의 청소년 핵심역량은 평균 6.83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핵심역량 수준이 평균 6.88로 나타나, 1차 조사에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I-20. 청소년 역량 6C에 대한 평균 수준 (명(%), 9점 척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청소년의 역량 6C에 대한 평균 수준	862 (100%)	6.83 (1.320)	606 (100%)	6.88 (1.276)

3)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삶의 질 수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OECD ‘더 나은 삶 지표’를 보다 청소년정책의 특성에 맞게 재범주화하였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는 세부 영역으로 ①주거, ②소득과 부, ③직업과 소득, ④사회적 관계, ⑤교육과 기술, ⑥환경의 질, ⑦공공참여와 거버넌스, ⑧건강상태, ⑨주관적 안녕, ⑩개인의 안전, ⑪일과 삶의 조화 등 1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아직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삶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소득과 부’ 지표를 제외하고 다른 10개의 세부지표를 청소년의 삶에 맞게 재개념화 하였다. 이에 따라 ①생활, ②진로, ③사회관계, ④교육, ⑤환경, ⑥공공참여와 상호협력, ⑦건강, ⑧주관적 만족, ⑨안전, ⑩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등의 10개 항목으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VI-21. 청소년 삶의 질 10개 세부영역의 주요 개념

OECD '더 나은 삶 지표'	조사영역	주요 개념
주거	생활	자기관리, 가족관계, 주거생활 등
소득과 부	-	-
직업과 소득	진로	희망진로에 대한 지식, 진로계획, 진로준비 등
사회적 관계	사회관계	대인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교육과 기술	교육	교육성과, 교육지원, 학교만족도, 교육받을 권리 등
환경의 질	환경	거주지역의 위생 및 청결도, 유해환경 등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공공참여와 상호협력	정치참여, 청소년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신뢰, 지역사회 소속감 등
건강상태	건강	개인의 신체건강, 충분한 수면, 식사의 규칙성 등
주관적 안녕	주관적 만족	자신감,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
개인의 안전	안전	안전한 등교 및 귀가길,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성 등
일과 삶의 조화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충분한 여가활동, 낮은 학업스트레스 등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각 문항 별로 9점 척도 기준으로 설문하였으며, 1차 조사 응답자 862명의 문항 별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생활' 영역이 평균 7.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7점대의 평균으로 나타난 영역은 '사회관계(7.10)', '안전(7.13)'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영역은 평균 5.76으로 가장 낮았으며, 유일하게 5점대인 영역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응답자 606명의 삶의 질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생활' 영역이 평균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차 조사에서보다는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회관계(7.15)'와 '안전(7.07)'의 순으로 삶의 질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영역은 평균 5.84로 10개 항목 중 유일하게 평균 5점대로 가장 낮았으며, 1차 조사에서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가장 낮은

수준의 항목임을 알 수 있다.

표 VI-22. 청소년 응답자의 삶의 질 수준 (명(%), 9점 척도)

청소년 삶의 질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1) 생활 자기관리, 가족관계, 주거생활 등	862 (100%)	7.30 (1.694)	606 (100%)	7.24 (1.689)
2) 진로 희망진로에 대한 지식, 진로계획, 진로준비 등	862 (100%)	6.29 (1.965)	606 (100%)	6.31 (1.989)
3) 사회관계 대인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862 (100%)	7.10 (1.774)	606 (100%)	7.15 (1.679)
4) 교육 교육성과, 교육지원, 학교만족도, 교육받을 권리 등	862 (100%)	6.64 (1.898)	606 (100%)	6.56 (1.885)
5) 환경 거주지역의 위생 및 청결도, 유해환경 등	862 (100%)	6.98 (1.729)	606 (100%)	6.91 (1.725)
6) 공공참여와 상호협력 정치참여,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신뢰, 지역사회 소속감 등	862 (100%)	6.57 (1.853)	606 (100%)	6.60 (1.741)
7) 건강 개인의 신체건강, 충분한 수면, 식사의 규칙성 등	862 (100%)	6.57 (2.038)	606 (100%)	6.58 (2.026)
8) 주관적 만족 영역 자신감,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	862 (100%)	6.67 (2.002)	606 (100%)	6.64 (1.969)
9) 안전 안전한 등하교 및 귀가길,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성 등	862 (100%)	7.13 (1.769)	606 (100%)	7.07 (1.772)
10)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충분한 여가활동, 낮은 학업스트레스 등	862 (100%)	5.76 (2.326)	606 (100%)	5.84 (2.355)

4.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1)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

본 연구에서 청소년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작적 개념 10개를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9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 862명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을 측정한 결과 평균 6.90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 606명의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이 평균 7.56으로 확인되었으며, 1차 조사 응답자보다 크게 웃도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23. 청소년 응답자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명(%), 9점 척도)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	862 (100%)	6.90 (1.376)	606 (100%)	7.56 (1.186)

2) 조사 시기(1차, 1~2차 모두 응답)별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별 인식수준

1차 조사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사회적 가치별로 측정한 결과, '안전' 가치가 평균 7.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으로 '인권(7.16)', '사회통합(7.10)', '환경(7.01)'이 평균 7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사회적 가치는 '지역경제의 균형'이며 평균 6.43인데, 다음으로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난 '공동체(6.67)', '상생과 협력(6.72)'의 평균 인식수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조사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사회적 가치별로 측정한 결과, '인권' 가치가 평균 8.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으로 '안전(8.18)', '의사

결정참여(8.07)'이 평균 8점대로 높게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인식 수준이 8점대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1~2차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식 수준이 낮은 사회적 가치를 찾아보면, '지역경제의 균형'이 유일하게 평균 6.93으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는 '공동체(7.01)', '노동인권(7.19)'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24. 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별 인식수준 (명(%), 9점 척도)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1) 인권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유지	862 (100%)	7.16 (1.647)	606 (100%)	8.19 (1.119)
2) 안전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방안 고려	862 (100%)	7.37 (1.475)	606 (100%)	8.18 (1.162)
3) 노동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862 (100%)	6.78 (1.762)	606 (100%)	7.19 (1.734)
4) 사회통합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862 (100%)	7.10 (1.640)	606 (100%)	7.47 (1.591)
5) 상생과 협력 학교, 지역 등 공동체에서 또래와의 상호협력, 청소년과 지역상권의 상생, 사회공헌	862 (100%)	6.72 (1.705)	606 (100%)	7.16 (1.764)
6) 공동체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862 (100%)	6.67 (1.776)	606 (100%)	7.01 (1.793)
7) 지역경제의 균형 공정경제, 동반성장, 공정한 분배, 합리적 소비, 지역상권 상생	862 (100%)	6.43 (1.819)	606 (100%)	6.93 (1.852)
8) 윤리와 평등 정직, 절제 등 윤리의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성 등에 대한 평등의식 개선	862 (100%)	6.85 (1.643)	606 (100%)	7.88 (1.381)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9)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862 (100%)	7.01 (1.634)	606 (100%)	7.48 (1.594)
10) 의사결정참여 정책 등 청소년 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862 (100%)	6.93 (1.692)	606 (100%)	8.07 (1.288)

5. 청소년활동의 경험 및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1) 청소년활동이 경험 및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경험이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의 값을 측정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585명의 사회적 가치 전체 인식수준은 평균 7.0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없는 277명의 사회적 가치 전체 인식수준의 평균 6.71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 응답자의 설문 결과,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415명의 사회적 가치 전체 인식수준은 평균 7.72로,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없는 191명의 사회적 가치 전체 인식 수준의 평균 7.20값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참여활동의 경험이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I-25. 청소년활동의 경험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명(%), 9점 척도)

	참여활동 경험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	있음	585 (67.9%)	7.00 (1.351)	415 (68.5%)	7.72 (1.127)
	없음	277 (32.1%)	6.71 (1.410)	191 (31.5%)	7.20 (1.232)

청소년의 참여활동 경험이 사회적 가치별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사회적 가치의 인식수준을 측정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전체 10개 사회적 가치의 항목에서 모두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있을 때의 인식수준이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인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결정참여’ 가치에서는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의 가치 인식수준(7.09)과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의 가치 인식수준(6.59) 간의 차이(0.5)가 가장 크게 나타나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노동인권’ 가치와 ‘사회통합’ 가치에서는 청소년 참여활동 여부에 따른 가치 인식수준의 차이(각 0.2, 0.2)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10개 사회적 가치의 항목에서 모두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참여’의 경우 청소년 활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가치 인식 수준 차이가 평균 0.85로 가장 크게 나타나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동체’ 가치는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평균 0.3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26. 청소년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별 인식수준 (명(%), 9점 척도)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참여활동 경험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1) 인권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있음	585 (67.9%)	7.28 (1.616)	415 (68.5%)	8.38 (0.980)
	없음	277 (32.1%)	6.91 (1.687)	191 (31.5%)	7.79 (1.285)
2) 안전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방안 고려	있음	585 (67.9%)	7.45 (1.436)	415 (68.5%)	8.33 (1.065)
	없음	277 (32.1%)	7.22 (1.546)	191 (31.5%)	7.86 (1.295)
3) 노동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있음	585 (67.9%)	6.86 (1.775)	415 (68.5%)	7.35 (1.724)
	없음	277 (32.1%)	6.60 (1.724)	191 (31.5%)	6.85 (1.712)
4) 사회통합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있음	585 (67.9%)	7.16 (1.632)	415 (68.5%)	7.62 (1.589)
	없음	277 (32.1%)	6.96 (1.652)	191 (31.5%)	7.15 (1.549)
5) 상생과 협력 학교, 지역 등 공동체에서 또래와의 상호협력, 청소년과 지역상권의 상생, 사회공헌	있음	585 (67.9%)	6.82 (1.680)	415 (68.5%)	7.32 (1.762)
	없음	277 (32.1%)	6.52 (1.744)	191 (31.5%)	6.81 (1.722)
6) 공동체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있음	585 (67.9%)	6.75 (1.794)	415 (68.5%)	7.12 (1.840)
	없음	277 (32.1%)	6.51 (1.731)	191 (31.5%)	6.76 (1.664)
7) 지역경제의 균형 공정경제, 동반성장, 공정한 분배, 합리적 소비, 지역상권 상생	있음	585 (67.9%)	6.53 (1.806)	415 (68.5%)	7.10 (1.839)
	없음	277 (32.1%)	6.21 (1.830)	191 (31.5%)	6.57 (1.831)
8) 윤리와 평등 정직, 절제 등 윤리의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성 등에 대한 평등의식 개선	있음	585 (67.9%)	6.92 (1.617)	415 (68.5%)	8.04 (1.322)
	없음	277 (32.1%)	6.69 (1.689)	191 (31.5%)	7.54 (1.446)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참여활동 경험	1차 조사 응답자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9)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있음	585 (67.9%)	7.08 (1.646)	415 (68.5%)	7.63 (1.571)
	없음	277 (32.1%)	6.87 (1.605)	191 (31.5%)	7.16 (1.598)
10) 의사결정참여 정책 등 청소년 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있음	585 (67.9%)	7.09 (1.637)	415 (68.5%)	8.34 (1.071)
	없음	277 (32.1%)	6.59 (1.758)	191 (31.5%)	7.49 (1.514)

2) 청소년활동의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 1차 조사 응답자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도와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의 참여도에 대하여 9점 척도 중 5점 이하를 '소극적 참여', 6점 이상을 '적극적 참여'로 구분하여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을 비교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가 적극적인 경우가 소극적인 경우보다 10개 사회적 가치 모두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과 협력' 가치는 참여활동에 적극적인 경우(7.02)가 소극적인 경우(5.89)에 비해 평균 차이가 0.1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참여활동의 적극성이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참여' 가치도 참여활동에 적극적인 경우(7.30)가 소극적인 경우(6.17)에 비해 평균 1.13의 차이를 보여 참여활동의 적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통합' 가치와 '환경' 가치는 참여활동에 적극적인 경우와 소극적인 경우의 인식 수준이 평균 0.6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참여활동 적극성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VI-27.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1차 조사 응답자)

(명(%), 9점 척도)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참여활동 경험	1차 조사 응답자	
		표본	평균
1) 인권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유지	소극적	101 (11.7%)	6.43 (1.774)
	적극적	463 (53.7%)	7.47 (1.513)
2) 안전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방안 고려	소극적	101 (11.7%)	6.86 (1.588)
	적극적	463 (53.7%)	7.57 (1.381)
3) 노동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소극적	101 (11.7%)	6.36 (1.764)
	적극적	463 (53.7%)	6.96 (1.773)
4) 사회통합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소극적	101 (11.7%)	6.54 (1.729)
	적극적	463 (53.7%)	7.30 (1.574)
5) 상생과 협력 학교, 지역 등 공동체에서 또래와의 상호협력, 청소년과 지역상권의 상생, 사회공헌	소극적	101 (11.7%)	5.89 (1.714)
	적극적	463 (53.7%)	7.02 (1.593)
6) 공동체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소극적	101 (11.7%)	6.00 (1.766)
	적극적	463 (53.7%)	6.90 (1.758)
7) 지역경제의 균형 공정경제, 동반성장, 공정한 분배, 합리적 소비, 지역상권 상생	소극적	101 (11.7%)	5.92 (1.747)
	적극적	463 (53.7%)	6.66 (1.780)
8) 윤리와 평등 정직, 절제 등 윤리의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성 등에 대한 평등의식	소극적	101 (11.7%)	6.14 (1.643)
	적극적	463	7.09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참여활동 경험	1차 조사 응답자	
		표본	평균
개선		(53.7%)	(1.540)
9)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소극적	101 (11.7%)	6.58 (1.687)
	적극적	463 (53.7%)	7.18 (1.625)
10) 의사결정참여 정책 등 청소년 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소극적	101 (11.7%)	6.17 (1.709)
	적극적	463 (53.7%)	7.30 (1.542)

3) 청소년활동의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1~2차 모두 응답자의 경우에도 청소년활동 참여도가 9점 척도 중 5점 이하인 경우 ‘소극적 참여’, 5점 초과인 경우 ‘적극적 참여’로 구분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을 비교하였다. 2차 조사 응답자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활동의 참여가 적극적인 경우가 소극적인 경우보다 10개 사회적 가치 모두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과 협력’ 가치의 경우 청소년 참여활동의 참여가 적극적인 경우(7.45)와 소극적인 경우(6.68)의 차이가 평균 1.13으로 크게 나타나 참여활동의 적극성이 ‘상생과 협력’가치 인식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윤리와 평등’가치는 청소년 참여활동의 적극성이 높은 집단보다 적극성이 낮은 집단에서 가치 인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참여’가치의 경우 청소년활동의 적극성과 관계없이 가치 인식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28. 청소년 응답자의 청소년활동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명(%), 9점 척도)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참여활동 경험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1) 인권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유지	소극적	80 (13.2%)	8.36 (1.082)
	적극적	322 (53.1%)	8.39 (0.955)
2) 안전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방안 고려	소극적	80 (13.2%)	8.45 (1.090)
	적극적	322 (53.1%)	8.30 (1.061)
3) 노동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소극적	80 (13.2%)	6.85 (1.930)
	적극적	322 (53.1%)	7.45 (1.671)
4) 사회통합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소극적	80 (13.2%)	7.00 (1.896)
	적극적	322 (53.1%)	7.76 (1.484)
5) 상생과 협력 학교, 지역 등 공동체에서 또래와의 상호협력, 청소년과 지역상권의 상생, 사회공헌	소극적	80 (13.2%)	6.68 (2.030)
	적극적	322 (53.1%)	7.45 (1.672)
6) 공동체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소극적	80 (13.2%)	6.21 (2.060)
	적극적	322 (53.1%)	7.34 (1.727)
7) 지역경제의 균형 공정경제, 동반성장, 공정한 분배, 합리적 소비, 지역상권 상생	소극적	80 (13.2%)	6.51 (2.050)
	적극적	322 (53.1%)	7.23 (1.778)
8) 윤리와 평등 정직, 절제 등 윤리의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성 등에 대한 평등의식 개선	소극적	80 (13.2%)	8.06 (1.408)
	적극적	322 (53.1%)	8.03 (1.310)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참여활동 경험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	
		표본	평균
9)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소극적	80 (13.2%)	6.98 (1.876)
	적극적	322 (53.1%)	7.78 (1.462)
10) 의사결정참여 정책 등 청소년 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소극적	80 (13.2%)	8.34 (1.211)
	적극적	322 (53.1%)	8.34 (1.045)

○———— 제7장 청소년활동의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변화에 대한 이중차분모형 분석

- 1.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 2.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별 인식 수준
- 3. 청소년활동별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청소년활동의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변화에 대한 이중차분모형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것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변화시킨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단순 사전 사후 비교는 집단차이와 시간차이가 혼재되어 있어 그 결과를 청소년활동 경험에 의한 순수한 효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경험여부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은 특정 기간 동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프로모션 등의 순수한 개입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모형이다(Abadie, 2005; Bertrand, Duflo & Mullainathan, 2002; Card & Krueger, 199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경험여부(횡단)로 두 집단을 구분하고, 두 측정시기(종단)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한 뒤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수식 1〉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

$$Y_{it} = \alpha + \beta_1(Treat \times Time) + \beta_2Treat + \beta_3Time + \beta_4X_{it} + \epsilon_{it}$$

Y_{it} = t시기에 청소년 i 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Treat$ = 청소년활동여부 (경험有=1, 無=0)

$Time$ = 기간더미(6월=0, 11월=1)

$Treat \times Time$ = 청소년활동경험의 순효과

성장기인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을 경험하지 않아도 교과과정, 가정교육, 개인경험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이중차분모형은 시간에 따른 일반적인 성장을 통제한 뒤 순수한 청소년활동이 사회적 가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6장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모형을 실시하였다. 수식 1은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적 가치 형성에 미치는 효과로 Y_{it} 는 청소년 i 의 t 시기에서의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을 나타낸다.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은 사회적 가치 10요소에 대한 인식을 평가한 값의 평균이다. $Treat$ 는 준집단의 청소년활동 경험여부이다. $Time$ 은 두 번의 설문조사 시점을 의미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장효과를 통제한다. $Treat \times Time$ 은 청소년활동 경험 여부($Treat$)와 기간($Time$)의 상호작용항이며,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적 가치 인식 형성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성을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치를 인지하고 체득하므로 연령은 사회적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일 것이다. 연령과 같이 청소년활동의 개입 없이도 사회적 가치 체득을 돕는 인적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인 X 로 성별, 연령, 성적, 핵심역량(6C)을 삽입하였다. 마지막으로 ϵ 는 오차항이다.

1.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청소년활동의 경험여부가 사회적 가치 전반적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연령, 성적, 핵심역량(6C)을 통제한 뒤 이중차분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이중차분모형은 준실험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청소년활동 경험여부(집단차이효과)’와 전체 집단의 전후 차이만을 의미하는 ‘기간효과(시점차이 효과)’를 제거한 청소년활동경험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순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이다.

그 결과(〈표 VII-1〉)를 보면, 청소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16.2%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162, p<0.01$). 반면,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 사회적 가치 인식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07, p=ns$).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인식 변화와 청소년활동 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 사이의 차이를 제거한, 순수한 청소년활동경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나타내었다($\beta=0.100, p<0.05$). 이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청소년활동 비경험 청소년에 비해 10%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표 VII-1.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구분	[모형 I-1] 청소년활동 경험여부가 사회적 가치 전반적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상수)	4.171 (0.369)		11.298
기간	0.418 (0.105)	0.162***	3.992
활동경험 여부	0.019 (0.090)	0.007	0.216
기간×활동경험 여부	0.270 (0.126)	0.100**	2.142
성별	0.147 (0.060)	0.056**	2.442
연령	-0.068 (0.019)	-0.082***	-3.611
성적	0.067 (0.032)	0.050**	2.107
핵심역량(6C)	0.531 (0.024)	0.529***	22.166
R^2 (수정된 R^2)	0.382 (0.378)	표본	1212

(* $p < 0.1$, ** $p < 0.05$, *** $p < 0.01$)

2.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별 인식 수준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의 경험여부가 사회적 가치 10요소의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성적, 핵심역량(6C)을 통제한 뒤 이중차분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VII-2>에 제시하였다.

준실험의 집단 차이 효과와 기간효과를 제거한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적 가치 인식 향상에 미친 순효과는 인권($\beta=0.092$, $p<0.1$), 안전($\beta=0.093$, $p<0.1$), 사회통합($\beta=0.087$, $p<0.1$), 윤리와 평등($\beta=0.112$, $p<0.05$), 의사결정참여($\beta=0.106$, $p<0.05$)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청소년활동 비경험 청소년에 비해 인권 9.2%, 안전 9.3%, 사회통합 8.7%, 윤리와 평등 11.2%, 의사결정참여 10.6% 향상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핵심요소로 꼽을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청소년활동경험의 순효과($\beta=0.042$, $p=ns$)뿐 아니라, 기간효과($\beta=0.050$, $p=ns$)와 준실험의 집단 차이 효과($\beta=0.026$, $p=ns$)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성장과정과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체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해 사회적 가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닌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해당 사회적 가치의 수준을 심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표 VII-2.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별 인식 수준

구분	[모형 I -2] 인권			[모형 I -3] 안전			[모형 I -4] 노동인권			[모형 I -5] 사회통합			[모형 I -6] 상상협력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상수)	5.142 (0.449)		11.443	5.707 (0.425)		13.438	3.398 (0.571)		5.949	3.920 (0.518)		7.563	3.444 (0.534)		6.446
기간	0.766 (0.127)	0.262***	6.008	0.569 (0.120)	0.214***	4.729	0.194 (0.162)	0.056	1.197	0.106 (0.147)	0.033	0.722	0.225 (0.152)	0.066	1.488
활동경험 여부	0.109 (0.110)	0.034	0.989	0.031 (0.104)	0.011	.295	0.025 (0.140)	0.007	0.176	-0.057 (0.127)	-0.017	-0.453	-0.003 (0.131)	-0.001	-0.026
기간×활동 경험여부	0.282 (0.154)	0.092*	1.839	0.262 (0.145)	0.093*	1.808	0.248 (0.195)	0.067	1.270	0.295 (0.177)	0.087*	1.667	0.231 (0.183)	0.064	1.262
성별	0.064 (0.073)	0.021	0.878	0.014 (0.069)	0.005	.201	0.150 (0.093)	0.042	1.611	0.085 (0.085)	0.026	1.002	0.263 (0.087)	0.074***	3.012
연령	-0.072 (0.023)	-0.077***	-3.163	-0.060 (0.022)	-0.070***	-2.767	-0.044 (0.029)	-0.039	-1.515	-0.041 (0.026)	-0.040	-1.564	-0.082 (0.27)	-0.075***	-3.016
성적	0.088 (0.039)	0.057**	2.262	0.033 (0.037)	0.024	.905	0.167 (0.049)	0.091***	3.385	0.036 (0.045)	0.021	0.814	0.070 (0.046)	0.038	1.511
핵심역량 (6C)	0.427 (0.029)	0.375***	14.666	0.380 (0.028)	0.366***	13.801	0.516 (0.0370)	0.379***	13.924	0.557 (0.034)	0.444***	16.579	0.641 (0.035)	0.477***	18.484
R_e^2 (수정된 R^2)	0.290 (0.286)	표본	1212	0.360 (0.232)	표본	1212	0.195 (0.190)	표본	1212	0.222 (0.217)	표본	1212	0.275 (0.271)	표본	1212

(* $p < 0.1$, ** $p < 0.05$, *** $p < 0.01$)

표 VII-2. 청소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별 인식 수준 (표 계속)

구분	[모형 I -7] 공동체			[모형 I -8] 지역경제균형			[모형 I -9] 윤리명등			[모형 I -10] 환경			[모형 I -11] 의사결정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상수)	2.956 (0.555)		5.321	3.898 (0.601)		6.486	4.305 (0.489)		8.801	4.829 (0.510)		9.465	4.114 (0.473)		8.700
기간	0.178 (0.158)	0.050	1.129	0.340 (0.170)	0.092**	1.993	0.712 (0.139)	0.228***	5.134	0.283 (0.145)	0.087*	1.955	0.806 (0.134)	0.256***	6.010
활동경험 여부	-0.100 (0.136)	-0.026	-0.738	0.036 (0.147)	0.009	0.248	-0.067 (0.120)	-0.020	-0.563	-0.056 (0.125)	-0.016	-0.448	0.278 (0.116)	0.082**	2.410
기간×활동 경험여부	0.159 (0.190)	0.042	0.839	0.248 (0.205)	0.064	1.208	0.369 (0.167)	0.112**	2.210	0.257 (0.174)	0.075	1.471	0.350 (0.162)	0.106**	2.167
성별	0.273 (0.091)	0.074***	3.008	0.428 (0.098)	0.112***	4.359	0.080 (0.080)	0.025	1.006	0.087 (0.083)	0.026	1.041	0.028 (0.077)	0.009	0.364
연령	-0.071 (0.028)	-0.063**	-2.539	-0.095 (0.030)	-0.080***	-3.109	-0.047 (0.025)	-0.048*	-1.909	-0.116 (0.026)	-0.112***	-4.498	-0.048 (0.024)	-0.048**	-1.989
성적	0.087 (0.048)	0.046*	1.806	0.029 (0.052)	0.015	0.557	0.093 (0.042)	0.057**	2.205	0.042 (0.044)	0.024	0.948	0.027 (0.041)	0.016	0.667
핵심역량 (6C)	0.679 (0.036)	0.487***	18.836	0.562 (0.039)	0.389***	14.426	0.455 (0.032)	0.373***	14.349	0.591 (0.033)	0.465***	17.844	0.500 (0.031)	0.407***	16.297
R_n^2 (수정된 R^2)	0.273 (0.269)	표본	1212	0.209 (0.204)	표본	1212	0.264 (0.260)	표본	1212	0.262 (0.257)	표본	1212	0.322 (0.318)	표본	1212

(* $p < 0.1$, ** $p < 0.05$, *** $p < 0.01$)

3. 청소년활동별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청소년활동에는 자유학기제, 청소년자원봉사, 국제교류활동, 청소년 정책참여,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존재한다. 앞서 확인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종류에 따라 효과가 있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영역이 일정부분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에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청소년활동별로 참여 여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을 이중차분모형을 분석하였다.

준실험의 집단차이 효과와 기간효과를 제거한 각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적 가치 인식 향상에 미친 순효과는 자유학기제($\beta=0.087, p<0.05$)와 방과후아카데미($\beta=0.066, p<0.05$)에서만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8.7% 상승하였고, 방과후아카데미를 수강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6.6%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가치 체득에 효과적인 청소년활동이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체득에 유의한 시기가 중등교육 시기임을 시사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교과시간 내에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 및 체육 활동을 하거나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 시행 중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으므로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청소년이 공공의 이익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체득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방과후아카데미는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거나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방과 후에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종합 돌봄 서비스이다. 해당 활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비

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활동 경험의 순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자유학기제와 방과후아카데미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에 따라 청소년들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 제고효과가 청소년시설보다 학교현장에서 더 성과가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VII-3. 각 청소년활동별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구분	[모형 II-1] 자유학기제			[모형 II-2] 청소년자원봉사			[모형 II-3] 국제교류활동			[모형 II-4] 청소년 정책참여			[모형 II-5] 방과후아카데미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t												
(상수)	4.186 (0.386)		10.859	4.237 (0.367)		11.541	4.220 (0.368)		11.481	4.157 (0.366)		11.345	4.265 (0.374)		11.408
기간	0.501 (0.072)	0.195***	7.000	0.517 (0.080)	0.201***	6.447	0.590 (0.061)	0.229***	9.718	0.555 (0.079)	0.216***	6.997	0.556 (0.063)	0.216***	8.850
활동경험 여부	-0.120 (0.089)	-0.044	-1.341	-0.011 (0.084)	-0.004	-0.127	-0.148 (0.165)	-0.029	-0.899	0.131 (0.084)	0.051	1.565	-0.226 (0.122)	-0.080*	-1.860
기간×활동 경험여부	0.310 (0.125)	0.087**	2.488	0.175 (0.117)	0.061	1.570	0.179 (0.231)	0.025	0.778	0.100 (0.117)	0.033	0.856	0.344 (0.172)	0.086**	1.998
성별	0.141 (0.060)	0.053**	2.328	0.146 (0.061)	0.055**	2.410	0.141 (0.061)	0.053**	2.328	0.148 (0.060)	0.056**	2.460	0.147 (0.060)	0.055**	2.427
연령	-0.069 (0.020)	-0.034***	-3.463	-0.072 (0.019)	-0.035***	-3.860	-0.073 (0.019)	-0.035***	-3.883	-0.069 (0.019)	-0.034***	-3.670	-0.074 (0.019)	-0.030***	-3.883
성적	0.063 (0.032)	0.047**	1.979	0.068 (0.032)	0.050**	2.113	0.068 (0.032)	0.050**	2.105	0.065 (0.032)	0.045**	2.049	0.066 (0.032)	0.049**	2.055
핵심역량(6C)	0.542 (0.024)	0.540***	22.689	0.536 (0.024)	0.534***	22.374	0.541 (0.024)	0.539***	22.625	0.530 (0.024)	0.528***	22.140	0.541 (0.024)	0.538***	22.716
R^2 (수정된 R^2)	0.380(0.376)			0.379(0.375)			0.377(0.373)			0.381(0.378)			0.379(0.375)		
표본 (활동경험자)	1212(403)			1212(566)			1212(84)			1212(555)			1212(162)		

(* $p < 0.1$, ** $p < 0.05$, *** $p < 0.01$)

표 VII-3. 각 청소년활동별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 (표 계속)

구분	[모형 II -6] 청소년어울림마당			[모형 II -7]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모형 II -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모형 II -9]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i>t</i>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i>t</i>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i>t</i>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i>t</i>
(상수)	4.207(0.368)		11.426	4.206(0.368)		11.444	4.203(0.367)		11.439	4.211(0.368)		11.434
기간	0.599(0.067)	0.233***	8.914	0.583(0.061)	0.226***	9.490	0.607(0.060)	0.236***	10.130	0.596(0.060)	0.231***	9.940
활동경험 여부	-0.016(0.097)	-0.005	-0.163	-0.069(0.139)	-0.015	-0.492	0.169(0.208)	0.027	0.809	0.008(0.201)	0.001	0.042
기간×활동 경험여부	0.013(0.137)	0.003	0.098	0.227(0.205)	0.035	1.108	-0.108(0.287)	-0.013	-0.375	0.155(0.284)	0.018	0.545
성별	0.143(0.061)	0.054**	2.358	0.144(0.061)	0.054**	2.383	0.143(0.061)	0.054**	2.366	0.145(0.061)	0.055**	2.386
연령	-0.072(0.019)	-0.088***	-3.828	-0.071(0.019)	-0.087***	-3.781	-0.072(0.019)	-0.088***	-3.838	-0.072(0.019)	-0.087***	-3.813
성적	0.066(0.032)	0.049**	2.059	0.066(0.032)	0.049**	2.063	0.067(0.032)	0.049**	2.088	0.066(0.032)	0.049**	2.060
핵심역량 (6C)	0.540(0.024)	0.538***	22.524	0.538(0.024)	0.536***	22.453	0.539(0.024)	0.537***	22.626	0.538(0.024)	0.536***	22.578
R^2 (수정된 R^2)	0.376(0.373)			0.377(0.373)			0.377(0.373)			0.377(0.373)		
표본 (활동경험 자)	1212(291)			1212(110)			1212(53)			1212(54)		

(* $p < 0.1$, ** $p < 0.05$, *** $p < 0.01$)

○ — 제8장 청소년활동에 따른 공동체의식 변화에 대한 행동실험 분석

- 1. 행동실험을 위한 측정도구
- 2. 행동실험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
- 3. 추정 결과
- 4. 소결론



청소년활동에 따른 공동체의식 변화에 대한 행동실험 분석

앞선 청소년 조사자료의 분석결과,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변화 중 공동체의식은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가치가 단순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또는 이타심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독재자 게임이란,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여하고, 피실험자로 하여금 주어진 금액을 피실험자 자신의 몫과 (게임에서 지정된) 제 3자의 몫으로 마음대로 나누도록 지시한 뒤, 피실험자의 선택을 관찰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피실험자가 마치 독재자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금액을 본인과 제 3자 사이에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독재자 게임이라고 불린다. 이 게임에서 피실험자가 제 3자의 몫으로 배분한 금액의 비중은 피실험자가 제 3자에 대한 배려 또는 이타심의 척도로 해석된다. 만약 피실험자가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적 성향이 강하다면 자신에게 모든 금액을 배분하고 제 3자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피실험자가 제 3자의 효용만을 고려하는 이타적 성향이 강하다면 자신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제 3자에게 배분할 것이다. 즉, 독재자 게임은 본인과 타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피실험자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며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1. 행동실험을 위한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독재자 게임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가상으로 부여하고, 이 금액을 ① 본인과 같은 학급에 속한 임의의 친구, ②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다른 학급에 속한 임의의 친구, ③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를 다니는 임의의 친구와 자유롭게 나누어 가지도록 지시하였다. 정확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항 10]

누군가 귀하께 ○○만원을 주면서 귀하의 같은 반 학생 1명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몫과 같은 반 학생의 몫으로 각각 얼마를 배정하시겠습니까?

본인 _____ 원 같은 반 학생 _____ 원

[문항 11]

누군가 귀하께 ○○만원을 주면서 귀하의 같은 학교의 다른 반 학생 1명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몫과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의 몫으로 각각 얼마를 배정하시겠습니까?

본인 _____ 원 같은 학교의 다른 반 학생 _____ 원

[문항 12]

누군가 귀하께 ○○만원을 주면서 귀하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 1명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몫과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의 몫으로 각각 얼마를 배정하시겠습니까?

본인 _____ 원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 _____ 원

위 문항에서 주어진 금액(○○원)은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학생별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금액 수준을 무작위로 배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가상적 질문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답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³⁴⁾ 본 연구는 위 질문에서 응답자가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의 다른 반 친구,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친구에게 기부한 비중을 각각 응답자가 자신이 속한 학급, 학교, 지역에 대해 부여하는 배려심 또는 공동체 의식의 척도로 해석한다.

〈표 VIII-1〉은 응답자가 같은 반 학생, 같은 학교의 다른 반 친구,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친구에게 기부한 금액의 비중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는 주어진 금액의 약 45%를 기부한 반면(학급 기부율), 같은 학교의 다른 반 친구에게는 약 41.8%를 기부하였고(학교 기부율),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친구에게는 약 38.1%를 기부하였다(타교 기부율).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먼 대상일수록 낮은 금액을 기부하였다고 요약된다. 이는 독재자 게임에서의 기부액은 사회적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실험경제학 문헌의 일반적 견해(Goeree et al., 2010)와 일관된 결과이다. 학생들이 가상적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처럼 응답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표 VIII-1〉에 따르면, 상당수 학생들이 주어진 금액을 정확히 절반씩 자신과 지정된 친구의 몫으로 배분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반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67.4%가 정확히 절반을 친구에게 배분하였고, 같은 학교의 다른 반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와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34) 일반적으로 독재자 게임은 실제 현금을 부여하고 게임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예산 제약 등의 문제로 청소년들에게 가상적 질문(hypothetical question)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응답결과가 청소년들의 실제 행동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독재자 게임에서는 주어진 금액이 커질수록 타인의 몫으로 배분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Larney et al., 2019). 만약 본 연구의 가상적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금액이 커질수록 타인에게 배분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면, 청소년들이 (적어도 불완전하게나마) 자신의 실제 행동과 유사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도 각각 61.5% 및 55.1%가 정확히 절반을 배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지정된 친구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급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5.7%가 전혀 기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친구나 지역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 약 8.6% 및 14.3%가 기부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평균 기부율의 경우에서 관찰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먼 대상일수록 기부 의사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끝으로 지정된 친구에게 모든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그 대상과 상관없이 1% 내외로 미미한 편이었다.

표 VIII-1. 행동실험 응답결과

구분	학급 기부율	학교 기부율	타교 기부율
평균	0.450	0.418	0.381
비중	0	0.057	0.086
	(0, 0.5)	0.208	0.253
	0.5	0.674	0.615
	(0.5, 1)	0.048	0.036
	1	0.012	0.010
관측치 수	1,468	1,468	1,468

* 자료: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1, 2차 설문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계산

2. 행동실험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이 <표 VIII-1>과 같이 측정된 청소년의 학급, 학교, 지역 친구에 대한 공동체 의식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식 2>의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모형을 고려한다.

$$\langle \text{수식 2} \rangle \quad Y_{it} = \beta_0 + \beta_1 D_{it} + X_{it} \beta_2 + \tau_t + \alpha_i + \epsilon_{it}$$

Y_{it} = t 시점에 청소년 i 가 응답한 기부율(0 이상 1 이하)

D_{it} = 최근 6개월 간 청소년활동 경험(예=1, 아니오=0)

X_{it} = t 시점에 청소년 i 의 각종 특성

τ_t = 시점 t 의 고정효과(fixed effect)

α_i = 청소년 i 의 고정효과(fixed effect)

ϵ_{it} = 오차항

〈수식 2〉에서 D_{it} 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X_{it} 는 t 시점에 측정된 청소년 i 의 특성으로 성별, 학교급 및 학년,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특히, 독재자 게임 실험에서 제시된 금액(1만원, 5만원, 10만원)을 더미변수 형태로 통제하여 실험상의 금액 크기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τ_t 는 시점 고정효과(또는 시점별 더미변수)로 조사시점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α_i 는 개인별 고정효과(또는 개인별 더미변수)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개인의 관측 불가능하지만 분석 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 고정적 요인(예: 성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끝으로 ϵ_{i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수식 2〉를 최소제곱법(OLS)으로 추정하였고, 표준오차는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과 (자료의 패널 구조를 고려하여) 각 청소년 내에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에 강건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3. 추정 결과

〈표 VIII-2〉는 〈수식 2〉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1), (2)열은 종속변수를 학급 기부율로 사용한 경우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3), (4)열과 (5), (6)열은 종속변수를 각각 학교 기부율과 타교 기부율로 사용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1), (3), (5)열은 개인 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2), (4), (6)열은 개인 고정효과를 통제한 경우의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학급 기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1)열의 결과부터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경험 여부와 학급 기부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점추정치도 0.008로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이는 성별, 연령(학교급 및 학년), 지역 등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급 친구를 더 배려하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열에서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금액별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금액이 1만원인 경우에 비하여,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제시된 경우 기부율이 약 2.9% 포인트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각주 (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험경제학 문헌(Larney et al., 2019)에 따르면 주어진 금액이 커질수록 기부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상적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비교적 실제 상황처럼 응답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2차 조사 더미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추정되었다. 평균적으로 청소년들은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기부율이 약 2.2% 포인트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동일한 실험을 반복할 때 기부율이 하락하는 경향도 관련 문헌(Engel, 2011)에서 잘 알려진 경향이다. 금액별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가 비교적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연령별로는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기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에는 기부율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기부율이 (중학교 1학년 대비) 약 4.2% 포인트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고, 이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유사한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대구, 광주에서 서울 대비 기부율이 5~6% 포인트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VIII-2〉의 (2)열에서는 청소년 개인별로 정의된 더미변수들을 추가하여 각 개인별 고정적인 요인을 통제하였다. (1)열에서 사용된 모든 설명변수들은 완벽한 공선성(perfect collinearity) 문제로 생략되었다. 각 개인별 관측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고정적 요인을 통제한 경우, 청소년활동 경험 여부와 학급 기부율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결정계수(R-squared)는 (1)열의 0.024에서 (2)열의 0.778로 대폭 증가하였다. 개인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 표본 내 학급 기부율 변동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었음을 보여준다.

(1), (2)열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활동 경험이 같은 반 친구를 배려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학교 다른 반 친구를 배려하는 정도의 경우를 분석한 (3), (4)열도 (1), (2)열과 결과가 대동소이하다. 청소년활동 경험이 같은 반 친구나 같은 학교의 다른 반 친구를 배려하는 정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친구에 대한 배려 정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5)열의 경우 청소년활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가 발견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학교급 및 학년), 지역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활동 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같은 지역 다른 학교 학생에 대한 기부율이 약 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열에서 개인 고정효과를 통제한 경우, 추정된 효과는 1.8% 포인트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열과 (6)열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활동 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하여 지역 수준의 공동체 의식(또는

같은 지역 다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 수준)이 높지만,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청소년활동 경험에 의한 인과적 영향이라기보다는 개인 고정효과로 통제된 응답자의 미관찰된 특성(예: 성격)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III-2. 추정 결과

종속변수 모형	학급 기부율		학교 기부율		타교 기부율	
	(1)	(2)	(3)	(4)	(5)	(6)
청소년활동	0.008 (0.011)	0.024 (0.022)	0.012 (0.012)	0.036 (0.027)	0.030** (0.013)	0.018 (0.029)
금액: 5만원 (기준: 1만원)	-0.029** (0.012)		-0.013 (0.013)		-0.030** (0.014)	
금액: 10만원	-0.029** (0.012)		-0.015 (0.013)		-0.032** (0.014)	
2차 조사 (기준: 1차 조사)	-0.022*** (0.008)		-0.021** (0.008)		-0.033*** (0.009)	
여성 (기준: 남성)	0.019 (0.012)		0.014 (0.013)		0.024* (0.014)	
학년: 중2 (기준: 중1)	-0.021 (0.026)		-0.016 (0.030)		-0.008 (0.032)	
학년: 중3	-0.042* (0.026)		-0.038 (0.030)		-0.033 (0.032)	
학년: 고1	-0.040 (0.026)		-0.048 (0.032)		-0.046 (0.033)	
학년: 고2	-0.041* (0.024)		-0.047 (0.029)		-0.052* (0.031)	
학년: 고3	-0.043* (0.024)		-0.050* (0.029)		-0.047 (0.030)	
지역: 부산 (기준: 서울)	-0.038 (0.029)		-0.041 (0.033)		-0.035 (0.035)	
지역: 대구	-0.052** (0.026)		-0.043 (0.030)		-0.028 (0.034)	
지역: 인천	-0.028 (0.031)		-0.053 (0.033)		-0.049 (0.040)	

종속변수	학급 기부율		학교 기부율		타교 기부율	
지역: 광주	-0.053*		-0.027		-0.033	
	(0.031)		(0.031)		(0.036)	
지역: 대전	-0.045		-0.040		-0.053	
	(0.029)		(0.032)		(0.038)	
지역: 울산	-0.023		-0.027		0.006	
	(0.033)		(0.037)		(0.041)	
지역: 세종	-0.044		-0.042		-0.035	
	(0.032)		(0.034)		(0.035)	
지역: 경기	-0.060*		-0.041		-0.011	
	(0.035)		(0.037)		(0.042)	
지역: 강원	-0.040		-0.038		-0.072**	
	(0.030)		(0.031)		(0.035)	
지역: 충북	-0.056		-0.034		-0.041	
	(0.035)		(0.033)		(0.039)	
지역: 충남	-0.041		-0.013		-0.029	
	(0.028)		(0.030)		(0.035)	
지역: 전북	-0.026		-0.011		-0.008	
	(0.028)		(0.030)		(0.034)	
지역: 전남	-0.031		-0.014		0.004	
	(0.030)		(0.029)		(0.036)	
지역: 경북	-0.016		-0.003		-0.006	
	(0.026)		(0.028)		(0.033)	
지역: 경남	-0.029		-0.005		-0.017	
	(0.035)		(0.038)		(0.043)	
지역: 제주	-0.009		-0.036		-0.011	
	(0.039)		(0.041)		(0.046)	
개인 고정효과	통제 안함	통제	통제 안함	통제	통제 안함	통제
관측치 수	1,468	1,468	1,468	1,468	1,468	1,468
결정계수	0.024	0.778	0.020	0.776	0.036	0.804

* 자료: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1, 2차 설문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계산

*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의미함. 통계적 유의성: 0.1(*), 0.05(**), 0.01(***)

4. 소결론

본 장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5개월의 시차를 두고 최근 1년 내외의 청소년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독재자 게임으로 측정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청소년활동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활동 척도는 단순히 최근 1년 내외의 경험 여부만을 측정하였으므로, 청소년활동의 강도(예: 기간,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활동이 촉진하는 공동체 의식이 독재자 게임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성격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의 추정결과 중 일부는 청소년기 사회적 가치 전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먼 대상일수록(즉, 같은 반 친구보다는 다른 반 친구에게, 같은 학교 친구보다는 다른 학교 친구에게) 배려를 덜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감소폭이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끝으로, 비록 청소년활동의 인과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친구에게 더 배려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는 다른 학교 학생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학생들이 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제9장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IPA 분석

- 1. 조사개요 및 IPA분석 방법
-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중요도 인식
- 3.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실행정도 인식
- 4.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수단별 전문가 의견
- 5. IPA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 6. 소결론

1. 조사개요 및 IPA 분석 방법

지금까지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경험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 혹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정도와 실행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심층분석하고자 하였다. IPA를 수행하기 위해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전문가 대상 웹조사를 승인받았다³⁵⁾.

본 조사의 응답자는 2019년부터 창설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학계,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활동 분야), 청소년시설(보호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전체 사례수는 519명이며, 남자 224명(47.0%), 여자 275명(53.0%)이다. 본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36.8%), 30대(27.2%)와 50대(22.2%)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지역은 17개 시도에 고르게 분포했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32.2%), 석사 졸업(20.6%),

35) 본 조사는 20년 9월 14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202002-HR-고유-001) 통보를 받음.

박사 졸업(31.8%)이 전체 응답자의 84.6%를 차지했으며 대다수가 6년 이상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72.3%) 응답자의 대다수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학력자이었다. 응답자는 교수 및 연구직으로 학계에서 근무하거나(20.2%),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12.9%), 초·중·고등학교(1.9%), 청소년시설(청소년활동 분야, 44.7%), 청소년시설(보호복지 분야, 20.2%)에 근무하고 있었다. 본 조사가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만큼 청소년활동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전체의 44.7%).

표 IX-1. 응답자 특성

분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44	47.0
	여자	275	53.0
연령대	20세 ~ 29세	60	11.6
	30세 ~ 39세	141	27.2
	40세 ~ 49세	191	36.8
	50세 ~ 59세	115	22.2
	60세 이상	12	2.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2
	전문대학 졸업	13	2.5
	대학교 졸업	167	32.2
	석사 수료	20	3.9
	석사 졸업	107	20.6
	박사 수료	41	7.9
	박사 졸업	165	31.8
	기타	5	1.0
업무 경력	1년 이내	5	1.0
	1년 이상 ~ 2년 미만	17	3.3
	2년 이상 ~ 3년 미만	28	5.4

분류	구분	빈도	비율(%)
	3년 이상 ~ 4년 미만	40	7.7
	4년 이상 ~ 5년 미만	31	6.0
	5년 이상 ~ 6년 미만	23	4.4
	6년 이상	375	72.3
소속 기관	학계(교수 및 연구직)	105	20.2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67	12.9
	초·중·고등학교 교원	10	1.9
	청소년시설(청소년 활동 분야)	232	44.7
	청소년시설(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105	20.2
근무 지역	서울특별시	83	16.0
	부산광역시	36	6.9
	대구광역시	23	4.4
	인천광역시	19	3.7
	광주광역시	17	3.3
	대전광역시	22	4.2
	울산광역시	18	3.5
	세종특별자치시	31	6.0
	경기도	52	10.0
	강원도	23	4.4
	충청북도	36	6.9
	충청남도	41	7.9
	전라북도	23	4.4
	전라남도	27	5.2
	경상북도	24	4.6
	경상남도	25	4.8
	제주특별자치도	19	3.7

본 조사는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요소별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각 사회적 가치 요소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 네 가지를 선별하여 그 필요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청소년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 요소 각각의 중요도(청소년에게 중요한 정도)와 실행정도(현재 청소년활동 분야에서의 실행정도)를 각각 9점 척도(1~9점)로 평가하였다. 이후 수집된 중요도와 실행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X-1. IPA 매트릭스

IPA 매트릭스는 유지강화(I 사분면), 중점개선(II 사분면), 점진개선(III 사분면), 지속유지(IV 사분면)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IX-1). I 사분면은 우선적으로 체득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면서 현재 청소년활동에서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 요소가 위치하게 된다. 해당 영역에 위치한 요소는 사회적 가치로서 중요도와 실행정도가 높아 현재 실행이 완만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실행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II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요소가 위치하게 되며, 중점적으로 개선해 유지강화 영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영역이다. III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정도 모두 낮은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IV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은 반면, 실행정도는 높은 영역으로 해당 가치에 대한 충분한 활동이 존재해 일정 수준의 가치를 실현한 영역이며 더불어 실행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먼저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실행정도를 확인하여 집중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가치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학계, 정부기관, 교원, 청소년시설 등 소속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각 분야 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 10요소의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중요도 인식

IPA에 앞서 청소년활동에 따른 각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에 대해 청소년 전문가가 지닌 인식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전문가는 학계,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교원(초·중·고등학교), 활동분야(청소년시설 등), 보호복지분야(청소년 시설 등)로 구분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한 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순서는 표 IX-2에, 각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평균)는 표 IX-3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전문가가 평가한 사회적 가치 10요소의 중요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2.48$, $p<0.001$). 인권의 중요도는 8.17로 사회적 가치 10요소 중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으며, 윤리와 평등(7.91), 사회통합(7.90), 상생과 협력(7.76), 환경(7.73), 공동체(7.45), 노동인권(7.41), 지역경제의 균형(6.89)보다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다. 인권 다음으로는 안전(8.13)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으며, 안전은 상생과 협력, 환경, 공동체, 노동인권, 지역경제의 균형보다 유의하게 중요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은 가치는 지역경제의 균형(6.89)으로 그 중요도가 다른 모든 사회적 가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학계 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 10요소는 그 중요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6.09$, $p<0.001$), 인권(8.18), 안전(8.05), 사회통합(7.88)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인권은 환경(7.62), 상생과 협력(7.60), 의사결정참여(7.59), 노동인권(7.26), 공동체(7.23), 지역경제와 균형(6.44)보다 유의하게 더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고, 안전은 노동인권, 공동체, 지역경제와 균형보다 유의하게 더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도가 낮은 사회적 가치는 지역경제의 균형(6.44), 공동체(7.23), 노동인권(7.26)으로 지역경제의 균형을 중요도는 다른 모든 가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를 요소마다 다른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1.88, p<0.001$). 인권(8.30)과 안전(8.15), 윤리와 평등(8.03)을 10개의 사회적 가치 요소 중 가장 주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인권은 상생과 협력(7.66), 공동체(7.61), 노동인권(7.19), 지역경제와 균형(6.73)보다 유의하게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도가 낮은 사회적 가치는 지역경제의 균형(6.73), 노동인권(7.19), 공동체(7.61)이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평가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는 요인별로 유의하지 않았다($F=1.33, p=0.233$). 교원은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8.50).

청소년시설 활동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가 각 요소별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F=17.27, p<0.001$). 활동분야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사회적 가치는 의사결정참여(8.28)로, 사회통합(7.86), 윤리와 평등(7.84), 상생과 협력(7.84), 환경(7.72), 공동체(7.54), 노동인권(7.46), 지역경제의 균형(7.06)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인식한 인권(8.13)은 환경, 공동체, 노동인권, 지역경제와 균형보다 유의하게 더 중요하였고, 3순위인 안전(7.97)은 공동체, 노동인권, 지역경제와 균형보다 유의하게 중요하였다.

청소년시설 보호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를 평가한 값이 요소별로 유의하게 달랐다($F=15.11, p<0.001$). 보호복지분야 전문가는 안전(8.51)을 청소년이 체득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았고, 안전이 중요한 정도는 사회통합(8.00), 환경(7.83), 상생과 협력(7.82), 노동인권(7.63), 공동체(7.32), 지역경제의 균형(7.0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보호복지분야 전문가가 중요하게 인식한 사회적 가치는 인권(8.19)과 윤리와 평등(8.18)이었다. 전문가는 두 가치를 노동인권, 공동체, 지역경제의 균형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노동인권, 공동체, 지역사회의 균형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

요하지 않은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공동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앞선 결과(DID 결과 등)와 일치하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전문가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X-2. 전문분야별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

순위	전체	학계	공공기관	교원	활동분야	보호복지분야
1	인권	인권	인권	안전	의사결정참여	안전
2	안전	안전	안전	윤리와 평등	인권	인권
3	의사결정참여	사회통합	윤리와 평등	사회통합	안전	윤리와 평등
4	윤리와 평등	윤리와 평등	사회통합	환경	사회통합	의사결정참여
5	사회통합	환경	의사결정참여	인권	윤리와 평등	사회통합
6	상생과 협력	상생과 협력	환경	의사결정참여	상생과 협력	환경
7	환경	의사결정참여	상생과 협력	상생과 협력	환경	상생과 협력
8	공동체	노동인권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노동인권
9	노동인권	공동체	노동인권	노동인권	노동인권	공동체
10	지역경제의 균형					

■ 1순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치임

다음으로 청소년 전문가가 근무하는 환경(분야)에 따라 각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지 확인하였다(표 IX-3). ANOVA 분석결과, 안전($F=5.00, p=0.001$)과 지역경제의 균형($F=3.97, p=0.003$), 윤리와 평등($F=3.18, p=0.013$), 의사결정참여($F=6.83, p<0.001$)에 대한 중요도를 전문가가 근무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활동분야 전문가(7.97)나 학계 전문가(8.05)보다 보호복지분야 전문가(8.51)가 안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지역경제의 균형의 경우, 학계 전문가는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반면(6.44), 활동분야 전문가(7.06)와 보호복지분야 전문가(7.03)는 그 가치의 중요도를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윤리와 평등은 학계 전문가(7.66)보다 보호복지분야 전문가(8.18)에게 더 중요도를 인정받았고, 의사결정 참여는 학계 전문가(7.59)보다 활동분야 전문가(8.28)가 그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근무분야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평가된 사회적 가치 요소는 소수였다. 그러나 근무분야별로 중요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학계가 그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가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계와 현장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중 학계와 현장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의사결정참여임을 보여준다.

표 IX-3. 중요도 ANOVA 분석결과 (9점 만점)

	전체	학계	공공기관	교원	활동분야	보호복지분야	F	사후분석
인권	8.17	8.18	8.30	8.20	8.13	8.19	0.37	
안전	8.13	8.05	8.15	8.50	7.97	8.51	5.00**	학계, 활동 < 보호복지
노동인권	7.41	7.26	7.19	7.30	7.46	7.63	1.53	
사회통합	7.90	7.88	7.88	8.30	7.86	8.00	0.61	
상생과 협력	7.76	7.60	7.66	7.80	7.84	7.82	1.00	
공동체	7.45	7.23	7.61	7.80	7.54	7.32	1.81	
지역경제의 균형	6.89	6.44	6.73	7.20	7.06	7.03	3.97**	학계 < 활동, 보호복지
윤리와 평등	7.91	7.66	8.03	8.40	7.84	8.18	3.18*	학계 < 보호복지
환경	7.73	7.62	7.75	8.30	7.72	7.83	0.78	
의사결정참여	8.03	7.59	7.84	7.90	8.28	8.03	6.83***	학계 < 활동
F	52.48***	16.09***	11.88***	1.33	17.27***	15.11***		

* $p < 0.05$, ** $p < 0.01$, *** $p < 0.001$

3.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 실행정도 인식

청소년활동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행수준을 청소년 전문가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계,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교원(초·중·고등학교), 활동분야(청소년시설 등), 보호복지분야(청소년시설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10요소의 실행정도를 1~9점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한 사회적 가치가 실행되는 정도를 표 IX-4(순위)와 표 IX-5(평균)에 제시하였다.

전체 전문가가 평가한 사회적 가치의 실행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6.27, p<0.001$). 청소년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 요소 중 안전이 가장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6.47), 안전은 사회통합(5.98), 의사결정참여(5.96), 윤리와 평등(5.73), 상생과 협력(5.71), 환경(5.56), 공동체(5.49), 노동인권(5.36), 지역경제의 균형(5.06)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실행되고 있었다.

학계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 요소별로 실행정도를 다르게 평가하였는데($F=7.27, p<0.001$), 안전(6.11)이 가장 실행이 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였으며, 다음으로 인권(5.74)과 사회통합(5.58)의 실행정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안전은 환경(5.29), 윤리와 평등(5.23), 상생과 협력(5.22), 의사결정참여(5.09), 공동체(5.00), 노동인권(4.99), 지역경제의 균형(4.40)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인권은 두 번째로 실행이 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로 5.74점이었다. 실행정도의 중앙치가 5점임을 감안할 때, 학계 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행정도가 활발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가 평가한 사회적 가치의 실행정도는 요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93, p<0.001$). 안전(5.97)과 인권(5.52), 사회통합(5.15), 의사결정참여(5.07)는 사회적 가치 요소 중 가장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가치로 나타났다. 1순위인 안전은 윤리와 평등

(5.03), 환경(4.93), 상생과 협력(4.78), 공동체(4.70), 노동인권(4.58), 지역경제의 균형(4.45)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평가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실행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64$, $p=0.757$). 교원이 인식하는 실행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안전(7.00)이었으며, 인권(7.00)이 공동 1순위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활동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별로 실행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F=12.15$, $p<0.001$). 활동분야 전문가는 안전(6.75)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 중 가장 실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가치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는 인권(6.66), 의사결정참여(6.56), 사회통합(6.44), 상생과 협력(6.22)이 실행이 잘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1순위인 안전은 윤리와 평등(6.14), 환경(5.99), 공동체(5.96), 노동인권(5.69), 지역경제의 균형(5.47)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실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보호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도 사회적 가치의 실행정도를 요소별로 다르게 인식하였다($F=5.55$, $p<0.001$). 보호복지분야 전문가가 가장 실행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는 안전(6.47)이었으며, 인권(6.29), 의사결정참여(5.99), 사회통합(5.85), 윤리와 평등(5.72)이 그 다음을 이었다. 가장 실행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된 안전은 상생과 협력(5.67), 노동인권(5.44), 공동체(5.42), 환경(5.29), 지역경제의 균형(5.21)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종합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는 안전(6.47)을 가장 실행이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였으며, 공동체(5.49), 노동인권(5.36), 지역사회의 균형(5.06)을 상대적으로 가장 실행되고 있지 않은 사회적 가치로 평가하였다. 공동체와 노동인권, 지역사회의 균형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로 평가받은 만큼, 교과과

정 및 청소년활동 현장 등에서 해당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행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X-4. 전문분야별 사회적 가치의 실행정도

순위	전체	학계	공공기관	교원	활동분야	보호복지분야
1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2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3	사회통합	사회통합	사회통합	의사결정참여	의사결정참여	의사결정참여
4	의사결정참여	환경	의사결정참여	사회통합	사회통합	사회통합
5	윤리와 평등	윤리와 평등	윤리와 평등	노동인권	상생과 협력	윤리와 평등
6	상생과 협력	상생과 협력	환경	윤리와 평등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
7	환경	의사결정참여	상생과 협력	환경	환경	노동인권
8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9	노동인권	노동인권	노동인권	상생과 협력	노동인권	환경
10	지역경제의 균형					

■ 1순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치임

다음으로 청소년 전문가가 근무하는 환경(분야)에 따라 각 사회적 가치의 실행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는지 확인하였다(표 IX-5). ANOVA 분석결과, 모든 사회적 가치 요소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인식하는 실행정도가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인권($F=10.47$, $p<0.001$)은 학계(5.74)와 공공기관(5.52)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보다 활동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6.66)가 그 실행정도를 높게 인식하였고, 공공기관(5.52)보다 보호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6.29)가 그 실행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종합하면, 학계나 행정계보다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는

인권의 실행정도가 더 높았다.

안전($F=4.79$, $p<0.001$)의 실행정도는 학계(6.11)와 공공기관(5.97)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보다 활동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6.75)가 더 높게 인식하였다. 노동인권($F=6.53$, $p<0.001$)은 학계(4.99)와 공공기관(4.58)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보다 활동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5.69)가 실행정도를 높게 인식하였고, 공공기관(4.58)보다 보호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5.44)가 실행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즉, 학계와 행정계 전문가보다 현장 전문가가 청소년활동을 통한 노동인권이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평가한 실행정도 수준이 중앙치(5점)에 가까우므로 노동인권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문가의 근무분야별로 노동인권의 실행 수준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사회통합($F=9.99$, $p<0.001$)과 환경($F=5.70$, $p<0.001$)은 학계(각각 5.58, 5.29), 공공기관(각각 5.15, 4.93), 보호복지분야 전문가(각각 5.85, 5.29)보다 활동분야 전문가(각각 6.44, 5.99)가 그 실행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상생과 협력($F=11.12$, $p<0.001$)과 지역경제의 균형($F=8.14$, $p<0.001$)은 학계(각각 5.22, 4.40)와 공공기관(각각 4.78, 4.45)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보다 활동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각각 6.22, 5.47)가 실행정도를 높게 인식하였고, 공공기관(각각 4.78, 4.45)보다 보호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각각 5.67, 5.21)가 실행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공동체($F=8.16$, $p<0.001$)와 윤리와 평등($F=7.17$, $p<0.001$)의 경우, 학계(각각 5.00, 5.23)와 공공기관(각각 4.70, 5.03)에 근무하는 전문가는 그 실행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나 활동분야 전문가(각각 5.96, 6.14)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전문가와 학계 및 행정계 전문가가 평가한 의사결정참여의 실행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F=13.89$, $p<0.001$). 현장전문가

인 활동분야 전문가(6.56)와 보호복지 전문가(5.99)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의사결정참여가 청소년활동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학계(5.09)와 행정계 전문가(5.07)는 그 실행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전문가는 근무분야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행정도를 다르게 평가하였다. 대체로 학계와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는 각 사회적 가치가 낮은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장 전문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행이 상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표 IX-5. 실행정도 ANOVA 분석결과 (9점 만점)

	전체	학계	공공기관	교원	활동분야	보호복지분야	F	사후분석
인권	6.26	5.74	5.52	7.00	6.66	6.29	10.47***	학계, 공공기관 < 활동 공공기관 < 보호복지
안전	6.47	6.11	5.97	7.00	6.75	6.47	4.79**	학계, 공공기관 < 활동
노동인권	5.36	4.99	4.58	6.10	5.69	5.44	6.53***	학계, 공공기관 < 활동 공공기관 < 보호복지
사회통합	5.98	5.58	5.15	6.60	6.44	5.85	9.99***	학계, 공공기관, 보호복지 < 활동
상생과 협력	5.71	5.22	4.78	5.60	6.22	5.67	11.12***	학계, 공공기관 < 활동 공공기관 < 보호복지
공동체	5.49	5.00	4.70	5.80	5.96	5.42	8.16***	학계, 공공기관 < 활동
지역경제의 균형	5.06	4.40	4.45	5.30	5.47	5.21	8.14***	학계, 공공기관 < 활동 학계 < 보호복지
윤리와 평등	5.73	5.23	5.03	6.00	6.14	5.72	7.17***	학계, 공공기관 < 활동
환경	5.56	5.29	4.93	5.80	5.99	5.29	5.70***	학계, 공공기관, 보호복지 < 활동
의사결정참여	5.96	5.09	5.07	6.80	6.56	5.99	13.89***	학계, 공공기관 < 활동, 보호복지
F	26.27***	7.27***	4.93***	0.64	12.15***	5.55***		

* $p < 0.05$, ** $p < 0.01$, *** $p < 0.001$

4.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수단별 전문가 의견

1)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여러 정책 중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과 미미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과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적합한 정도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전문가는 청소년관련 기본계획이 사회적 가치의 10요소 중 안전(6.76)과 의사결정참여(6.66), 인권(6.63), 공동체(6.25) 등이 실현되기에 비교적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① 청소년 참여 확대, ②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③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⑤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⑪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등과 같은 중점과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표 IX-6.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적합성

(단위: 점, %)

요소	평균	전혀 적합하지 않음 ← → 매우 적합함								
		1	2	3	4	5	6	7	8	9
인권	6.63	0.6	0.6	3.1	6.0	12.1	19.3	27.0	19.5	11.9
안전	6.76	0.4	0.2	2.5	5.2	11.6	17.9	29.1	20.0	13.1
노동인권	5.92	1.2	2.7	6.0	10.4	16.8	23.7	20.2	12.9	6.2
사회통합	6.17	0.6	1.0	5.4	9.2	16.4	21.4	23.9	15.4	6.7
상생과 협력	6.10	0.4	1.7	5.2	9.4	15.6	24.9	22.9	13.1	6.7
공동체	6.25	0.8	1.5	5.2	7.7	16.6	19.7	23.3	16.0	9.2
지역경제의 균형	5.53	2.3	4.8	6.4	11.9	22.2	18.7	21.2	9.6	2.9
윤리와 평등	6.18	1.0	1.0	6.7	7.9	17.7	20.2	19.3	17.1	9.1
환경	5.96	1.7	4.8	5.0	11.8	14.5	19.7	19.8	11.6	11.2
의사결정참여	6.66	1.3	2.1	4.2	5.4	9.4	16.0	22.9	24.1	14.5

2) 유관 법령 제·개정

다음으로 유관 법령의 제·개정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유관 법령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후 입법례(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기획재정부, 2020.1.15.))’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유관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러 정책 수단(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평가 강화 등) 중에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유관 법령의 제·개정이 가장 필요한 사회적 가치는 의사결정참여(7.66), 환경(7.56), 안전(7.43)이었다.

표 IX-7.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유관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

(단위: 점, %)

요소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 → 매우 필요함								
		1	2	3	4	5	6	7	8	9
인권	7.39	0.2	0.4	2.1	1.7	7.3	11.0	22.0	29.7	25.6
안전	7.43	0.0	0.2	1.3	1.3	7.1	13.5	21.2	29.3	26.0
노동인권	7.37	1.2	2.7	6.0	10.4	16.8	23.7	20.2	12.9	6.2
사회통합	7.20	0.0	0.4	0.8	2.1	8.1	17.3	24.9	27.7	18.7
상생과 협력	7.17	0.0	0.4	0.8	3.3	8.9	14.5	26.4	27.4	18.5
공동체	7.16	0.0	0.4	1.3	2.5	8.3	15.4	27.7	26.0	18.3
지역경제의 균형	6.81	0.2	0.4	2.3	4.8	11.6	18.7	25.8	22.5	13.7
윤리와 평등	7.39	0.0	0.4	0.8	2.5	6.7	12.7	23.3	29.3	24.3
환경	7.56	0.0	0.4	0.4	2.1	6.0	10.8	21.0	29.9	29.5
의사결정참여	7.66	0.2	0.4	1.2	1.9	5.2	8.7	17.9	31.0	33.5

3)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현존하는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은 청소년관련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혹은 개편이나, 사회적 가치 관련 기관에 청소년업무 규정 개편 및 전담조직으로의 인력 파견을 의미한다.

현재 청소년의 안전과 의사결정참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기구가 존재하지만(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보호환경과 및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전문가는 의사결정참여(7.26)와 안전(7.17)의 구현을 위해 전담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청소년 관련 조직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X-8.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

(단위: 점, %)

요소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매우 필요함								
		1	2	3	4	5	6	7	8	9
인권	6.97	1.2	2.7	3.3	3.1	9.8	12.1	19.7	24.5	23.7
안전	7.17	0.8	2.1	.8	3.9	9.2	11.4	20.6	25.4	25.8
노동인권	6.92	1.2	1.7	2.7	3.9	8.7	15.0	24.3	22.5	20.0
사회통합	6.66	1.3	2.5	3.5	3.9	12.9	14.6	25.0	20.0	16.2
상생과 협력	6.58	1.5	3.3	3.3	5.6	11.6	15.0	23.3	21.4	15.0
공동체	6.64	1.3	2.3	3.7	5.8	11.9	13.5	24.3	21.2	16.0
지역경제의 균형	6.20	2.9	2.7	5.8	6.0	12.7	20.4	22.2	17.1	10.2
윤리와 평등	6.87	1.5	2.1	2.5	4.4	11.0	12.7	21.2	24.1	20.4
환경	6.97	1.2	2.7	3.3	4.0	8.5	12.9	20.2	21.4	25.8
의사결정참여	7.26	1.3	2.1	2.5	3.1	7.7	9.2	17.5	24.5	32.0

4) 평가 강화

마지막으로 청소년관련 시설평가나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 혹은 사회적 가치관련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안전(7.39)과 의사결정참여(7.33), 인권(7.10), 환경(7.06)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안전과 인권은 모든 분야의 청소년 전문가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만큼, 인권과 안전을 위한 평가체제를 마련하거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X-9.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평가 강화의 필요성

(단위: 점, %)

요소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매우 필요함								
		1	2	3	4	5	6	7	8	9
인권	7.10	1.3	1.2	2.7	2.7	8.5	12.1	22.4	26.2	22.9
안전	7.39	1.0	0.6	2.5	1.3	8.7	10.0	18.3	26.2	31.4
노동인권	6.93	1.2	0.6	2.5	3.3	11.2	13.1	26.6	24.9	16.8
사회통합	6.69	1.2	1.7	2.9	3.1	11.8	17.3	28.5	20.4	13.1
상생과 협력	6.69	1.0	1.7	3.3	3.3	12.3	18.3	23.9	23.1	13.1
공동체	6.67	1.2	2.1	2.3	3.9	13.9	14.5	28.5	20.2	13.5
지역경제의 균형	6.26	2.1	2.3	4.4	7.5	13.7	18.3	24.1	18.7	8.9
윤리와 평등	6.95	1.0	2.3	2.3	2.3	12.5	11.0	22.9	27.0	18.7
환경	7.06	1.5	1.5	2.5	2.7	9.8	13.1	20.0	23.9	24.9
의사결정참여	7.33	1.2	1.3	1.7	1.7	8.7	9.4	19.8	26.6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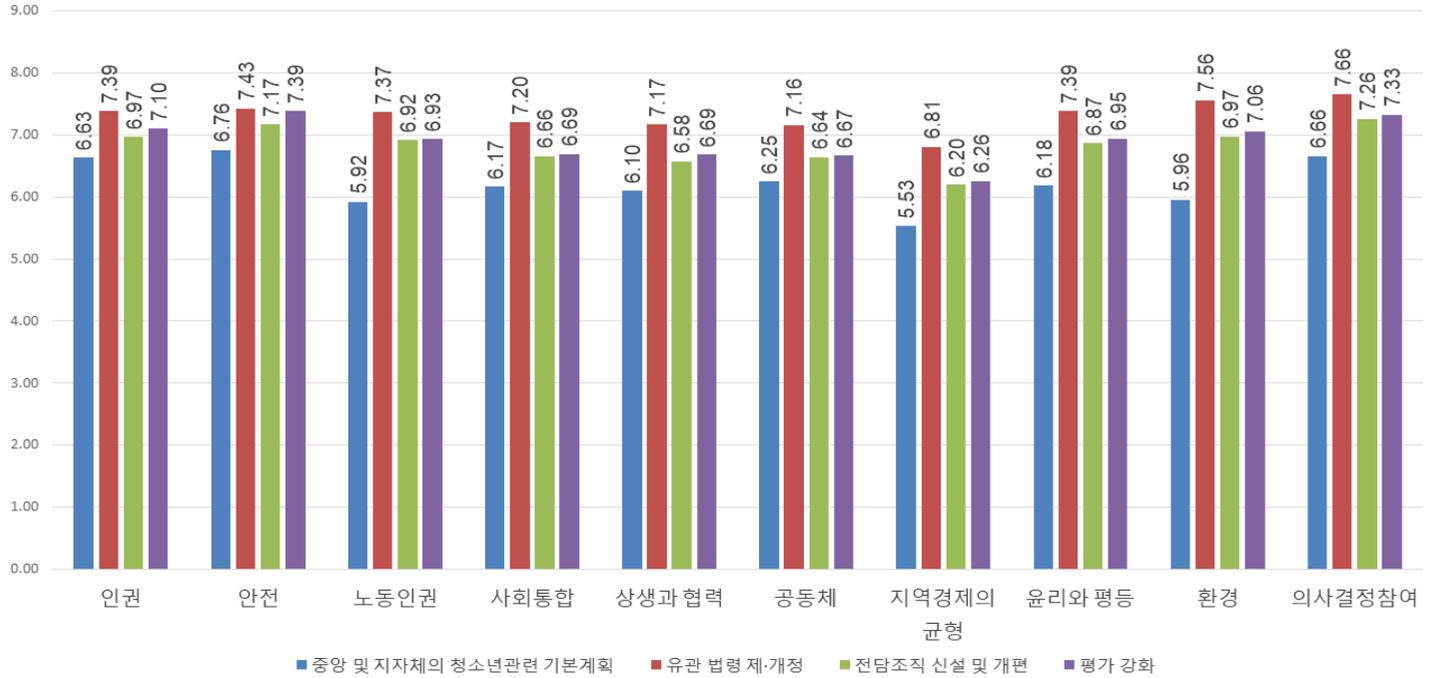


그림 IX-2.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네 정책 수단의 필요성 (단위: 점)

5. IPA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1) 학계 전문가의 사회적 가치 IPA

청소년 전문가가 소속된 분야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다르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학계 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와 현재 청소년활동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도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IPA를 실시하였다.

그림 IX-3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안전, 인권, 사회통합, 환경이 유지강화 영역(I 사분면)에 포함되었다. 중점개선 영역(II 사분면)에는 의사결정참여와 함께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이 포함되었다. 점진개선 영역(III 사분면)에는 전체 전문가 응답과 동일하게 노동인권, 공동체가 포함되었으며 지속유지 영역(IV 사분면)에 위치한 사회적 가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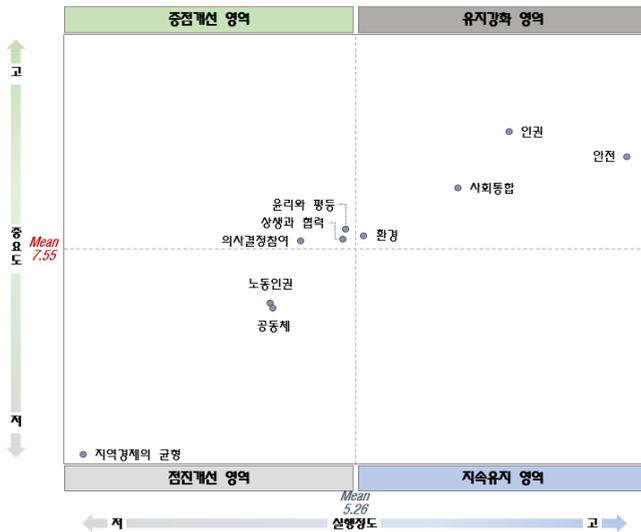


그림 IX-3.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학계)

2)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의 사회적 가치 IPA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균을 산출해 IPA 매트릭스를 분석하였다.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그림 IX-4), 안전, 인권, 윤리와 평등, 사회통합, 의사결정참여가 유지강화 영역(I사분면)에 포함되었다. 증점개선 영역(II사분면)에는 환경만이 포함되었다. 점진개선 영역(III사분면)에는 상생과 협력, 공동체, 노동인권, 지역경제의 균형이 포함되었다. 지속유지 영역(IV사분면)에는 위치한 사회적 가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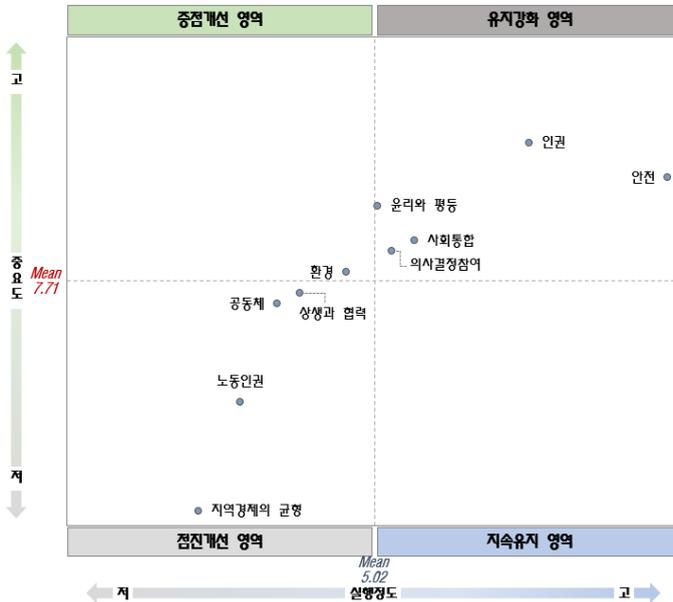


그림 IX-4.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4) 청소년시설(활동 분야) 소속 전문가의 사회적 가치 IPA

다음으로 활동 분야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와 청소년활동에서의 실행정도를 조사하고 IPA 매트릭스를 실시하였다(그림 IX-6).

유지강화 영역에는 안전, 인권, 의사결정참여,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이 위치했다. 중점개선 영역에는 윤리와 평등이, 점진개선 영역에는 환경, 공동체, 노동인권, 지역경제의 균형이 위치했으며 지속유지 영역에 위치한 사회적 가치는 없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다르게 활동분야 청소년 전문가는 의사결정참여를 중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실행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IX-6.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활동분야 청소년시설)

5) 청소년시설(보호복지 분야) 소속 전문가의 사회적 가치 IPA

마지막으로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와 현재 실행되는 정도를 사용하여 IPA 매트릭스를 도출하였다.

먼저, 안전, 인권, 의사결정참여, 사회통합이 유지강화 영역에 위치했으며, 중점 개선 영역에는 윤리와 평등이, 점진개선 영역에는 상생과 협력, 노동인권, 환경, 공동체가, 지속유지 영역에는 지역경제의 균형이 위치했다. 지속유지 영역에 위치한 사회적 가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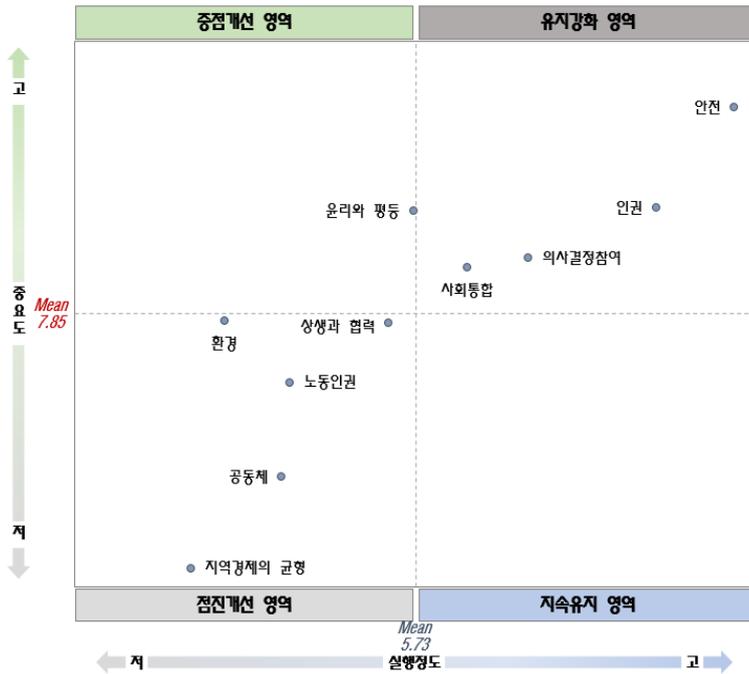


그림 IX-7.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보호복지분야 청소년시설)

6. 소결론

전체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의 10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청소년활동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고 IPA 매트릭스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지 및 강화되어야 할 I사분면에는 안전, 인권, 의사결정참여, 사회통합이 포함되었고,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II사분면에는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III사분면에는 환경, 공동체, 노동인권, 지역경제의 균형이 포함되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IV사분면에 위치한 사회적 가치는 없었다.

유지강화 영역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는 각 요소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과과정을 포함해 많은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Wee클래스(Wee센터, Wee스쿨 등)나 지역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환경적인 영향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시설 및 정책은 비교적 안정되어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는 의사결정참여 요소를 실행시키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존재 등은 사회통합 요소를 지지한다. 즉, 실행정도는 활동 프로그램의 존재 이전에 정책적인 기반(유관 법령, 교과교육, 전담 기관)의 유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중점개선 영역과 점진개선 영역에 위치한 사회적 가치를 유지강화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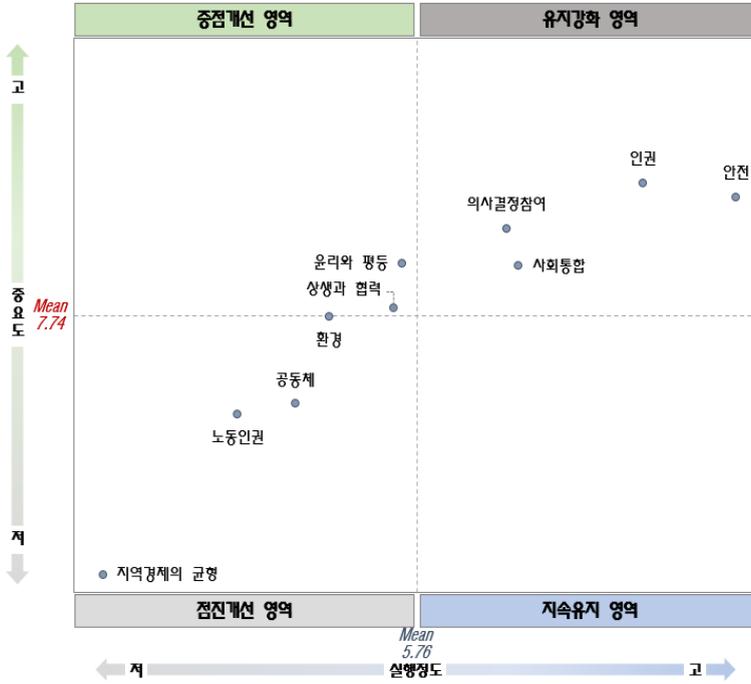


그림 IX-8. 사회적 가치 10요소의 중요도-실행정도 매트릭스(전체)

○———— 제10장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 1. 심층면접 개요
- 2.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 3.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분석결과

앞 장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 및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알아보았다. 종합하면,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따라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의사결정, 사회통합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 반면, 윤리평등, 환경, 공동체는 그 성과가 모호하였으며 노동인권과 지역경제의 균형 가치는 사회적 가치 실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매우 생소한 가치로 평가되었다. 실증연구에서 나타나지 못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형성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학계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 심층면접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그 실행되는 수준에 대해 현장, 학계, 행정/관료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체득이 용이하도록 수정 및 개정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면담하

였다.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고, 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학교과정과 청소년활동 참여에서 체득한 경험이 있는 사회적 가치 등을 조사하였다.

심층적인 면담이 필요한 FGI 수행은 원활한 면담 진행을 위해 부득이 대면조사를 승인받았다³⁶⁾. FGI 수행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청소년관련 전문가를 청소년 기본계획이나 평가 과정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교육 등 청소년활동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4인, 청소년현장 전문가 2인, 행정계 전문가 2인 총 8인으로 구성하였다. 학계 전문가는 청소년학, 정책학, 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 7년에서 23년 경력을 가진 50대 3명, 40대 1명이었다. 현장 전문가 2인 중 1인은 20년 경력의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이며, 다른 현장 전문가는 경력 29년차이다. 행정계 전문가 2인은 교육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의 교육 및 장학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은 중학생 2인, 고등학생 2인으로 구성하였다. 면접대상자는 2년 이상 청소년활동을 경험했고 현재도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36) 본 조사는 20년 10월 26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202002-HR-고유-001) 통보를 받음.

표 X-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적 특성

참여자	직책	연령	성별	전문분야	경력	
학계	학계A	교수	50대	남	교육행정/재정	20
	학계B	교수	50대	남	청소년학	23
	학계C	교수	50대	남	청소년학	21
	학계D	교수	40대	남	정책학	7
현장	현장A	관장	50대	남	청소년관련현장전문가	29
	현장B	관장/교수	40대	남	청소년관련현장전문가	20
행정계	행정계A	정책과장/ 장학관	50대	남	교사, 시도교육감협의회	32
	행정계B	장학관	50대	남	민주시민교육	31
청소년	청소년A	청소년	10대	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4
	청소년B	청소년	10대	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4
	청소년C	청소년	10대	남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2
	청소년D	청소년	10대	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2

3) 조사도구

심층면접 질문지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선행연구, 청소년 전문가 대상 IPA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청소년 대상 양적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② 각 사회적 가치의 실행정도와 ③ 실행을 방해하는 문제, ④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수정방안, ⑤ 유관법령 제·개정의 필요성, ⑥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 ⑦ 평가 강화의 필요성, ⑧ 일반적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X-2. 심층면접 질문지 내용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2		• 각 사회적 가치 영역의 실현 정도
3		• 현존하는 문제
4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	•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5		• 유관법령
6		•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7		• 평가 강화
8	일반적 특성	• 성별, 최종학력, 소속, 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

4) 연구절차

1차적으로 교수,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근무자, 청소년 현장전문가 등과 같은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자 집단을 표집하였으며, 최종 면담자에는 IPA 실험에 참여한 청소년 전문가 중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여하길 희망한 전문가와 사회적 가치 관련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뤄졌으며,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해 인터뷰하였다.

심층 면접은 사설 회의실, 해당 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1회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였다. 연구진은 심층면접 전에 면접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면접 내용에 대한 녹취를 승낙 받은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수련관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4인(중학생 2인, 고등학생 2인)을 추천받아 면접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실시 전, 본 조사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청소년의 연구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메일로 전달하였고, 본 조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수련관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1회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었다.

2.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1)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학계, 현장, 행정계 공무원들은 모든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각될 필요가 있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첫째, 우선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환경,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의 가치는 모든 분야의 청소년 전문가가 동의하는 주요 가치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과 지역경제의 균형 가치는 교육활동이 선행되거나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지역사회와 교육과정이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 부각되지 않았던 사회적 가치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

현재 시행중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청소년 참여확대(의사결정참여)’,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인권)’,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안전)’, ‘대상별 맞춤형 지원(사회통합)’ 등과 같은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윤리와 평등은 그 중요도에 비해 관련 중점과제나 세부과제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황이다. 기본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는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실행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년활동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환경,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7차에는 연속성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차별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적 화두가 차별이죠. 특히 청년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평등에 대한 논거를 일정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 기성세대와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상생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이제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서로 협치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협치를 통해 공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이번 7차의 기본 바탕으로 하고 이를 새롭게 내세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현장A)

“윤리 평등, 차별, 상생 협력, 환경과 같은 가치들은 차기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청소년 정책에 새로운 비전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가치도 포함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현장B)

○ 노동인권과 지역경제의 균형에 대한 교육활동 추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교육이 필요하다. 특별히 노동인권과 지역경제의 균형은 청소년기에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가치이므로 교육을 사용하여 해당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가치는 교육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인권 같은 걸 기본계획에서 강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할 권리와 노동할 의무 정도로 해서, 권리에는 책무가 따른다는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경제적 가치라고 해서 급여와 같은 것에만 초점을 두는 교육 말고, 경제적 가치만 따지지 않고 노동력자체로서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노동력을 유지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교육이라든지 노동력을 유지해줄 수 있는 지원,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여러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교육되어야 하겠죠.” (행정계B)

“노동인권, 지역경제 균형은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은 사회적 가치예요. 우리 학생들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의무교육은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약하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노동인권을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최저임금이나 갑질 문제,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 체불임금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을 처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교육 영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학계A)

“지역경제균형이라는 개념은 아이들에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가 불균형성장을 했다는 이런 것들을 공정무역이나 공정에 관한 부분으로 아이들이 인식하지만, 그 외 도시발달 산업발달 같은 걸 놓고 생각할 때는 크게 지역 간 격차를 느끼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이런 가치는 교육하기 쉽지 않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계B)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교육과 지자체 활동의 연계 방안 마련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청소년활동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가 연계해 체험 중심의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지역경제의 균형, 공동체, 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행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위치한 지역경제

의 균형, 노동인권, 공동체, 환경이 어찌 보면 코로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 차별, 불평등, 혐오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너무 심각해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조사를 하였을 때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는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학교 밖과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체험중심의 교육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학계C)

2) 유관법령 제·개정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의 제·개정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공무원들은 사회적 가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동력으로써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규제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위해서는 법령이 필요하며, 그 안에 운영이나 조직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 법령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법의 제·개정과 관련된 내용의 범주는 크게 ‘사회적 가치 실현 토대 구축’, ‘학교현장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 ‘중점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행 방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의 제·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사회적 가치를 조직, 인력, 예산으로 규정하는 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청소년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셋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은 주로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의 제·개정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환경 교육을 법령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의 경우 일반인과 청소년이 이해하는 사회적 가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의 이슈를 아우르는 청소년 위원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경험 제공을 위해 실질적 예산을 활용해볼 수 있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사회적 가치를 조직, 인력, 예산으로 규정

“사회적 가치를 조직, 인력, 예산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문구 하나를 더 넣는 것이고요. 청소년기본법의 특정한 내용이 추가되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 뒤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요.”(학계A)

“만약 관련 법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간다면 기본법과 활동진흥법 둘 다 바뀌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예산제도와 지역청소년 위원회를 연결시키는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다. 결국은 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한계를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학계C)

○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청소년 관련 조항 추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청소년 관련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법이 발의되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여성

가족부에서 타결시킨다든지요..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청소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학계A)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제·개정 또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도교육청은 주로 조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은 새로 만들고, 환경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새로 만들면 될 것 같다. 요새는 교육기본법에 환경과 관련된 환경시민과 같은 정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다. 혹은 선생님들이 바이블처럼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총론에 그런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데, 이 다양한 가치는 각종 법률 안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는가, 어떤 법이 미비한가를 찾아서 법률 재정이나 조례 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행정계A)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인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조례가 지금 서울, 경기, 전북, 광주 4개의 시도에만 되어있다. 경남이나 대전과 같은 곳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것도 사실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계A)

○ 환경교육을 법령에 제정

“하지만 환경 부분의 경우 일반 성인이 이해하는 환경의 가치와 청소년이 이해하는 환경의 가치는 사뭇 차이가 있다. 이에 환경 교육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환경에 미래가치를 위한 통일된 교육에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음 세대의 환경 문제를 법제화 시켜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현장B)

○ 지역사회의 이슈를 아우르는 청소년 위원회의 법제화

“그리고 그간 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는 참여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형태로 이슈보다 참여의 형태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정되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 청소년 위원회’와 같은 지역사회의 이슈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 가치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현장B)

“결국 청소년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가칭) 지역청소년정책위원회는 매우 유익한 제안이지만, 기존의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차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칭) 지역청소년정책위원회가 누가 운영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이는 지자체가 담당해야하며 지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학계B)

○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경험 제공을 위해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추가

“의사결정 참여,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라든지 청소년한테 실질적 예산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현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의사결정 참여라는 사회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학계A)

3)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필요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실행에 있어서 현장을 지원하며,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가치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활동들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컨트롤 타워를 어느 조직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문가 별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여성가족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전담조직 필요

청소년 전문가는 여성가족부 내에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경우 초기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집행기구가 아니므로 전담조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본가치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에 전담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학계A)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정부에 제공할 기획안 등을 마련할 역량이 담긴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상징적이고 홍보 측면을 생각하면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권장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말이죠..여가부가 사회적 구성원의 기본 틀을 담당하는 부처이니 까 기본 구성원들이 갖는 기본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명분을 두고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부서를 하나 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정책을 두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행정계B)

○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전환

여러 전문가는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 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전환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청소년 활동이 되었던 청소년 보호의 영역이 되었던, 청소년 복지 영역이 되었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전보다 사회적 가치와 다 연결된다. 그래서 청소년정책과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만들어서 모든 플랫폼들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을 시켜야 한다.” (학계C)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전환하여 청소년 정책 전반에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경제 균형 및 노동 인권과 같은 청소년 경제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현장A)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기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방안도 언급되었다.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교육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특히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민주시민교육과이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정치 교육, 평화통일교육, 성평등 교육과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하는 부서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쪽지로 해서 특정한 업무로 부여할 수 있는 곳은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이다. 그 업무를 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사업들을 한다면 사업들을 모아서 사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지향하면서 각각의 사업들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교육과 내의 사무관이나 팀장들이 담당하며 업무를 부여하는 일들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행정계A)

○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내의 사회적 가치 담당관 설치

한 학계 전문가는 전담조직 신설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내의 사회적 가치 담당관을 배치해 청소년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가족부 내에 청소년 정책과를 사회적 가치 제고과로 변화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이는 매우 급진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에 청소년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책기획관 내의 사회적 가치 담당관을 설치하여 청소년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학계B)

(2) 체계적 조직 개편 필요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효과적 제고를 위해 체계적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서가 행정 편의상 분리되어있는 경우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점과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사회적 가치 담당 부서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청소년 정책과의 여러 부서들을 청소년지원과와 청소년정책과로 통합

한 전문가는 현재 청소년 정책과에 존재하는 여러 부서가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과 내의 여러 부서들을 청소년지원과와 청소년정책과로 통합한다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정책과는 청소년활동진흥과, 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청소년 보호환경과와 같이 많은 과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과들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여러 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권익증진국의 경우에는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로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가 있다면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시설들을 관리하고, 청소년지원과라고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지원들을 담당하고 청소년보호 쪽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청소년정책과에서 실제로 정책과 기재부 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부분을 정의해준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깔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학계D)

○ 청소년활동진흥원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부의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진흥원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부가 단순히 평가에 대비하는 기능이 아닌 사회적 가치 기획과 집행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교육활동에 사회적 가치가 녹아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도를 보았을 때,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사회적 가치 실현부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사, 재무와 같은 지원 기능 위주의 조직에 사회적 가치실현부가 포함되게 된다면 기재부의 평가에 대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정도의 부서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근데 평가에 대응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하부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것들을 취합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순히 자료 취합기능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활동진흥본부의 정책사업 1부 및 2부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별도로 분리하고 사회적 가치실현부를 이쪽으로 개편시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들을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학계D)

“여성이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회적 가치 부서는 평가가 아니라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교육활동에 사회적 가치가 녹아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행정계B)

○ 여가부와 교육부의 역할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와 교육부의 역할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여가부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 단위의 지자체별로 제공하고, 교육부는 학교 내 교육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중심으로 밖에서 활동하면서 부모나 조부모와 세대 공감을 통해 프로그램 활동을 하며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여가부에는 청소년 정책 부서에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 단위의 지자체별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죠.”(행정계B)

4) 평가강화

(1) 지자체 및 정부합동 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 포함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평가 지표의 포함은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추진동력으로써 기능을 하며, 그밖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담당자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와 정부합동평가와 같은 평가체계에 사회적 가치 제고 관련 지수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앙과 지자체 관료들 중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을 청소년 참여로 등치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나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를 통해 공무원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의 정책효과성 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포함한다. 셋째,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에 있어서 성과 영역에서는 사회적 가치 달성 지표를 추가하고, 기획 영역에서는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의 정책화 실적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청소년 활동이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자체 평가나 정부합동평가 같은 평가체계에 사회적 가치 제고 관련된 지수 포함

“안전은 일단 시설이 있을 거고요. 꼭 시설 뿐 만 아니라라도 문화도 안전해야 할 것이고, 이틀테면 음란물로부터 안전한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도 안전한지 이런 문화나 환경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의사결정 참여, 청소년 의사결정 참여,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라든지 청소년한테 실질적 예산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현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의사결정 참여라는 사회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세 번째는 복지,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학생들, 정책대상들과의 조화와 통합이 중요하겠죠,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요.. 평가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순위가 결과로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지수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물론 사업도 이와 연계해서 해야 할 거고요. 청소년정책 지자체 평가나 정부합동평가 같은 평가체계에 청소년정책의 사회적 가치 제고 관련된 지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학계A)

“안전의 경우 결국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 활동이 청소년 참여 위원회와 같은 활동으로 대표되지만, 중앙과 지자체의 관료들은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이 청소년의 참여로 등치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합동평가나 지자체 청소년 정책 평가를 통해 공무원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현장B)

○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에 정책효과성 지표에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포함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에 있어서 광역시 단위의 정책효과성 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학계C)

○ 성과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달성 지표 추가, 기획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포함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여가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의 광역시 단위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즉, 기존 성과영역의 정책성과, 정책효과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달성도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기획영역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을 새로운 지표로 포함해야 한다.

○ 지자체의 정책화 실적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

“그리고 청소년의 의사참여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화 실적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시켜서 청소년 활동이 일시적, 또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학계C)

(2) 청소년 지도자들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 지표 포함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 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행정계 전문가는 청소년 시설평가 시, 청소년 지도자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 법정 연수 등에 대한 평가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청소년 시설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지도 역량 강화, 교육, 법정 연수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현장A)

(3) 시도교육청 평가에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 포함

행정계 전문가는 중앙부처나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때 인식과 실행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양한다고 하였을 때,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적 가치 함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때, 중앙부처나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인식 먼저 평가해야 할 거 같고, 그 변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평가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정량데이터도 평가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성평가만 이루어져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얼마나 받아들지는 모르겠지만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평가 지표가 들어갈 거 같아요.”(행정계B)

(4)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척도 개발

사회적 가치 평가 척도의 개발은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기관 및 부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측면과 학생의 사회적 가치 수준 및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함양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학생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시계열적 측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자체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평가 척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현장A)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민주시민 지표를 개발하거든요. 그것처럼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이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사회적 가치 지표를 만들 때 이런 활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단순히 뭘 했다 안했다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부를 통해서 물어보면 좋겠어요. 정 안되면 개발원에서 하는 종단연구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어요. 시계열 데이터를 말이죠.”(행정계B)

3.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분석결과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교육 현장보다 활동현장이 사회적 가치 체득에 더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가치는 적절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첫째, 학교 밖에서의 참여와 체험은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고 체득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은 사회적 가치 체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육습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청소년 시야에서 설득력이 있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청소년활동은 사회적 가치 체득에 효과적임

청소년활동을 꾸준히 참여한 청소년들은 활동이 여러 사회적 가치를 체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이라고 응답하였다. 참여와 체험은 가치 체득에 최적화되어있으며, 청소년활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교육과정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을 공감하게 되고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저희처럼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같이 이런 정책 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말고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사회적 가치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주는 것보다 직접 참여를 하거나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청소년 입장에서 기억도 많이 남고 경험도 많이 될 거 같아요.”(청소년D)

“교육으로 가르치면 애들은 거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활동에서 다루면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기 좋을 거 같아요.”(청소년C)

“저희 ㅇㅇ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분리수거 하는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약품 같은 걸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분리수거? 교내봉사활동으로 주변 쓰레기 줍는 활동 정도? 있거든요. 좀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활동은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봉사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깨닫고 얻기에 교내활동은 부족한 거 같아요.”(청소년B)

○ 사회적 가치 체득을 위한 의무교육 개선이 필요함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윤리교육 등과 같은 교육의 질이 청소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얻기에 부적절하다고 토로하였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연간 15시간 이상씩 의무로 성교육을 받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조영주, 김동식, 남궁윤영, 이해경, 2019). 성평등, 절제, 정직 등 윤리와 평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체득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시선에서 각 학년에 필요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윤리와 평등은 교육은 정말 많이 하는데 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주입식으로 늘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 같아요. 정직, 절제도 정말 대단하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술 담배는 무조건 청소년 안에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절제와 정직인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잖아요. 성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인 사례를 들으면 그게 학교에서 제재를 한다는 거 같아요. 너무 성적이라고. 저희는 그 성이 위험하다는 거에

대해 알고 싶은 건데 자각을 시켜주려 하는 교육인데 왜 그걸 성적이라고 알려주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희의 만족도와 어른들의 만족도는 항상 다른 거 같아요.”(청소년A)

“윤리와 평등은 일단 교육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교육이나 윤리 관련된 교육 같은 것도 보면 하시는 분들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저희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느낌은 덜 받으시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 하라고 하고 국가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성교육이지 정말 저희가 원하고 필요한 거를 충족시켜준다는 느낌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교육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청소년B)

○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체득에는 홍보가 필수적임

청소년활동을 생활기록부의 가산영역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참여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청소년은 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미하고 활동의 가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학교나 자유학기제 정도의 활동에 그친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각 학교에 방문하여 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교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을 적극 홍보한다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체득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거 있대 하면 진짜 바로 '나 할래'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막상 이런 활동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어요. 몰라서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홍보가 부족해요.” (청소년A)

“아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학교잖아요. 지금은 수련원 같은 곳에서 공문 같은 걸 보내면 학교 선생님들은 단순히 게시물 부착해놓고 끝나

요. 앞으로는 학교 측에서 설명회를 연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B)

“활동을 하면 생기부에 들어간다 이런 정보를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차원에서 정보공유가 아예 없어요. 수련원에서도 항상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올리고 홍보가 끝이었어요. 저희끼리 친구들한테 "나 이런 활동하는데 진짜 재밌고 진짜 뿌듯해. 할래?" 이렇게 물어봐서 데리고 오는 거지 그렇게 말고는 아예 방법이 없어요. 꼭 청소년 지도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희 수련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까지 느낄 수 있고, 무슨 활동들이 정말 많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아이들이 할 텐데 ..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홍보가 가장 부족한 거 같아요.” (청소년A)

○ ————— 제11장 정책 제언

-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비전 제시
-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률
등의 개정
- 3. (가칭) ‘지역청소년(상생과
협력)위원회’ 운영
- 4.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 개편
- 5.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에 따라 청소년들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본 주제와 관련한 직접적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최근에 수행된 국가 차원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청소년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을 통해 내면화해야할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① 인권, ② 안전, ③ 노동인권, ④ 사회통합, ⑤ 상생과 협력, ⑥ 공동체의식, ⑦ 지역경제의 균형, ⑧ 윤리와 평등, ⑨ 환경, ⑩ 의사결정참여 총 10가지로 조작적 정의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① 자유학기제 활동, ② 청소년자원봉사(DOVOL), ③ 국제교류활동, ④ 청소년정책참여, 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⑥ 청소년어울림마당, ⑦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⑧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⑨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의 9가지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학계 및 청소년현장 전문가 519명과 전국 청소년조사(1차 862명, 2차 606명)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았다. 특히 청소년활동 경험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수준 변화의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 경험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권', '안전', '사회통합', '윤리평등', '의사결정'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는 인적요인과 시간적 성숙효과를 제거한 순수한 청소년활동의 효과가 긍정적임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중차분모형에서 그동안 청소년활동이 표방해온 '상생협력과 공동체'의식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게 나타났

으며, 이는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경제학 실험의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청소년활동에 따른 '노동인권'과 '지역경제균형'의 사회적 가치변화도 큰 의미가 없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 경제관련 가치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문제나 아르바이트 상의 부당한 처우 등에 국한해 체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는 전문가의 인식조사와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청소년관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탁현우와 윤건(2020)이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에서 제시한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청소년에 맞게 정책수단 네 가지를 재구성하였다. 4가지의 정책수단은 ①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② 유관 법령의 제·개정, ③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④ 평가 강화이다.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도출한 정책은 5가지 정책방향과 12개의 세부 정책제언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수단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새로운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	1-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윤리 평등, 차별 없는 상생 협력, 환경'의 가치를 새 비전으로 제시 1-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지 않는 노동인권 및 건강한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내용 포함	● ● ● ● ● ●
유관 법령의 제·개정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률 등의 개정	2-1.(1안) 청소년기본법 개정 2-2.(2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2-3.(3안)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 ● ● ● ● ●
	3. 지역별 청소년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과협력위원회' 운영	3-1.(1안)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구성	● ●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4.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가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개편	4-1.(1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가치과로 개편 4-2.(2안) 사회적 가치과 개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 4-3.(3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개편	● ● ● ● ●
평가 강화	5.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5-1. '지방자치단체 활동 평가'의 지표 개선 5-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 평가'의 지표 개선 5-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지표 개선	● ● ● ● ●

그림 XI-1. 본 연구의 정책 제언에 대한 요약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비전을 제시

표 XI-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비전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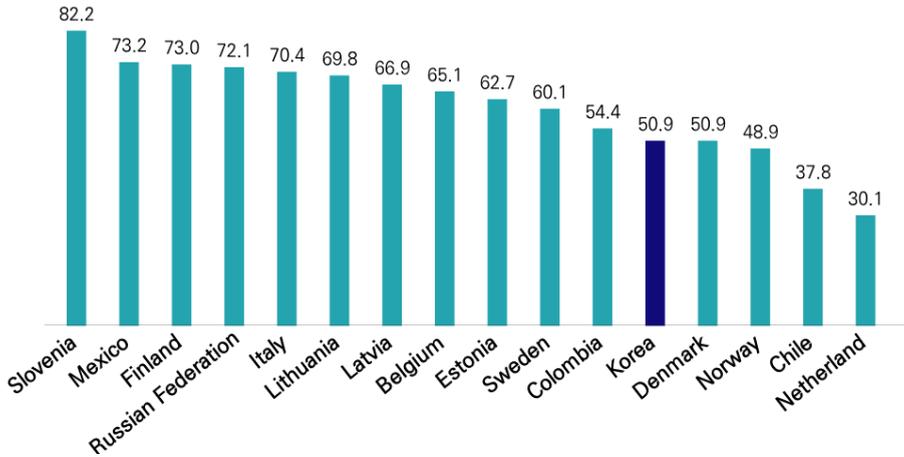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새로운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	1-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윤리 평등, 차별 없는 상생협력, 환경'의 가치를 새 비전으로 제시 1-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지 않는 노동인권 및 건강한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내용 포함	○	○	○	○	○	○

1) 제언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와 이중차분모형,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가치 IPA(중요도-실행정도 분석)와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체계화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을 통해 인권이나 안전, 의사결정참여와 같은 가치는 상대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실행되는 활동 수준은 미미했다. 특히 환경,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 노동인권, 지역경제의 균형 가치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실행되는 교육이나 활동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가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 학생의 인식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OECD, 2018: 김혜자, 2019.9., 41쪽에서 재인용), 교내외 활동으로 환경 및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도 50.1%에 불과해([그림 11-1],

OECD, 2018) OECD 국가에 비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환경 활동의 양과 질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특정 사회적 가치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출처: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p.124.

그림 XI-2. 8학년 학생이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비율 (단위: %)

정부가 실시한 사회적 가치 IPA(중요도-실현정도 분석)에서도 환경, 상생과 협력, 노동인권(안전한 근로생활)을 중점개선 가치로 지목하였다(기획재정부, 2020.1.15.). 이처럼 환경,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 노동인권, 지역경제의 균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이 부재하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의 청소년이 체계적으로 환경,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 노동인권, 지역경제의 균형 사회적 가치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치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정책 대안

제5차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의 안전, 인권, 의사결정참여, 사회통합과 관련 있는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해당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대다수의 청소년 전문가가 인지하였으며(IPA 분석결과), 청소년도 해당 가치를 인식하였다(청소년 설문조사결과). 따라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중요하지만 소외되어온 사회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윤리와 평등, 차별 없는 상생과 협력, 환경’ 가치를 새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지 않는 노동인권 및 건강한 경제인식 제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화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 환경 가치 실현에 대한 중점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중점과제에는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세부과제는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민주시민 성장 지원 중점과제에는 사회적 가치 중 윤리와 평등에 해당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청소년 의식 성장을 위해 제6차 핵심과제 주제인 ‘민주시민’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로 수정하고, 현재 청소년이 체득해야 하는 특정 가치 증진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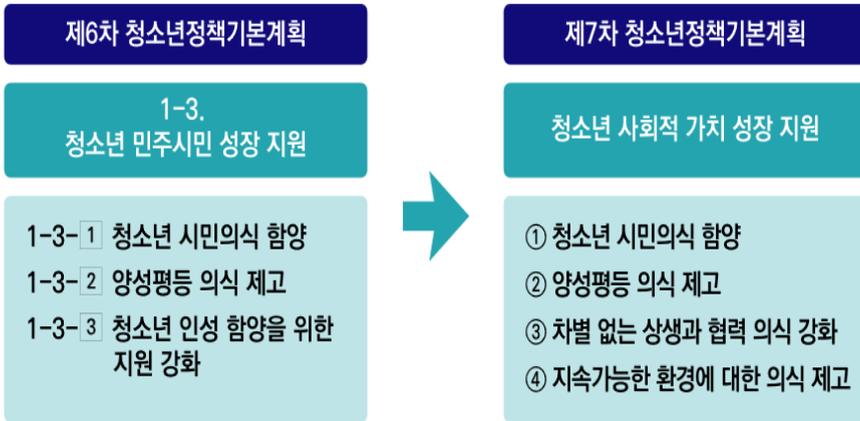


그림 XI-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 수정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정치와 법 교과(12정법05-03)에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노동과 경제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는 노동인권과 건강한 경제관념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인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 확대 운영안’과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안’,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안’에만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이 포함되어있다. 즉, 경제교육은 과학기술·산업분야 핵심인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국한되어있고,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적 가치에 치우치지 않은 경제관념 정착을 위해서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돈을 사용하게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과 특정 청소년에게 집중되었던 경제교육의 대상을 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에서의 노동인권을 강화하는 세부과제 삽입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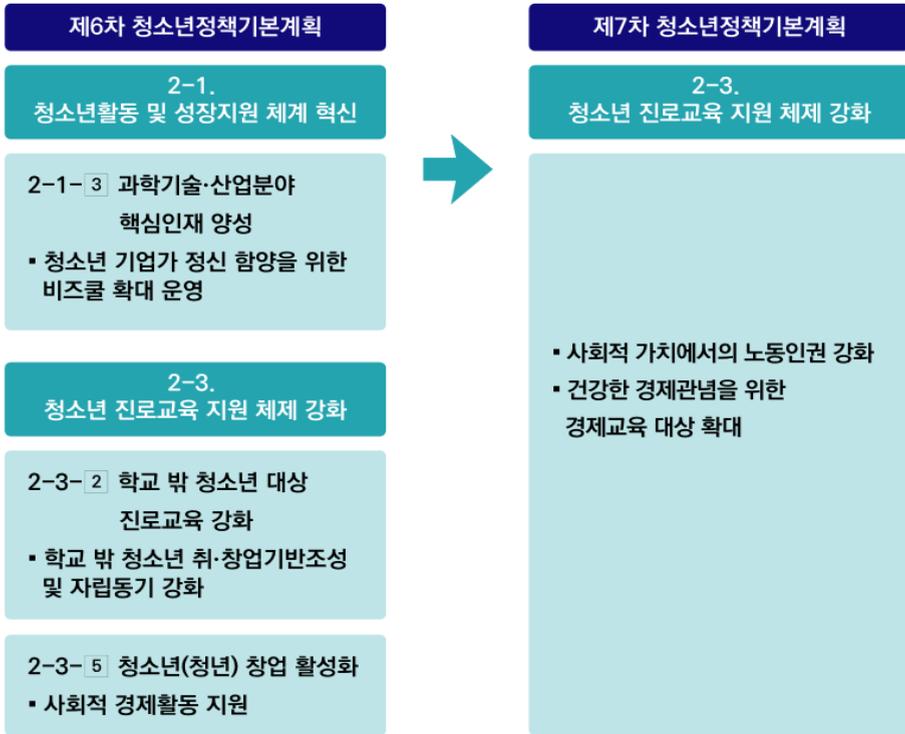


그림 XI-4.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세부과제 수정안

3) 관련 추진체계

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과제를 부과한다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중앙 및 지자체, 현장시설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체득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관련 세부 과제를 추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산하기관과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서 관련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4) 기대효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윤리와 평등, 상생과 협력, 환경, 노동인권, 지역 경제의 균형 가치에 대한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삼입함으로써 현재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 사회적 가치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핵심 및 세부 과제로 사회적 가치가 명시될 경우, 중앙을 비롯해 지자체와 청소년활동시설에도 해당 사회적 가치 체득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률 등의 개정

표 X1-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률 등의 개정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2.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유관법률 등의 개정	2-1. (1안) 청소년기본법 개정						
	2-2. (2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	○	○	○	○
	2-3. (3안)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1) 제언 배경

앞선 분석을 보면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일관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의 노력도 필요하다.

2) 정책 대안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입법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입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입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XI-3. 청소년기본법 개정 예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p>1. ~ 4.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5. <u>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u></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3조(정의) 1. ~ 4.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 설〉</p>	<p>9. "사회적 가치"란 인권, 안전, 노동인권,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공동체의식, 지역경제의 균형, 윤리와 평등, 환경, 의사결정참여를 말한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과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47조(청소년활동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표 XI-4.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예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의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p> <p>〈신 설〉</p> <p>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p> <p>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p> <p>1의2 "사회적 가치"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p> <p>2. ~ 8.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p> <p>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p>	
<p>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제고 및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5조(청소년활동 등의 지원 등)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u>청소년교육</u>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u>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u>를 위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참여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u>관련 지역청소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이 <u>지역사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p>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소년활동과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제고</u>,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 1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p> <p>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p> <p>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p> <p>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p> <p>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p> <p>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p> <p>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p> <p>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p> <p>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p> <p>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p> <p>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p>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p> <p>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 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 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 ·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그 밖에 청소년활동과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의 현행 조문은 청소년활동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의 내용을 인용함.

3) 관련 추진체계

기본적으로는 유관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2020년 6월 1일 박광온 의원과 2020년 9월 10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유관 법률의 개정에는 의원들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한편 유관 법률의 원활한 개정과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사전적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져야 한다.

4) 기대효과

유관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실행의 종합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입법적 근거를 통하여 관련 예산 등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실행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3. (가칭)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운영

표 XI-5.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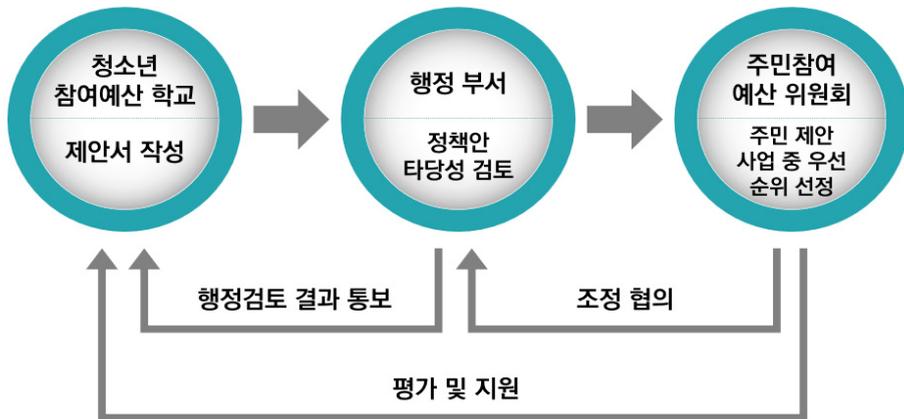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시설
3. 지역별 청소년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운영	3-1. (1안)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구성		○	○		

1) 제언 배경

앞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결정참여는 유의한 순효과가 긍정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조사의 경우 그 효과가 명확하지 못하였으며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도 보면 의사결정 참여가 일부 제한된 성과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청소년의 참여가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 제한된 참여자들로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에 청소년활동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려면 지역사회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같이 고민해야하며 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지역별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나

청년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청소년참여가 갖는 한계점인 주제의 한정과 대표성의 결여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칭) ‘지역청소년(상생과 협력)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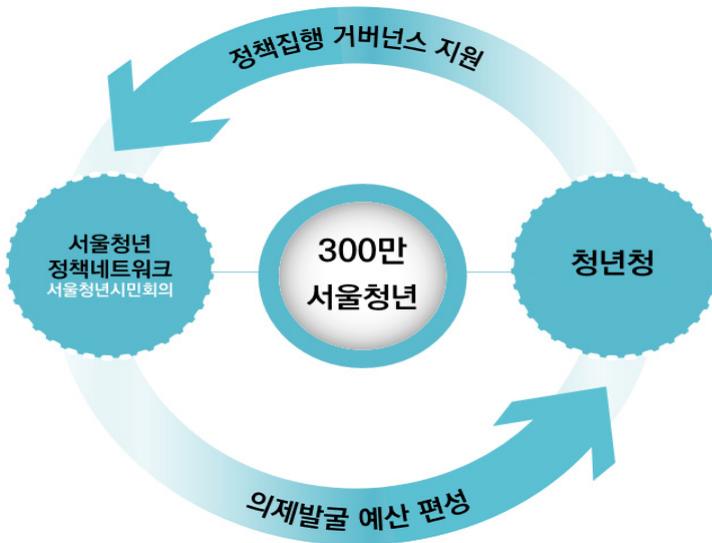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을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그 위상을 변화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당 제도는 청소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실제정책 수립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윤민중 외, 2016). 정책적으로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의 세부과제로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시범사업 및 우수 운영모델 발굴,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윤민중 외(2016). p17.

그림 XI-5.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체계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청년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기구의 역할을 하며, 모든 참여자가 시정 참여의 주인이 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청년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중 정책발굴 및 제안 과정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입각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출처: <https://seoulyg.net/about> 에서 2020년 11월 11일 인출.

그림 XI-6. 청년청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기존의 법률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와 자자체별 (아동)청소년의회 등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여 왔으나 대부분 한정적인 주제, 제한적인 권한, 부족한 시간, 일부 청소년의 참여 등으로 중요한 사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현장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는 세대가 아닌 현재의 주인으로써 청소년(자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 정책 대안

청소년들의 참여는 이제 선택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권리이고 필요수적인 것이 되었다. 청소년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한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당사자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들로만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와는 별도로, 청소년과 성인 함께 청소년관련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과 예산배분의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청소년(상생과 협력)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3) 관련 추진체계

(가칭) ‘지역청소년(상생과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과 제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이 조례들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의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칭) ‘지역청소년(상생과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관련 지역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지역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이하 ‘지청위’)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현안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지자체대표와 청소년대표 중 1인 또는 공동대표가 위원장이 되며, 청소년위원 7-8인, 전문위원 2-3인, 지자체위원(또는 공무원) 2-3인으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1-2명, 위원 11-14명으로 총 12명에서 16명 내외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림 XI-7.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조직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위원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가장 좋은 방식은 대표성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청소년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투표 및 의견 개진 등의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청위의 청소년위원은 시설별 운영위원회 대표,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 및 학생회장대표, 학교밖청소년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은 청소년학계, 청소년현장 지도자 중에서 참여하도록 하며, 지자체 위원은 지자체공무원이나 지자체 추천위원(예를 들어 지역인사, 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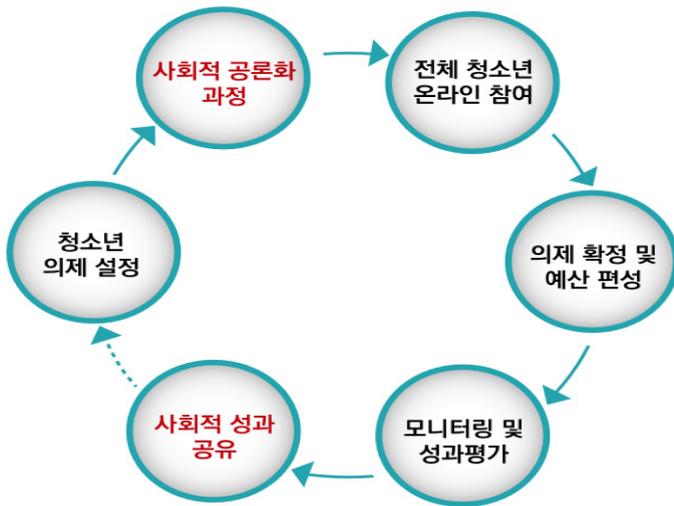


그림 XI-8. 지역청소년(상생과협력)위원회 운영체계도

지청위는 지역의 청소년의제를 설정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단계를 거쳐

의제를 확정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 등을 편성하고, 진행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하고, 사회적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정책과 사업 및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성과공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지속사업 또는 개선사업 등을 새로운 의제로 설정하여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최근 언택트 청소년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체 청소년 온라인 참여’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자 발송 후 간단한 인증 절차 후 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유의미한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기대효과

이혜숙과 이영주(2019)는 청소년참여가 청소년 역량 개발과 민주시민육성, 국제 위상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 공헌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참여는 개인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고 사회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강화 등 지역사회발전에도 공헌하는 효과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정책 추진으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측면에서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 확대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미래자원 투자 차원에서 국가 의제화가 가능할 것이다(이혜숙, 이영주, 2019).

이제 청소년의 참여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다. 청소년 참여는 성인들이 유도하는 자리에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 데코레이션(decoration)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선택하고 모니터링

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성과 공유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소년정책과 사업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밝히는 과정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로써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을 믿고 그들에게 과감히 권한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

4.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개편

표 XI-6.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 개편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4.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가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 개편	4-1. (1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						
	4-2. (2안) 사회적 가치과 개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	○				○	
	4-3. (3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 개편						

1) 제언 배경

앞선 전문가들의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사회적 가치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 주무부처가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관련 부서와 업무가 부재하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내에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사회적 가치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획조정본부의 '전략기획부', '인사혁신부', '재무회계부'와 같이 있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2) 정책 대안

먼저 여성가족부 내에 '사회적 가치'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과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과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층면접에서 한 조직학 관련 전문가는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가 이미 존재하는 타과와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를 보았을 때,.....많은 과들의 업무 차이를 구분 이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이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중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정책하고 비교를 하였을 때 청소년 정책과는 청소년활동진흥과, 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 과, 청소년 보호환경과와 같이 많은 과가 (이미)존재하고 있다.”(학계D)

조직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는 타 과와 업무 영역이 중복되고 있다. 타 과가 이미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보호복지정책에 대한 직무를 소화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는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하

고 보다 청소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다수의 청소년학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 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전환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4-1.(1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이며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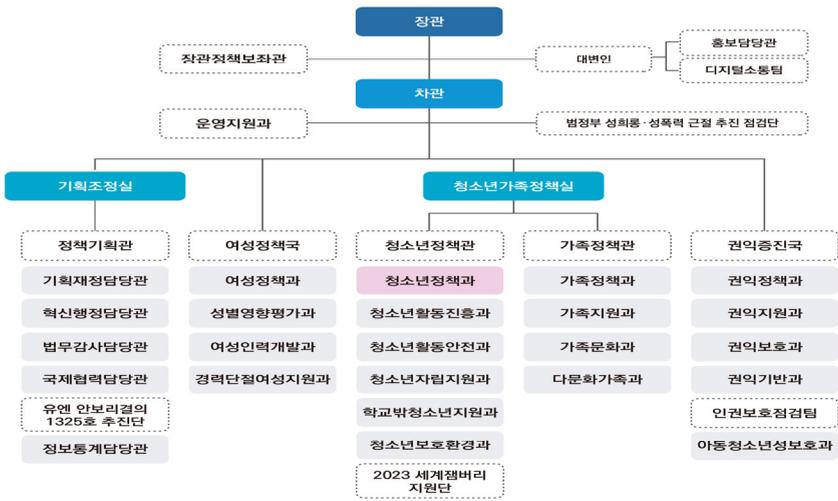


그림 XI-9. '4-1. (1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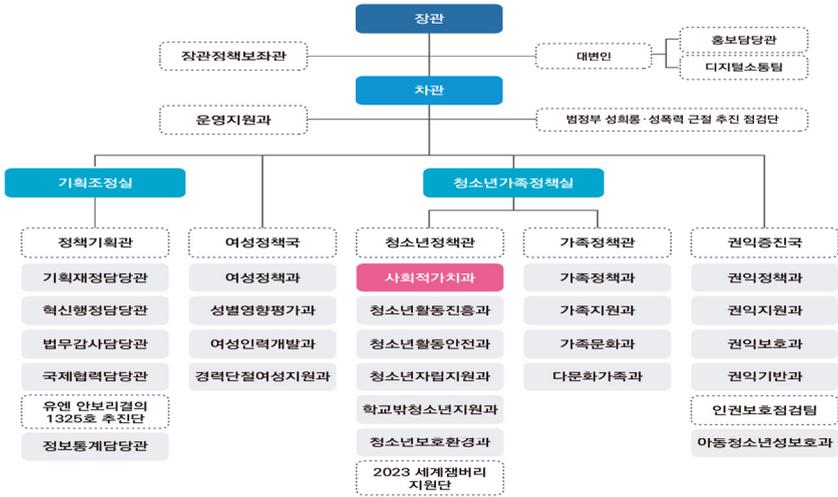


그림 XI-10. '4-1. (1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 (후)

한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가 '사회적 가치과'로 개편되면서 청소년활동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청소년활동과의 설치도 제안할 수 있다.

“진흥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안전과에서 한다. 활동진흥법이 한 셋트인데 이것을 담당 부서가 2개로 나누어져있으니 단점과 한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고 진흥 두 부서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분리가 되다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두 부서의 통합을 통해 활동진흥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활동이 되었건 청소년 보호의 영역이 되었건, 청소년 복지 영역이 되었건 그 무엇이든 간에 전부다 사회적 가치와 다 연결된다. 그래서 청소년정책과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청소년정책과를 사회적 가치과로 만들어서 모든 플랫폼들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을 시켜야 한다.”(학계C)

이는 '4-2.(2안) 사회적 가치과 개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이며 기존의 청소년활동과의 분절된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과가 청소년정책의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배가 하는 토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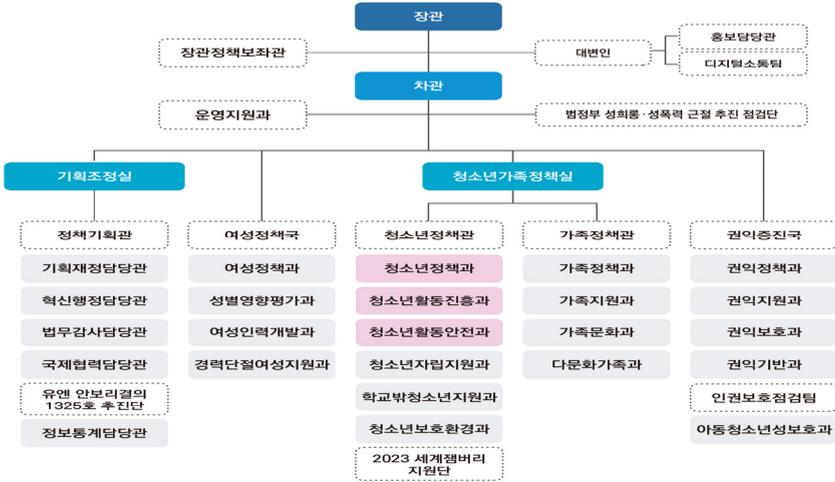


그림 XI-11. '4-2. (2안) 사회적 가치과 개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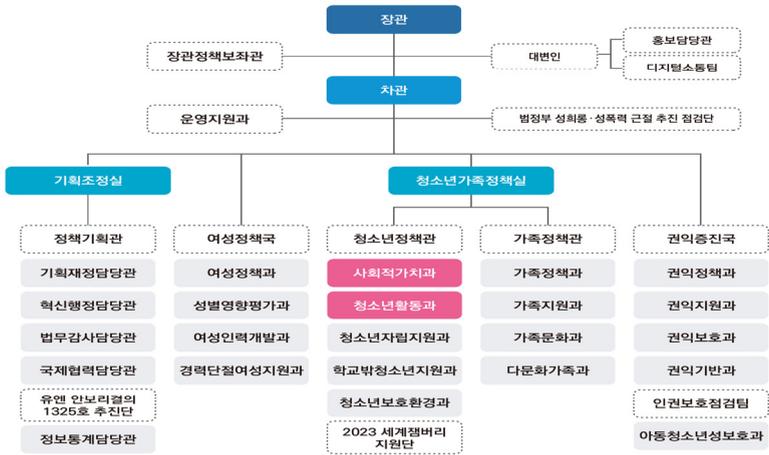


그림 XI-12. '4-2. (2안) 사회적 가치과 개편 및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청소년활동안전과의 통합' (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사회적 가치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획조정본부의 '전략기획부', '인사혁신부', '재무회계부'와 같이 있어 청소년활동 사업과 연관성이 다소 결여된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가치부'를 기획조정본부에서 활동진흥본부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4-3.(3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개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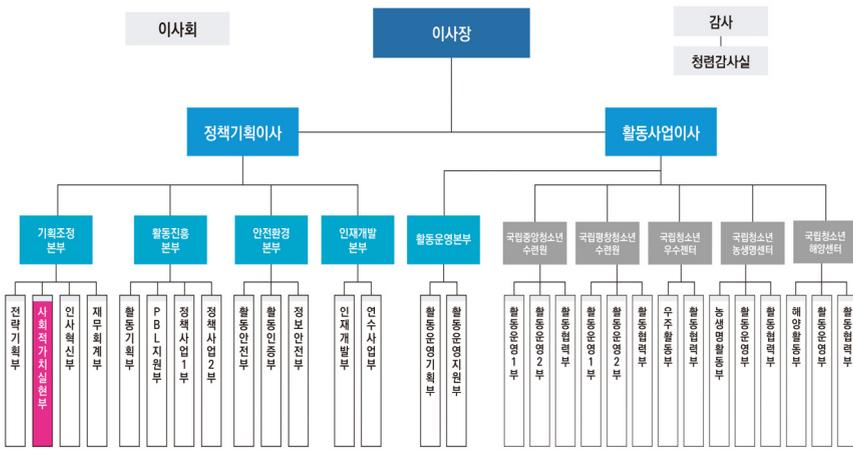


그림 XI-13. '4-3. (3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 개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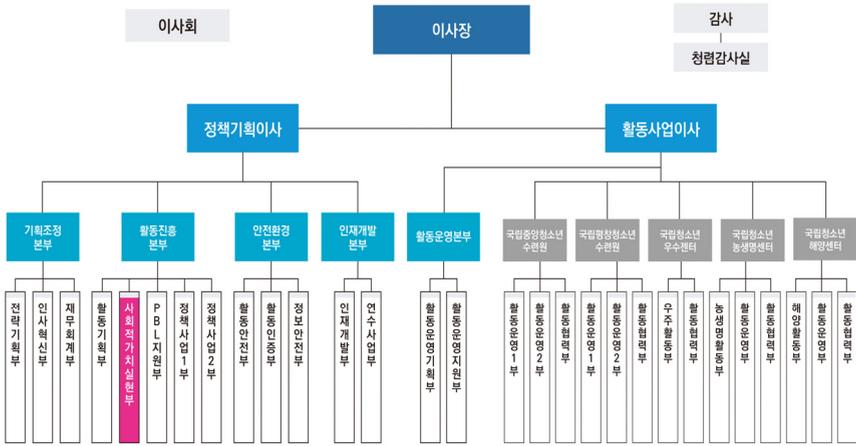


그림 XI-14. '4-3. (3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부를 활동진흥본부로 조직 개편' (후)

3) 관련 추진체계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직개편에는 청소년정책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요 추진체계가 된다. 개편과정이 완료되면 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상시 관련 업무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기대효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내의 사회적 가치과가 신설이 되면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하여 컨트롤타워기능을 통한 성과관리와 정책기획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국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국정방향에 청소년활동정책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이점도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

홍원이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과에 상응하는 정부 주무부처의 공식적 역할 부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회적 가치과가 활동진흥본부로 개편될 경우 청소년활동 사업 분야에 청소년들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 효과를 더욱 증대될 것이다.

5.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표 XI-7. 평가지표 개선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5.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5-1.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의 지표 개선 5-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의 지표 개선 5-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지표 개선	○	○	○			○

1) 제언 배경

앞선 전문가들의 심층면접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위한 평가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평가 그 자체가 특정 행위나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되어 제도화의 완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Vedung, 1997).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실질적이면서 의미 있게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가 평가영역에서 특정한 평가지표로 명시되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성과와 연결되고 책임성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평가지표로 제도화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이는 어떤 평가에서 추구하는 성과와 책임성 내용에 청소년활동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가치가 일부분야라도 관련된다면, 최소한 그 평가의 특정한 지표에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평가 중에서 청소년활동의 성과가 해당 평가에서 추구하는 성과와 부합하는 경우라면 평가지표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당연하고, 그 보다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이미 일부 관련 지표로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청소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의 일부 지표가 그렇다. 그리고 청소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더욱 그렇다. 이 평가들은 분명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해당 평가의 성과 중 하나로 중요하게 여기지만,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관련된 지표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세 평가는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청소년과 관련된 평가들 중에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제안이 되지만, 기존의 평가가 추구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성과의 정교함과 내실화를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정책 대안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 개선

평가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시·군·구 실적을 포함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정의 주요시책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평가 및 환류해서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이 평가는 국가의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평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평가지표화되어 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2017.7.26. 타법개정, 법률 제14839호]). 청소년관련 평가지표 역시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에서 일부 지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2020년에 발표된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에 따르면, 5대 국정목표별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지표는 총 116개이다(행정안전부, 2020). 이 중 각 지역별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지표는 각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운영·활성화 수준 측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지표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가 특히 위기청소년 지원에 핵심적인 요소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 따라서 현재의 측정 방식(실행위원회 담당공무원 참여건수와 고위기청소년 지원서비

스 연계 사례수의 합산)에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정도 (의사결정참여 정도)를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 반영 건수 및 사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결국 정책대상자로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가가 중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IPA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로서 ‘의사결정참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유지강화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인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을 보다 더 현실에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표 XI-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 개선안

국정과제	평가지표명	개선안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 측정 산식에 청소년의 의사결정참여 정도 반영 · 예: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 반영 건수 및 사례 평가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의 지표 개선

평가를 활용한 두 번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의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는 지역별 청소년 정책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 정책 사례 발굴·확산과 지역간 청소년정책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도는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구는 11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a).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대표

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반영에 그 어느 평가보다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표에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측정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평가체계에 새로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것이다.

표 XI-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의 지표 개선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명	개선안
기존 지표 수정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내용에 청소년정책 수립시 청소년의 의사결정참여 보장과 의견이 반영된 정도를 측정할 결과를 추가 · 예: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정도와 의견 수렴 후 반영 노력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신규 지표 추가안	사회적 가치 실현도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평가체계에 새로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신설 · 예: 평가항목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도'와 평가지표로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먼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중 지역별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노력 및 실현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존 지표는 정책형성 단계의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 중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이다. 사회적 가치 요인 중 하나인 의사결정참여는 비단 청소년정책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정책형성시 기획단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이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 수립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의견제시와 의견반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을 기준으로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의견수렴 후 반영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추가 및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지표를 보다 더 현실에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기존의 평가체계에 신규 평가항목 및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를 활용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이 된다. 현재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평가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도'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평가지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지표를 만들어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인권, 안전, 노동인권,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공동체, 지역경제의 균형, 윤리와 평등, 환경, 의사결정참여로 구분할 때, 이들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지표 개선

세 번째 방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지표 개선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 2에 근거한 이 평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7개 영역의 11개 항목 아래에 29개 평가지표(시설유형별 평가지표 차이 존재: 예, 28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청소년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항목 중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중심의 평가로써 시설운영에서 직원 전문성은 청소년들이 시설이용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운영의 핵심 담당자인 직원들의 기본 역량은 시설이용자인 청소년들의 활동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설명회 자료집」에 따르면, 직원의 직무연수 참여시간을

평가할 때 ‘운영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정규 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전문성 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 사항으로 들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b).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대상 인터뷰에서도 시설평가에서 직원들이 사회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지도역량 강화 및 교육이나 법정 연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직원의 직무연수 참여시간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참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사회적 가치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 및 훈련 참여 시간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과 이해도를 높여 기본 역량 향상은 물론이고 실제 시설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청소년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표 XI-1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지표 개선안

평가항목	평가지표명	개선안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 직원의 직무연수 참여시간 평가 내용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참여 시간을 추가 요소로 반영 · 예: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사회적 가치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 및 훈련 참여 시간 산정

3) 관련 추진체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 개의 평가에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가 일부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반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지표개발추진단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지표개

발추진단은 평가지표에 대한 개발·심의·의견수렴·확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평가지표로 판단되는 현재의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지표의 내용을 검토해주어야 한다. 이때 청소년 관련 주요 기관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인데, 예컨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지표 내용이 반영된 이후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지표의 실효성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이후에도 지표의 타당성 검증과 지역 간 변별력 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관련 지표 내용이 추가되기 위해서도 관련 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두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평가지표 조정 및 검토를 할 때, 현재의 지표인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에 청소년의 의사결정참여 보장과 의견이 반영된 정도를 측정할 결과를 추가할 여부를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항목에서 직원의 직무연수 참여시간 평가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참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할 사항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 지표 반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평가시 지표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특히 평가대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물론이고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의 적절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4) 기대효과

사회적 가치관련 활동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역에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이 새롭게 시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청소년활동의 양적

증가를 가져와 이후 질적 성장의 선행 작업이 된다.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선 양적으로라도 관련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이후 평가 결과를 환류 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및 성과 등이 평가로 제도화되기 때문에 평가가 지니는 특성 중 하나인 평가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평가 결과는 책임성에 관한 주요 근거가 된다(김민주, 2019). 그래서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두고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에 대한 책임성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지표로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점이다. 보다 책임 있게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평가에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지표가 일부라도 반영되면 현재보다 더 책임 있는 정책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양희, 박성희 (2014).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211-218.
- 강정아, 노영희 (2018).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99-124.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고동현, 이재열, 문명선, 한솔 (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파주: 한올아카데미.
- 고태규 (2008). 강원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여가활동: 인터넷 폭력게임을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109-119.
- 권구원 (2020). 중학생 농구스포츠클럽 참여 경험 및 사회적 가치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2003).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권청재 (2019). 국책연구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1), 91-120.
- 김경옥, 양현미, 이영범, 전용석, 최범 (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서울: 문화관광부.
- 김경원 (2003).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1), 1-12.

- 김경원, 송우엽 (1998). 스포츠에 대한 정체성 발달과정의 이론적 고찰: 교육적, 발달심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7(2), 131-141.
- 김교헌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 55-68.
- 김동철 (1996).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호경향과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환 (2017).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론 비판. 사회사상과 문화, 20(4), 197-236.
- 김미현, 이현우, 정영근 (2011). 청소년 문화활동의 참여동기, 참여태도, 참여빈도 및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8(2), 77-95.
- 김민주 (2019). 공공관리학. 박영사.
- 김성욱, 이서기, 황진 (2008). 스포츠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정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81-95.
- 김소희, 권일남 (2008). 청소년수련활동 체험이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55-176.
- 김순규, 최혜정, 박신애 (2012).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4(4), 189-207.
-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 김영옥, 송혜린, 이현미 (2007). 21C 변화에 적합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 김영지, 이용교, 안재희 (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원경 (2014). 한국 초, 중,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5(3), 199-231.
- 김윤나, 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

- 속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 연구, 11(1), 79-99.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 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정인 (20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에 관한 시론적 연구: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1), 57-83.
- 김정주, 김용대, 성기원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03-R06).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지영 (2012). 시사주제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95-113.
- 김춘식 (2005). 남자 중학생의 동아리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 채진미, 오경화 (2009). 청소년들의 애니메이션 이용현황과 사회적 가치 관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2), 127-138.
- 김태영, 송성수, 김기룡 (2017). 인재개발분야의 사회적 가치 정립 및 확산 방안 연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연구보고 10-R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자 (2019.9.). 학교 환경교육과 학생들의 환경문제 인식. 교육정책포럼, 315.
- 김희화 (2004).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75-94.
- 남궁근 (2019).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거버넌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3), 35-71.
- 노원구 노원정신보건센터 (2012). 2011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성과보고서. 서울: 노원구.
- 농촌진흥청 (2012). 최신 교육훈련평가 모형을 활용한 교육성과 분석. 농촌진흥청

정책연구보고서.

- 도종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라영재 (2010).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673-696.
- 모상현, 함세정 (2019).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연구보고 19-R2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호, 문호영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1(1), 101-120.
-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문익수, 김기형, 박종길 (2008).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47(3), 127-140.
- 박상욱, 윤태범, 이민창, 윤기찬, 김보미, 김선희 (2018).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 박윤수 (2018). 인지역량의 국제비교(International Differences in Cognitive Skills). 2018 국제포럼: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 자료집, 81-97.
- 박준희 (2005). 청소년의 신체평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5), 1471-1482.
- 박지현, 최태산 (2008).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1(1), 117-129.
- 박철 (2020). [주민자치와 사회적 가치 상관관계] 지속가능 발전엔 공론장과 담론 정치 필수: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상적 규범에 현실의 작동 원리 절실 주민자치 활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월간 주민자치, 101, 32-38.
- 백령 (2007). 박물관교육의 새로운 개념과 범위 설정. 박물관교육연구, 49-64.

- 백유성, 김종길 (2013).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헌연구. *사회적 기업연구*, 6(1), 27-49.
- 백형진 (1998). 중학생의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교육청 (2020). 국제기준(Global Standard)과 함께 생각해보는 학교민주 시민교육: 교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국제기준 활용 안내서 (서울교육 2020-44).
- 성석함, 윤지웅 (2019). 조직의 사회적 가치추구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민간, ICT 기업과 비 ICT 기업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2(4), 111-134.
- 성은모, 이해연, 황여정, 변수용, 유승훈, 이주석 외 (2012).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연구보고 2012-49). 서울: 여성가족부.
- 송선미 (201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6(1), 1-12.
-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21-147.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탐구. 서울: 학지사.
- 양혜원, 이성태 (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 방향 (기본연구 2012-33).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염상석 (2012). 난타활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31, 31-58.
- 유지애, 김옥진 (2018).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241-273.
- 윤민중, 정은진, 정건희 (2016). 청소년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2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박선영, 송민경, 김명선 (2010). 청소년의 글로벌 시터즌십 강화 방안

- 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0-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태범, 양동수, 윤기찬, 최현선, 김보미 (201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 이강우 (2005). 학교체육 커리큘럼 구성과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 (Paradigm). 한국스포츠리서치, 16(2), 915-926.
- 이근호 (2018). 체육활동이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사회적가치준수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은 (200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13-335.
- 이성태 (2007). 아동발달이론. 파주: 학현사.
- 이재열 (2017).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7(11), 163-190.
- 이혜숙, 이영주 (2019). 정책리포트(제270호):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 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 이호열, 김준희 (2008).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에 대한 여가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2), 177-191.
- 임영식, 남기성, 박지영, 최인이, 강영배, 정경은 외 (2014). 2013 토요일문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영식, 정경은 (2014).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64, 115-145.
- 임의영 (2009).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M.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2), 1-18.
-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연구보고 18-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우진, 오승석, 배철효 (2012). 경찰공무원의 가치수준에 따른 사회적가치 인식

- 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1), 33-60.
- 장인실, 장석진 (201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291-313.
- 정명순, 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8, 71-90.
- 조강욱, 김연수 (2010). 한국 청소년의 규칙적 운동 유무에 따른 신체발달과 식사의 질 평가: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8(2), 137-144.
- 조영득 (2015). 태권도 수련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적가치 준수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제 (2005). 초등학생의 스포츠 참여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0(1), 109-121.
- 조영주, 김동식, 남궁윤영, 이혜경 (2019).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영호, 장재철 (2010).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인터넷게임 중독성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9(1), 207-218.
- 최경옥 (2017).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231-261.
- 최용환 (2015). 서울형 혁신학교 성과평가 연구: 고교유형별 학교효과를 중심으로 (서교연 2015-53).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최용환 (2017). 청소년 참여활동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변화 그리고 정책방향: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7-93.
- 최유라, 오성민, 최희순 (2014). 학생들의 방과 후 체육활동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4), 531-545.
- 최현선 (2018).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회 발표자료.

- 탁현우, 윤건 (2020). 사회적 책임 개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의 탐색적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4), 27-49.
- 탁현우, 윤건, 이다솜, 김지원, 정혜진, 안치용 (2019). 포용국가와 책임정부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 정책의제와 실행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25-01).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표내숙, 정상훈, 박철용 (2009). 중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3), 359-374.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교육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5-18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청소년학개론 (제2판). 경기도: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학개론 (제2판).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a). 2019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평가위원 가이드라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b).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설명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8). 2018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최종결과보고서. 비공개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19) 전국 청소년정책지표 기초조사 보고서. 경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20). 내부조사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가이드북. 공식홈페이지 자료실수록.
- 행정안전부 (2018a).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이해와 활용.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0).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행정안전부.

- 허성호, 정태연 (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43-164.
- 허정철 (2005).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7(1), 19-40.
- 허철수, 강옥련 (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2(3), 25-46.
- 현대경제연구원 (2013). 총요소생산성(TFP) 영향 요인의 국제 비교: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 VIP Report, 526, 1-27.
- 현정혁, 홍준희, 이현영 (2010).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및 행복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9(6), 161-171.
- 홍은숙, 이화숙 (2015).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인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137-153.
-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V: 기초분석보고서III-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종단분석 (연구보고 14-R18-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aron, D. J., Dearwater, S. R., Anderson, R., Olsen, T., Kriska, A. M., & Laporte, R. E. (1995). Physical activity and the initiation of high-risk health behaviors in adolescents.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ercise*, 27(12), 1639-1645.

Abadie, A. (2005). Semi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1), 1-19.

Abrams, K., Skolnik, N., & Diamond, J. J. (1999). Patterns and correlates of tobacco use among suburban Philadelphia 6th-through 12th-grade students. *Family Medicine*, 31(2), 128-132.

Acemoglu, D. & Autor, D. (2010).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4, 1043-1171.
- Afonso, A. & Furceri, D. (2008). Government size, composition,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Frankfurt am Main, Germany: European Central Bank. ECB Working Paper Series No.849.
- Aghion, P. & Howitt, P. (1997).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Albanesi, C., Cicobnani, E., & Zani, B. (2007). Sense of community, civic 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387-406.
- Audrain-McGovern, J., Rodriguez, D., & Moss, H. B. (2003). Smoking progression and physical activity. *Cancer Epidemiology and Prevention Biomarkers*, 12(11), 1121-1129.
- Babic, M. J., Morgan, P. J., Plotnikoff, R. C., Lonsdale, C., White, R. L., & Lubans, D. R. (2014).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self-concept in youth: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ports medicine*, 44(11), 1589-1601.
- Baltagi, B. H. (2008).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4th ed.).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Barro, R. J., & Lee, J. W. (2001).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Oxford Economic Papers*, 53(3), 541~563.
- Bennett, K., & Dorjee, D. (2016). The impact of a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course (MBSR) on well-being and academic attainment of sixth-form students. *Mindfulness*, 7(1), 105-114.
- Bergh, A. & Karlsson, M. (2009). Government size and growth:

- Accounting for economic freedom and globalization. *Public Choice*, 142(1), 195-213.
- Berkey, C. S., Rockett, H. R., Field, A. E., Gillman, M. W., Frazier, A. L., Camargo, C. A. et al. (2000). Activity, dietary intake, and weight changes in a longitudinal study of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boys and girls. *Pediatrics*, 105(4), e56-e56.
- Bertrand, M., Duflo, E., & Mullainathan, S. (2002). How much should we trust differences-in-differences estim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1), 249-275.
- Bryant, A. (2018). The effect of social media on the physical,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Honors Senior Capstone Projects*, 37
- Burckhardt, R., Manicavasagar, V., Batterham, P. J., & Hadzi-Pavlovic, D. (2016).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strong minds: A school-based mental health program combin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positive psycholog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7, 41-52.
- Card, D., & Krueger, A. B. (1993).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 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No. w450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ohn, S. (2008). Making objective facts from intimate relations: The case of neurosciences and its entanglements with volunteers. *History of Human Science*, 21(4), 86-103.
- Cooper, H., Valentine, J. C., Nye, B., & Lindsay, J. J. (1999). Relationships between five after-school activitie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369-378.

- Daley, A. J., Copeland, R. J., Wright, N. P., Roalfe, A., & Wales, J. K. (2006). Exercise therapy as a treatment for psychopathologic conditions in obese and morbidly obese adolesc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ediatrics*, 118(5), 2126-2134.
- Dowling, K., Simpkin, A. J., & Barry, M. M. (2019). A Cluster Randomized-Controlled Trial of the MindOut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 for Disadvantaged Post-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7), 1245-1263.
- Dubois, D. L., Holloway, B. E., Valentine, J. C., & Cooper, H. (2002).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grams for youth: A meta-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 157-197.
- Dunton, G. F., Schneider, M., Graham, D. J., & Cooper, D. M. (2006). Physical activity, fitness, and physical self-concept in adolescent females. *Pediatric Exercise Science*, 18(2), 240-251.
- Eccles, J. S., & Templeton, J. (2002). Extracurricular and other after-school activities for yout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26, 113-180.
- Eccles, J. S., Barber, S., Stone, M., & Hunt, J. (2003).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9(4), 865-889.
- Eisenmann, J. C., Bartee, R. T., & Wang, M. Q. (2002). Physical activity, TV viewing, and weight in US youth: 1999 Youth Risk Behavior Survey. *Obesity research*, 10(5), 379-385.
- Ekelund, U., Åman, J., Yngve, A., Renman, C., Westerterp, K., & Sjöström, M. (2002). Physical activity but not energy expenditure is reduced in obese adolescents: A case-control study. *The American*

-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76(5), 935-941.
- Engel, Christoph (2011). "Dictator games: A meta study." *Experimental Economics*, 14(4), 583-610.
- Ewart, C. K., Young, D. R., & Hagberg, J. M. (1998). Effects of school-based aerobic exercise on blood pressure in adolescent girls at risk for hyperten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6), 949-951.
- Ferguson, M. A., Gutin, B., Le, N. A., Karp, W., Litaker, M., Humphries, M., Okuyama, T., Riggs, S., & Owens, S. (1999). Effects of exercise training and its cessation on components of the insulin resistance syndrome in ob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23(8), 889-895.
- Frank, J. L., Bose, B., & Schrobenhauser-Clonan, A. (2014). Effectiveness of a school-based yoga program on adolescent mental health,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Findings from a high-risk sample.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30(1), 29-49.
- Glenister, D. (1996). Exercise and mental health: A review.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Health*, 116(1), 7-13.
- Goeree, J.K., McConnell, M.A., Mitchell, T., Tromp, T. & Yariv, L. (2010). "The 1/d law of giving". *American Economic Journal: Microeconomics*, 2(1), 183-203.
- Gomez, R., & Gunderson, M. (2003). Volunteer activity and the demands of work and family. *Industrial Relations*, 58(4), 573-589.
- Gordon, J. S., Staples, J. K., Blyta, A., & Bytyqi, M. (2004).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ostwar Kosovo high school students using mind-body skills groups: A pilot study. *Journal of*

-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7(2), 143-147.
- Gutin, B., Barbeau, P., Owens, S., Lemmon, C. R., Bauman, M., Allison, J., Kang, H., & Litaker, M. S. (2002). Effects of exercise intensity on cardiovascular fitness, total body composition, and visceral adiposity of obese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75(5), 818-826.
- Gyimah-Brempong, K. (2002). Corrupti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Africa. *Economics of Governance*, 3(3), 183-209.
- Hanushek, E. A. & Woessmann, L. (2011).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educational achievement.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3, 89-200.
- Health Development Agency (2000). *Art for Health: A review of good practice in community-based arts projects and initiatives which impact on health and well-being*. London: HAD.
- Heelan, K. A., Abbey, B. M., Donnelly, J. E., Mayo, M. S., & Welk, G. J. (2009). Evaluation of a walking school bus for promoting physical activity in youth.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6(5), 560-567.
- Hilyer, J. C., Wilson, D. G., Dillon, C., Caro, L., Jenkins, C., Spencer, W. A. et al. (1982). Physical fitness training and counseling as treatment for youthful offend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3), 292.
- Hinkle, J. S. (1992). Aerobic running behavior and psychotherapeutics: Implications for sports counseling and psychology. *Journal of sport*

- Behavior, 15(4), 263.
- Jewett, A. E. (1989). Curriculum theory in physical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35(1), 35-49.
- Katz, L. F. & Murphy, K. M. (1992).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35-78.
- Kim, H. J., Oh, S. Y., Lee, D. W., Kwon, J., & Park, E. C. (2019). The Effects of Intense Physical Activity on Stress in Adolescents: Findings from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5-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0), 1870.
- Kluckhohn, C. (1962). *Culture and behavior*. Kluckhohn, R. (ed.).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Knight, M., Loayza, N., & Villanueva, D. (1993). Testing the Neoclassical Theory of Economic Growth: A Panel Data Approach. *IMF Staff Papers*, 40(3), 512-541.
- Kraag, G., Zeegers, M. P., Kok, G., Hosman, C., & Abu-Saad, H. H. (2006). School programs targeting stress manage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6), 449-472.
- Andrea, A., Rotella, A. & Barclay, P. (2019). "Stake size effects in ultimatum game and dictator game offers: A meta-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51, 61-72.
- LeMURA, L. M., & Maziekas, M. T. (2002). Factors that alter body fat, body mass, and fat-free mass in pediatric obesity. In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 (DARE): Quality-assessed Reviews*

- [Internet].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UK).
- Lucas, R.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32.
- MacMahon, J. R., & Gross, R. T. (1988).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aerobic exercise in delinquent adolescent males.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of Children*, 142(12), 1361-1366.
- Mahoney, J. L., Eccles, J. S., & Larson, R. W. (2004). Processes of adjustment in organized out-of-school activities: Opportunities and risks.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2004(101), 115-144.
- Mahoney, J. L., Harris, A. L., & Eccles, J. S. (2006). Organized activity participati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the over-scheduling hypothesis. *Social policy report*, 20(4), 1-32.
- Mahoney, J. L., Lord, H., & Carryl, E. (2005). Afterschool program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hild obesity and peer accepta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9(4), 202-215.
- Marsh, H., & Kleitman, S. (2002). Extracurricular school activities: The good, the bad, and the nonlinear. *Harvard educational review*, 72(4), 464-515.
- Matarasso, F., & Chell, J. (1998). *Vital signs: Mapping community arts in Belfast*. Stroud: Comedia.
- McCarthy, K. F., Ondaatje, E. H., Zakaras, L., & Brooks, A. (2004).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Rand Corporation.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orris, J. N., & Hardman, A. E. (1997). *Walking to health*. Sports

- medicine, 23(5), 306-332.
-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Committee on Community-Level Programs for Youth. J. Eccles & J. A. Gootman (Eds.). Board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and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Norris, R., Carroll, D., & Cochrane, R. (1992).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training on psychological stress and well-being in an adolescent popul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6(1), 55-65.
-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Paris: OECD.
- Pate, R. R., Heath, G. W., Dowda, M., & Trost, S. G. (1996).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other health behavior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US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6(11), 1577-1581.
- Petersen, A. C., & Crockett, L. (1985). Pubertal timing and grade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3), 191-206.
- Pinhas-Hamiel, O., Standiford, D., Hamiel, D., Dolan, L. M., Cohen, R., & Zeitler, P. S. (1999). The type 2 family: A setting for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dolescent type 2 diabetes mellitu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3(10), 1063-1067.
- Porter, M. E., & Kramer, M.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62-77.
- Riggs, N. R., & Greenberg, M. T. (2004). After-school youth

- development programs: A developmental-ecological model of current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7, 177-190.
- Romer, P.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71-102.
- Schmidt, J. A. (2003). Correlates of reduced misconduct among adolescents facing advers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6), 439-452.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1), 1-65.
- Solow, R.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65-94.
- Staiano, A. E., & Calvert, S. L. (2011). Exergames for physical education courses: Physical, social, and cognitive benefit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5(2), 93-98.
- Strong, W. B., Malina, R. M., Blimkie, C. J., Daniels, S. R., Dishman, R. K., Gutin, B. et al. (2005). Evidence based physical activity for school-age youth. *The Journal of pediatrics*, 146(6), 732-737.
- Sundeen, R., & Raskoff, S. (2000). Ports of entry and obstacles: Teenagers' access to volunteer activitie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1, 179-197.
- Susman, E. J., Nottelmann, E. D., Inoff-Germain, G. E., Dorn, L. D., Cutler, G. B., Loriaux, D. L., & Chrousos, G. P. (1985). The relation of relative hormonal levels and physical de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behavior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 and Adolescence, 14(3), 245-264.
- Tillman, D., & Hsu, D. (2000). Living values: An educational program. Facilitator Guide for parent Values Groups. USA: Sterling Publishers private limited.
- Vandell, D. L., Pierce, K. M., & Dadisman, K. (2005). Out-of-school settings as a developmental context for children and youth. In R. Kail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Volume 33. Oxford: Elsevier.
- Vedung, Evert (1997).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Wacziarg, R. & Welch, K. (2008).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new evidenc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2(2), 187-231.
- Walzer M.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정원섭, 김석수, 박찬구, 선우현, 유석성, 유혜경 외 (역음). 서울: 철학과 현실사.
- Yimer, S. (201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per capita income: Evidence from sub saharan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Research, 2(5), 175-184.

[기타 웹사이트 자료]

- Creavitive City Network of Canada (2005). Arts and positive change in community.
[http://www.creativecity.ca/database/files/library/arts_positive_change\(1\).pdf](http://www.creativecity.ca/database/files/library/arts_positive_change(1).pdf)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 Tony, N., Katherine, C., & Jo, S. (2001). Do community-based arts projects result in social gains? A review of literature. Barnardo, London.
<https://pdfs.semanticscholar.org/1269/c9d7171d42c66165cb73b3f4>

b81b19572731.pdf?_ga=2.152647856.861091772.1590479247-40355300.1590479247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UNDP (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UNDP 웹사이트
<http://hdr.undp.org/en/2019-report> 에서 2020년 1월 15일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9.2.).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정부혁신1번가 웹사이트

[http://www.innogov.go.kr/ucms/bbs/B0000038/view.do?nttId=1177
&menuNo=300086](http://www.innogov.go.kr/ucms/bbs/B0000038/view.do?nttId=1177&menuNo=300086) 에서 2020년 3월 9일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 에서 2020년 1월 15일 인출.

기획재정부 (2018.9.).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39&menuNo=502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22860# 에서 2020년 5월 19일 인출.

기획재정부 (2020.1.1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

www.moef.go.kr%2Fcom%2Fcm%2Ffms%2FFileDown.do%3FatchFileId%3DATCH_000000000012945%26fileSn%3D4&cr=1 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17). 2017 전국 청소년정책지표 기초조사
보고서. 광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http://gicenter.net/data/file/library/2949191598_XmHgFc4o_0ab9264302fa118588801f6a2f88f2fb011ffb89.pdf 에서 2020년 1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8b). 사회적 가치의 이해.

행정안전부 (2018b). 사회적 가치의 이해.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77790PKu9ex2&fileSn=0 에서 2020년 11월 11일 인출.

<http://ncsd.go.kr/definition> 에서 2020년 3월 8일 인출.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1.do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2.do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3.do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4.do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5.do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6.do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seoulyg.net/about> 에서 2020년 11월 11일 인출.

https://www.kywa.or.kr/about/about09_01.jsp 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afterSchulAcademyIntroForm.yt?curMenuSn=371> 에서 2020년 3월 9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intrlExchgActIntroForm.yt?curMenuSn=369>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intrlSccesRwardIntroForm.yt?curMenuSn=342>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munhwaIntro.yt?curMenuSn=1294>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selfChlngRwardIntroForm.yt?curMenuSn=362>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srvActIntroForm.yt?curMenuSn=297>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togetherYardIntroForm.yt?curMenuSn=377>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trngActCrtfcIntroForm.yt?curMenuSn=348>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trngActSttemntIntroForm.yt?curMenuSn=1280>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yngbgsSpeclMtg.yt?curMenuSn=373>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https://www.youth.go.kr/youth/youth/lbrtysemstr/lbrtySemstrIntroForm.yt?curMenuSn=undefined> 에서 2020년 3월 6일 인출.

[법령 참고자료]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7.10.2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2020년 6월 2일 인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17.7.26. 타법개정, 법률 제1483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에서 2020년 1월 15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20년 1월 15일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 (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 2020년 3월 5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청소년용 설문지
2. 전문가용 IPA 질문지
3. 면접 질문지(전문가용)
4. 면접 질문지(청소년용)

1. 청소년용 설문지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20년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해주신 개인응답 내용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13조 및 제 14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핸드폰 번호는 설문응답 답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되며 관련 지급이 완료된 이후 폐기합니다.

2020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최용환 연구위원 (044-415-2253)

성유리 부연구위원 (044-415-2255)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조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조사종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청소년 의견조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 연구 활용 항목 :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조사종단

II. 청소년활동 경험 및 참여도

[문항 기] 다음은 지난 6개월 간 청소년활동 경험과 참여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청소년활동에 대한 경험여부와 경험이 있다면, 각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청소년활동 참여도								
		매우 소극적	←	약간 소극적	←	보통	→	약간 적극적	→	매우 적극적
		①	←			⑤	→			⑨
1) 자유학기제 활동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2) 청소년자원봉사 (DOVOL)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3) 국제교류활동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4) 청소년정책참여 <small>(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small>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5)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6) 청소년어울림마당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7)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8)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9)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10) 기타 <small>(참여한 활동 이름 적어주세요)</small>	① 있다 <small>☑</smal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없다									

III. 학교생활

[문항 8] 귀하께서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항 9] 귀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일주일에 평균 며칠씩 경험하십니까?

온라인 수업 _____ 일 오프라인 수업 _____ 일

IV. 행동경제학 실험

[문항 10] 누군가 귀하께 1만원을 주면서 귀하의 같은 반 학생 1명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 가정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몫과 같은 반 학생의 몫으로 각각 얼마를 배정하시겠습니까?

본인 _____ 원 같은 반 학생 _____ 원

[문항 11] 누군가 귀하께 1만원을 주면서 귀하의 같은 학교의 다른 반 학생 1명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 가정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몫과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의 몫으로 각각 얼마를 배정하시겠습니까?

본인 _____ 원 같은 학교의 다른 반 학생 _____ 원

[문항 12] 누군가 귀하께 1만원을 주면서 귀하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 1명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 가정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몫과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의 몫으로 각각 얼마를 배정하시겠습니까?

본인 _____ 원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 _____ 원

V. 청소년 참여활동

[문항 13] 다음은 정책참여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1인 시위, 집회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국제기구 위원회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14] 다음은 경제참여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은 경제교육 참여, 직업 현장 체험,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관련 청소년의 노동 권리 및 인권교육 등을 의미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청소년의 경제참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에 대한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경제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경제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15] 다음은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은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참여, 공동체 활동, NGO 활동, 자치기구 활동, 캠페인, 지역 간 교류활동 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16] 다음은 문화참여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은 지역사회 내 문화행사·공연 등 기획 및 참여, 각종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문화축제 모니터링 활동, 지역축제 기획·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청소년의 문화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에 대한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문화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문화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17] 다음은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은 학교 동아리 활동, 학생회 자치활동, 학교 운영과정 등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청소년의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대한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교육현장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교육현장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 청소년의 삶의 질

[문항 18] 여러분의 '삶의 질' 각 세부 영역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불만족	←	약간 불만족	←	보통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①	⑤							
1) 생활 자기관리, 가족관계, 주거생활 등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진로 희망진로에 대한 지식, 진로계획, 진로준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사회관계 대인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교육 교육성과, 교육지원, 학교만족도, 교육받을 권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환경 거주지역의 위생 및 청결도, 유해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공참여와 상호협력 정치참여,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신포, 지역사회 소속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건강 개인의 신체건강, 충분한 수면, 식사의 규칙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주관적 만족 영역 자신감,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안전 안전한 등하교 및 귀가길,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충분한 여가활동, 낮은 학업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Ⅶ.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문항 1의 여러분은 여러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모름	←	모름	←	보통	→	알	→	잘 알
	①	←			⑤	→			⑨
1) 인권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유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안전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방안 고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노동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사회통합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상생과 협력 학교, 지역 등 공동체에서 또래와의 상호협력, 청소년과 지역상권의 상생, 사회공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동체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지역경제의 균형 공정경제, 동반성장, 공정한 분배, 합리적 소비, 지역상권 상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윤리와 평등 정직, 절제 등 윤리의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성 등에 대한 평등의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의사결정참여 정책 등 청소년 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항 20] 다음은 청소년활동의 여섯 가지 핵심역량입니다. 자신의 '역량' 수준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①	←			⑤	→			⑨
1) 비판적 사고 새롭거나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창의력 발명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의사소통 생각, 질문, 해결방법 등을 공유하는 소통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협업 공동목표를 위해 여러 명의 재능이나 지식 등을 합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사회정서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진로개발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실행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전문가용 IPA 질문지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20년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활동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와 현 활동의 실행정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정책수단 등을 수집합니다.

응답해주신 개인응답 내용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13조 및 제 14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핸드폰 번호는 설문응답 답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되며 관련 지급이 완료된 이후 폐기합니다.

2020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최용환 연구위원 (044-415-2253)
 성유리 부연구위원 (044-415-2255)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조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조사중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성별, 연령, 지역, 학력, 근무기관(구분), 경력 - 연구 활용 항목 : 성별, 연령, 지역, 학력, 근무기관(구분), 경력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조사중단	

II.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 실현도 조사

[문항 기 다음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게 되는 주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귀하는 각 '사회적 가치'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청소년에게 중요한 정도)										구분	실행정도 (현재 청소년활동 분야에서의 실행정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인권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유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안전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방안 고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노동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사회통합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상징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상생과 협력 학교, 지역 등 공동체에서 또래와의 상호협력, 청소년과 지역상권의 상생, 사회공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동체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지역경제의 균형 공정경제, 동반성장, 공정한 분배, 합리적 소비, 지역상권 상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윤리와 평등 정직, 절제 등 윤리의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성 등에 대한 평등의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의사결정참여 정책 등 청소년 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항 8] 열 가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과제

- ① 청소년 참여 확대, ②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③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④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⑤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⑥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⑦ 대상별 맞춤형 지원, ⑧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⑨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⑩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 ⑪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⑫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구분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적합하지 않음					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노동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사회통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상생과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공동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지역경제의 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윤리와 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의사결정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항 외 열 가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유관 법령 제·개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후 입법례(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문의 추진전략-같이 가는 사회, 가치있는 삶-(2020.01.15., 기획재정부))' 등

구분	유관 법령의 제·개정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노동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사회통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상생과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동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지역경제의 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윤리와 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의사결정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항 10] 열 가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청소년관련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전담조직 신설 혹은 개편
 사회적 가치 관련 기관에 청소년업무 규정 개편 및 전담조직으로의 인력 파견

구분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노동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사회통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상생과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동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지역경제의 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윤리와 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의사결정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항 11] 열 가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평가 강화'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청소년관련 시설평가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관련 평가 강화 혹은 지표 신설 등

구분	평가 강화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노동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사회통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상생과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동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지역경제의 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윤리와 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의사결정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항 12] 귀하는 청소년활동 과정에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각 사회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활동명', '명시된 사회적 가치 외에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구분	설명
1) 인권	
2) 안전	
3) 노동인권	
4) 사회통합	
5) 상생과 협력	
6) 공동체	
7) 지역경제의 균형	
8) 윤리와 평등	
9) 환경	
10) 의사결정참여	
11) 기타	

[문항 13]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수단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	
유관 법령의 제·개정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평가 강화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면접 질문지(전문가용)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FGI 면접 질문지

□ 사전 배경질문

성명	
연령(만)	
성별	
직장 및 직급	
업무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 인터뷰 소개 및 안내

-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OECD국가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이나 워라벨은 상당히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한국인의 삶의 질 하락을 회복할 방법을 사회적 가치에서 찾고, 정책 추진 전 과정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이익'의 반대말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 심리학과 경제학에는 사회적 가치 성향(Social Value Orientation)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사회적 가치는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것과 같은 어떤 성격특질이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과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경험하는 여러 일들에 의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 사회적 가치 성향은 크게 친사회적(prosocial), 개인적(individualistic), 경쟁적(competitiv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친사회적인 성향의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의 이익을 높여주는 사람이 아닌 타인과 함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호하며,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나누는 상황에서 두 이익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개인적인 성향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성향, 경쟁적인 성향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의 이익을 깎아내리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세 성향 중 개인적인 성향과 경쟁적인 성향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 즉, 문재인정부는 친사회적인 성향의 기관과 국민을 증가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성향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동안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생성되므로 청소년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면, 청소년활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친사회적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를 10가지 영역(분야)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영역은 인권, 안전, 노동인권,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공동체, 지역경제의 균형, 윤리와 평등, 환경, 의사결정참여입니다.
- 청소년활동에서 사회적 가치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현재의 정책수단들은 정부가 나아가려고 계획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에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여쭙보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내용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 Q.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를 청소년활동에서 실현할 때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각 가치의 실현정도

- Q. (표 1을 제시하면서) 이 표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체득해야할 사회적 가치입니다. 다음의 사회적 가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청소년활동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잘 실현되고 있나요? 잘 실현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다음의 사회적 가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청소년활동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잘 실현되지 않나요?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구분
1) 인권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유지
2) 안전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방안 고려
3) 노동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4) 사회통합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5) 상생과 협력 학교, 지역 등 공동체에서 또래와의 상호협력, 청소년과 지역상권의 상생, 사회공헌
6) 공동체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7) 지역경제의 균형 공정경제, 동반성장, 공정한 분배, 합리적 소비, 지역상권 상생
8) 윤리와 평등 정직, 절제 등 윤리의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성 등에 대한 평등의식 개선
9)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10) 의사결정참여 정책 등 청소년 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3)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별 의견

- (1) 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중앙 및 지자체)
Q. 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2) 유관 법령(여타 사회적 가치 기본법, 청소년 관련 기본 법령들)
Q. 유관법령을 통해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3)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Q. 전담기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Q. 여성가족부 기존 조직에 사회적 가치 관련 전담업무를 부여한다면 어느 부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만약 부서를 신설한다면 어느 조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평가(지자체 평가, 청소년시설 평가)

Q. 평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4) 마무리

Q.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가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4. 면접 질문지(청소년용)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FGI 면접 질문지

□ 사전 배경질문

성명	
연령(만)	
성별	
학교	
휴대폰번호	
참여한 활동명	

□ 인터뷰 소개 및 안내

-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OECD국가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이나 워라벨은 상당히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한국인의 삶의 질 하락을 회복할 방법을 사회적 가치에서 찾았고, 정책 추진 전 과정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이익의 반대말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 심리학과 경제학에는 사회적 가치 성향(Social Value Orientation)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사회적 가치는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것과 같은 어떤 성격특질이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과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경험하는 여러 일들에 의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 사회적 가치 성향은 크게 친사회적(prosocial), 개인적(individualistic), 경쟁적(competitiv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친사회적인 성향의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의 이익을 높여주는 사람이 아닌 타인과 함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호하며,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나누는 상황에서 두 이익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개인적인 성향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성향을, 경쟁적인 성향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의 이익을 깎아내리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세 성향 중 개인적인 성향과 경쟁적인 성향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 즉, 문재인정부는 친사회적인 성향의 기관과 국민을 증가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성향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동안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생성되므로 청소년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면, 청소년활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친사회적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를 10가지 영역(분야)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영역은 인권, 안전, 노동인권,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공동체, 지역경제의 균형, 윤리와 평등, 환경, 의사결정참여입니다.
- 앞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경험한 청소년활동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회적 가치를 얻을 수 있었는지 어떤 활동과 정책수단이 있을 때 사회적 가치를 더 잘 얻을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인터뷰 내용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 Q. 청소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이 체득하는 사회적 가치를 청소년활동에서 실현할 때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각 가치의 실현정도

- Q. (표 1을 제시하면서) 이 표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체득해야할 사회적 가치입니다. 다음의 사회적 가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청소년활동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잘 실현되고 있나요? 잘 실현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다음의 사회적 가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청소년활동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잘 실현되지 않나요?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현재 중학생(고등학생)인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르게 전략을 세워야할 사회적 가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가치이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구분
1) 인권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유지
2) 안전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방안 고려
3) 노동인권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4) 사회통합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5) 상생과 협력 학교, 지역 등 공동체에서 또래와의 상호협력, 청소년과 지역상권의 상생, 사회공헌
6) 공동체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7) 지역경제의 균형 공정경제, 동반성장, 공정한 분배, 합리적 소비, 지역상권 상생
8) 윤리와 평등 정직, 절제 등 윤리의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성 등에 대한 평등의식 개선
9)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환경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10) 의사결정참여 정책 등 청소년 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3)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별 의견

(1) 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중앙 및 지자체)

- Q. 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2) 유관 법령(여타 사회적 가치 기본법, 청소년 관련 기본 법령들)

Q. 유관법령을 통해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3) 전담조직 신설 및 개편

Q. 전담기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4) 평가(지자체 평가, 청소년시설 평가)

Q. 평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4) 마무리

Q.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가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ABSTRACT

Research on Improvement of Social Value of Youth Activities

This study defines what social values adolescents can internalize and acquire through youth activities, and how their experiences actually affect the changes in social values.

Unfortunately, no literature study directly identified the social value of youth activities. This study considered the concept of social value, consequences of relevant research, implications of the current public policy, and newly defined it. As the plan to enhance social values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in the country, the social value of youth activities has been reviewed based on the “Study on Social Value for Implementing an Inclusive Societ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19. The social values that can be internalized through youth activities were defined as follows: ① Human rights, ② Safety, ③ Labor rights, ④ Social integration, ⑤ Win-win and cooperation, ⑥ Sense of community, ⑦ Balance of local economy, ⑧ Ethics and equality, ⑨ Environment, and ⑩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s youth activities have been rooted in the field as a project unit, youth participation activities were defined as follows: ① Free semester activities, ② Youth volunteering(DOVOL: Do volunteer), ③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④ Youth policy participation(youth special meeting,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youth training facility steering committee), ⑤ Youth after-school academy, ⑥ Youth Oullim Madang, ⑦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 ⑧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⑨ Youth self-challenged award.

First, in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stimated the net effect of the youth activities on social value changes in adolescents through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odel has the advantage of calculating pure effects of social value chang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because it eliminates the maturation effect and intergroup difference effect in the quasi-experimental design. The lists of youth surveys were targeted at 1,354 people nationwide, consisting of matched pair design, and 606 adolescents responded to the second round for the experimental effect of the policy. As a result, the youth group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had significant levels of human rights, social integration, ethical equality,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This is consistent with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results for youth-related experts. However, the change in the sense of community which is expected to be the most positive change depending on youth activity could not be statistically confirmed. Among youth participation activities, school-related activities such as free semester activities had the greatest impact on social values.

On the other hand, the study also conducted a further analysis of changes in the sense of community using the dictator game, which is

widely used in experimental economics, as it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adolescents did not change their social value levels due to their uncertain concept of community. As a result of the panel fixed-effect analysis on experiments, the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also did not affect the form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in strong consideration tend to participate mainly in youth activities.

Overall, it was shown that changes in social values due to youth activities were effective in improv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social integration, ethical equality, and decision-making, but this was limited to achievements of school-oriented activities and raising educational awarenes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such phenomena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adolescents and related experts. It was found that policies to encourage adolescents to acquire internal values through youth activities were not systematically provided.

This study suggested policy proposals to enhance the social value that adolescents acquire through youth activities. Proposals are as follows: ① Basic plans for youth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②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③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of youth policy group, ④ Strengthening assessment, etc. It suggested what social values are to be included in the 7th Basic Youth Policy Plan and the legal basis for enhancing social values in adolescence. And as a way to institutionalize these policies, it proposed

operating the 'Regional Youth Committee(Cooperation and Win-win)',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as the basis for realizing social values. This study also proposed the plan to solve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al problem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social value department of Korea Youth Work Agency, and to reinforce the evaluation system to realize social values based on youth activities.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조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 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 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 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 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

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해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작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쓰다 - 동고동락, 다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험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 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66-7



연구보고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0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3 3 3 0

ISBN 979-11-5654-266-7 93330